연구보고 10-R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 Ⅲ

가족과 가정생활에 관한 의식 및 가치관을 중심으로

책임연구원 : 이종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연구원 : 오승근(명지전문대학교)

김은정(덕성여자대학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 구 요 약

1. 연구의 개요

- 한국사회는 근대화·산업화과정을 통하여 유례 없는 압축성장을 경험함으로써 성장환경과 역사적 경험을 달리하는 세대간 차이와 갈등이 주요한 사회현안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음.
- 본 연구는 한국사회 세대문제의 영역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3개년 연속사업의 일환으로서, 올해에는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를 통해 가족과 가정생활 관련 청소년과 부모세대(학부모)의 의식 및 가치관을 비교·분석하였음.
- 설문조사는 확률표집 방식으로 추출된 전국의 중·고교생(6,979명)과 그 학부모(4,010명) 표본을 대상으로 학급단위의 집단조사(중·고교생) 및 자녀를 통한 개별조사(학부모)의 방식으로 실시되었음.

2. 주요 조사결과

1) 가족의 개념과 범위

- 가족의 의미에 대하여 청소년과 학부모는 모두 “혈연공동체” “생활공동체” “애정공동체”에 높은 긍정응답률을 나타내었음. 애정공동체로서의 가족이 중시되고 있는 것은 세대를 불문하고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식의 한 단면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국사회의 가족관은 전통적인 부계-혈연 중심에서 모계-생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부모세대와는 달리 청소년들은 백부·숙부보다는 이모와 외삼촌을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여기고 있으며, 애완동물을 자신의 가족으로 간주하는 청소년도 과반수에 달함.

2) 가족의식·가치관

- 청소년은 부모세대와 비교하여 보다 개방적·진보적인 가족의식을 보유하고 있음. 조사대상이 된 가족의식의 5가지 하위영역(가부장의식, 성역할관, 효의식, 부모부양의식, 제도적 가족관) 중 부모부양의식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부모세대가 자녀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특히 가부장의식과 성역할관에 있어서 부모-자녀세대간 차이는 매우 현저하였음.
- 청소년들의 가족의식은 배경변인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는데,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3세대 가정 청소년이 2세대 가정 청소년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내었음.
- 가족의식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남자 청소년에 대한 부친과 모친의 영향력은 거의 대등한 수준이지만, 여자 청소년에 대해서는 모친의 영향력이 부친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3) 가족기능·가족관계

- 가족의 건강성(가족응집성/가족적응성)에 대한 평가는 부모세대가 더 높았지만,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부모-자녀세대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개방형 의사소통 점수는 모친이 부친보다 높은 한편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는 부친이 다소 높은 편으로서, 청소년들은 가정내에서 부친보다는 모친과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청소년들은 모친의 양육태도가 부친보다 민주적인 것으로 평가하였지만, 권위적 양육태도 측면에서는 부친/모친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엄부자모"(嚴父慈母)의 이미지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청소년들이 평가한 부모와의 세대간 결속감은 모친이 더 높은 수준으로서 부친보다는 모친에 대해서 보다 강한 정서적·심리적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4) 가족활동·가사활동

- 청소년들이 가정내 일상활동(TV시청, 아침·저녁식사 등)을 함께 하는 빈도는 모친이 부친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배경변인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이 맞벌이 가정보다, 또한 계층위계가 높을수록 부모와 함께 하는 가족활동의 빈도가 높았음.
- 청소년들의 가사활동 참여는 일정 수준의 성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즉, 식사준비/설거지/세탁·빨래는 여자가, 집안청소/쓰레기 치우기는 남자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가사활동 참여도를 성별로 비교하면, 부모세대는 여성의 참여도가 남성보다 월등하게 높은 반면, 청소년들은 남녀가 거의 대등한 수준이었음.
- 남자 청소년의 가사활동 참여는 부친과는 거의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여자 청소년은 모친이 가사활동을 많이 담당할수록 오히려 참여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음.

5) 가족관련 심리·행동 특성

- 가정의 계층적 지위는 청소년의 심리·행동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계층위계상 하층에 속할수록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편, 일상적인 비행 빈도는 높은 수준이었음.
- 가족구성에 있어서는 결손가정 청소년이 양친가정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수준이었고, 3세대 가정 청소년이 2세대 가정 청소년보다 높은 권위주의 성향을 나타내었음.
- 학교생활에 있어서는 양친가정 청소년이 결손가정 청소년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이 맞벌이 가정 청소년보다, 또한 계층위계상 상층에 속하는 청소년일수록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3. 정책방향 제언

- 부모가 자녀지도 과정에서 당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자녀지도 편람”을 개발하여 책자·인터넷 등을 통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정의 날”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가족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안을
- 청소년들이 성인, 노년세대의 공동활동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식·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세대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함
- 세대간 통합 증진을 위해 국가정책 과정에서 세대별 균등한 기회와 참여를 보장하는 “세대별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목 차

서 론 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7

I. 이론적 배경 13

1. 세대 논의 13
2. 가족의 변화와 가족의식 19
3. 선행연구 검토 29

II. 조사의 개요 45

1. 조사의 대상과 방법 45
2. 조사의 내용과 도구 49
3. 표본의 구성 73

III. 가족의식·가치관 81

1. 가족의 개념 81
2. 가족의식·가치관 100
3. 가정생활만족도 110
4. 요약 112

IV. 가족기능·가족관계 119

1. 가족기능 119
2. 부모의 양육태도 123
3. 부모-자녀 의사소통 129
4. 세대간 결속감 135
5. 요약 140

V. 가족활동·가사활동 147
1. 가족활동 147
2. 가사활동 155
3. 요약 166
VI. 가족관련 심리·행동 특성 171
1. 심리특성 171
2. 비행 180
3. 학교생활 적응 184
4. 요약 190
결 론 195
1. 연구요약과 논의 195
2. 정책방향 제언 207

참고문헌 213
부 록 229
1. 청소년용 조사표 229
2. 학부모용 조사표 245

표 목차

<표 I-1> 가족유형별 평균가구원수 21
<표 I-2> 합계 출산율 변화추이(1960-2006년) 21
<표 I-3>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22
<표 I-4> 연도별 총 이혼건수 및 이혼율 24
<표 I-5> 혼인상태별 한부모 가구수와 비율 24
<표 I-6> 주요 이혼력 지표 (1990-2005) 26
<표 I-7> 주요 출산력지표 27
<표 I-8>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비교 31
<표 I-9>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38
<표 II-1> 모집단의 구성 46
<표 II-2> 모집단 층화비율에 의한 표본 배분 46
<표 II-3> 조사의 내용과 조사표 구성 50
<표 II-4> 가족의식 척도의 요인분석: 사교회전 후 요인행렬표 54
<표 II-5> 가족의식 척도의 항목구성 및 척도신뢰도 55
<표 II-6> 가족기능 척도 요인분석: 사교회전 후 요인행렬표 57
<표 II-7>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요인분석: 사교회전 후 요인행렬표 59
<표 II-8>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요인분석: 사교회전 후 요인행렬표 62
<표 II-9> 가족활동 척도의 요인분석: 사교회전 후 요인행렬표 64
<표 II-10> 자아존중감 척도 요인분석 결과: 사교회전 후 요인행렬표 66
<표 II-11> 자아정체감 척도 요인분석: 사교회전 후 요인행렬표 67
<표 II-12> 비행 척도 요인분석: 사교회전 후 요인행렬표 70
<표 II-13> 학교생활 적응 척도 요인분석: 사교회전 후 요인행렬표 72
<표 II-14> 표본의 특성 74
<표 II-15> 부모응답/무응답 집단 비교 I 77
<표 II-16> 부모응답/무응답 집단 비교II 78
<표 III-1> 가족의 의미: 청소년과 학부모 82
<표 III-2> 가족의 의미: 혈연공동체 83
<표 III-3> 가족의 의미: 생활공동체 85
<표 III-4> 가족의 의미: 애정공동체 86
<표 III-5> 가족의 범위: 가족으로 볼 수 있는 대상 89

<표 III-6> 조사대상 친척의 분류 90
<표 III-7> 가족의 범위 인식: 청소년과 학부모 91
<표 III-8> 가족의 범위인식: 부모-자녀간 상관관계 92
<표 III-9> 가족의 범위인식: 부계친척과 모계친척 93
<표 III-10> 가족의 범위인식: 혈연친척과 혼인친척 96
<표 III-11> 가족의 범위인식: 남자친척과 여자친척 98
<표 III-12> 가족의식: 청소년과 학부모 101
<표 III-13> 가족의식의 부모-자녀간 상관관계 101
<표 III-14> 가부장의식 103
<표 III-15> 성역할관 104
<표 III-16> 부모 부양의식 105
<표 III-17> 효의식 107
<표 III-18> 제도적 가족관 108
<표 III-19> 가정생활 만족도: 청소년과 학부모 110
<표 III-20> 가정생활 만족도 111
<표 IV-1> 가족기능: 청소년과 학부모 120
<표 IV-2> 가족응집성 121
<표 IV-3> 부모의 양육태도: 부친/모친 비교 123
<표 IV-4> 부모의 양육태도: 부친-모친 상관관계 124
<표 IV-5> 부친/모친의 민주적 양육태도 125
<표 IV-6> 부친/모친의 권위적 양육태도 127
<표 IV-7> 의사소통 유형별 부친/모친 비교 129
<표 IV-8> 의사소통 유형별 부친/모친의 상관관계 130
<표 IV-9> 부친/모친과의 개방형 의사소통 132
<표 IV-10> 부친/모친과의 문제형 의사소통 134
<표 IV-11> 세대간 결속감: 부친/모친 비교 135
<표 IV-12> 부모와의 세대간 결속감 136
<표 IV-13> 부친/모친과의 세대간 결속감 138
<표 V-1> 가족활동 전체 빈도 149
<표 V-2> 부친/모친과의 가정내 일상활동 150
<표 V-3> 가정내 일상활동 151
<표 V-4> 부모와의 가정밖에서의 가족활동 152
<표 V-5> 부모와의 쇼핑·외식활동 빈도 153
<표 V-6> 부모와의 야외체험활동 빈도 154

<표 V-7> 가사활동 유형별 빈도 155
<표 V-8> 가사활동 전체 빈도 156
<표 V-9> 식사준비하기 빈도 158
<표 V-10> 설거지하기 빈도 159
<표 V-11> 세탁·빨래하기 빈도 160
<표 V-12> 집안청소하기 빈도 161
<표 V-13> 쓰레기치우기 빈도 162
<표 V-14> 가사활동 빈도: 청소년/학부모 성별 비교 164
<표 V-15> 가사활동 빈도의 동성 부모-자녀간 상관관계 165
<표 VI-1> 자아정체감 172
<표 VI-2> 자아존중감 173
<표 VI-3> 개인/집단요인 자아존중감 175
<표 VI-4> 권위주의 성향 177
<표 VI-5> 삶에 대한 만족감: 청소년과 학부모 178
<표 VI-6> 삶에 대한 만족감 179
<표 VI-7> 비행 빈도 181
<표 VI-8> 비행 유형별 빈도 183
<표 VI-9> 학교생활 적응: 전체 185
<표 VI-10> 학교생활 적응: 교사 적응 186
<표 VI-11> 학교생활 적응: 친구 적응 187
<표 VI-12> 학교생활 적응: 공부 몰입 188

그림목차

[그림 I-1] 문화의 차이와 자아정체성/자기관의 형성..... 32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사회는 근대화·산업화과정을 통하여 유례 없는 압축성장을 경험함으로써 이질적인 가치관의 동시대적 공존이라는 문화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성장환경과 역사적 경험을 달리하는 세대간 차이와 갈등이 주요한 사회현안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세대문제 연구자들은 세대갈등이 사회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상으로서 우리나라처럼 급격한 변동을 겪은 사회일수록 세대간의 격차가 크고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구에서는 1960년대 학생들의 체제 저항운동이 세대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 청년층과 기성세대간의 관계가 한동안 연구의 초점이 되어 왔다. 최근에는 인구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노년층과 청·중년층간의 세대갈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Bengtson, 1993; 박재흥, 2001 재인용). 그러나 한국사회의 세대연구는 문제의 중요도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1970년대 청년문화의 대두, 1990년대의 신세대논의의 활성화와 더불어 세대문제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으나 주로 매스컴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담론의 수준에 머물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386세대의 부각과 월드컵 응원, 촛불시위 등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었지만 본격적인 세대논의와 연구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당시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회자된 X세대, N세대, W세대, R세대 등의 용어는 새로운 세대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촉발하였지만 주로 상업적·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이창호, 2008: 16) 세대문제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1]. 우리사회의 세대문제에 대한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서구적 세대개념의 무비판적인 적용에서 벗어나 실증적 자료에 기초한 분석과 일반화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이종원, 김영인, 2009).

한국사회의 세대논의와 관련연구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청소년주의"(원용진, 이동연, 노명우, 2006)의 만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청소년층을 단일한 특성을 지닌 연령집단으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급속한 정신적·신체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선입견은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예컨대, 특정 영역에 있어서 초등학생과 고교생간 가치관의 차이는 전체로서의 청소년집단과 성인간의 차이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계층화의 진전과 더불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층 내부의 분화현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이종원 김영인, 2009).

청소년층을 단일한 집단으로 바라보는 연구자의 시각은 연구방법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청소년과 성인세대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청소년 샘플의 표집은 제한된 연령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표집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은 조사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곤 한다.

세대차 연구에 있어서 연구주제의 선택도 매우 민감한 문제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생활경험을 통한 고정관념에 집착하는 성인들에 비해 현상을 추상적 또는 이상적 수준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조사를 통해 파악한 가치관과 의식구조가 반드시 현실 행동으로 반영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

[1] 당시 기업 마켓팅 전략 차원에서 고안된 세대용어는 ①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른 서구의 개념을 빌어와 한국사회의 세대현상을 설명하려 하였고, ② 청소년의 소비지향성(X세대), 참여지향성(W, R세대), 네트워크지향성(N세대) 등이 마치 청소년층에 내재된 고유한 속성인 양 부각시켜 그와 같은 현상이 유발된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요인들을 은폐하는 데 일조하였다

기존 세대차 연구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이종원, 김영인, 2009).

첫째, 성인과의 차이점에 못지 않게 청소년집단 내부의 차이에도 눈길을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령, 지역, 계층 등의 측면에서 청소년 하위집단들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표집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둘째, 현실과 이상의 괴리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기의 정서적 특성을 고려하여 심리·의식 차원과 더불어 현실 행동 차원의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

셋째, 세대차의 종합적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영역과 주제의 단편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의식구조와 가치관, 행동양식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세대간 의식구조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사회를 전망하기 위한 3개년에 걸친 연속사업의 일환으로서, 올해에는 가족의식과 가정생활을 주제로 하여 청소년(중·고교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가족의식·가족가치관의 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몇몇 가족학자들은 우리 사회의 가족가치관은 원래 가족중심주의와 가부장제를 기본축으로 하였으나(이광규, 1992; 이효재, 1991; 최재석, 2009), 서구화와 산업화, 도시화의 결과로 인해 개인 중심주의와 양성평등의식이 확산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김규원, 1995).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조사한 Inglehart(1997)는 한 사회의 가치관은 경제발전에 따라 급속도로 변화, 이행해 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명제가 한국사회에서도 설명력이 있는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 어수영(1997)은 여성들의 삶이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적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우리사회의 가치관이 개인주의적이며 남녀평등적으로 변화해 간다고 논의하면서 위의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변화해 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신수진(1998)은 젊은 층에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사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가족주의 전통이 강하며, 자녀출산에 대한 문화적 압력도 강한 편이라고 밝힘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사회구성원 전체의 변화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기수(2004)는 한국사회에서 가치관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정도는 성, 연령, 교육수준 등의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가치관의 변화가 사회 전체적으로 동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이것이 다양한 사회전반의 가치관 중에서도 특히 가족이라는 영역에서의 변화가 느리며, 전통적인 가치관의 영향이 잔재하는 이유라고 말한다(은기수, 2004).

한편,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수용도는 세대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인다. 부모세대 또는 기성세대에 비해 자녀세대/젊은 세대들은 좀 더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보다 열린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부모/자녀 세대간 가족가치관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되며, 이로 인해 부모 자녀간 가족의식/생활패턴/의견들이 차별성을 보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의 가족의식과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적지 않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지만, 특정한 주제에 대한 가설 검증 차원의 단편적인 연구가 대부분으로서 가족이론 정립의 기초가 되는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사회의 가족의식·가정생활의 영역별 실태를 파악하여 가족관련 이론의 정립과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제와 관련한 선행이론과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분석하였다(제Ⅰ장). 사회과학 연구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세대의 개념과 세대차이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고, 조사주제와 관련한 주요 선행연구의 내용들을 검토하여 조사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둘째, 가족의식·가정생활을 주제로 중·고교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표집과 조사방식, 조사내용 및 척도의 구성,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기술하였다(제Ⅱ장).

셋째, 설문조사의 주요결과를 조사영역별로 정리·분석하였다. 조사의 영역은 크게 가족의식·가치관, 가족기능·가족관계, 가족활동·가사활동, 가족관련 심리·행동 특성의 네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각 영역별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의식·가치관(제Ⅲ장)에서는 가족개념의 세대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자기 주변의 친척과 친지 중에서 가족으로 간주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가족의식을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을 강조하는 가부장의식, 남성과 여성의 역할구분을 강조하는 성역할관, 연로한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 일상생활에서의 부모에 대한 효의식,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제도적 가족관)의 다섯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가족기능·가족관계(제Ⅳ장)에서는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의 두가지 측면에서 가족의 기능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또한 청소년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평소에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가족활동·가사활동 영역(제Ⅴ장)에서는 평소에 부모님과 함께 하는 활동

의 빈도를 유형별로 측정하였고, 일상적인 가사활동에서 얼마나 자주 부모님을 돕고 있는지(학부모조사에서는 배우자와의 가사활동 어느 정도 분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가족관련 심리·행동 특성(제Ⅵ장)에서는 권위주의 성향과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고 가족관련 변인과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비행 빈도와 학교생활 적응도를 조사하고 가족관련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뒤 가족·청소년정책의 방향설정과 관련한 제언을 시론적으로 제시하였다.

나.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가족의식·가정생활과 관련한 학계의 주요이론과 논의를 검토하여 연구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의 가족의식·가정생활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의 세부주제와 설문조사의 주요항목들을 결정하였다.

설문조사는 학생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2010년 6~7월의 두달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조사표 시안을 개발한 뒤 서울지역 중·고교생 250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통해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여 조사내용을 확정하였다.

조사표는 중·고교생 대상으로 한 청소년용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인용의 2종을 개발하였다. 표집방식은 본원의 통합조사계획에 의거하여 중·고교생 및 학부모 5,802명을 목표표본으로 결정한 뒤 확률표집(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는 사전에 실사관련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직접 조사대상 학급을 방문하여 조사의 목적과 내용, 응답요령 등을 설명한 뒤 청소년들이 직접 조사표에 응답내용을 작성하는 학급단위의 자계식(自計式)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학부모 조사는 조사대상 청소년에게 조

사표를 전달하여 부모 중 1인의 응답을 받아오는 개별조사의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밖에 연구주제와 관련한 학계인사,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실무자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방향 설정 및 조사결과 분석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Ⅰ. 이론적 배경

1. 세대 논의
2. 가족의 변화와 가족의식
3. 선행연구 검토

I. 이론적 배경

1. 세대 논의

가. 청소년 세대

개인의 삶은 사회적 맥락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것은 심리학, 청소년학, 또는 교육학 연구에서 오로지 심리발달의 한 단계로서 아동과 성인 사이의 과도기적 존재로만 여겨지고 분석되었던 청소년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 개인의 삶과 사회적 맥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나타나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며, 이들은 사회적 맥락과 동떨어진 심리발달의 한 단계를 거치는 존재로만 분석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한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적 맥락과 관련시켜서 분석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사회역사 속의 한 집단으로 간주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을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적 맥락과 연결시켜 보는 시각은 최근에야 등장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은 자신의 목소리나 의견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업무(학업)를 수동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존재로서, 대학을 가기 위해 자신의 한 생애 단계를 소비시켜야 하는 존재로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대나 역사에 상관 없이 누구나 십대 시절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이 상황에서 자신의 집단에 정체성을 가지면서 자신의 목소리나 의견을 내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발발하면서 청소년들이 더 이상 “불변의 학생”임을 부인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십대”의 목소리를

스스로 내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8년의 촛불집회라 할 수 있다. 이 집회에서 10대들은 가장 먼저 촛불을 들고 자신의 주장을 폄으로써 청소년들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공부만 하는, 그래서 시대의 변화와 상관 없이 그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시대 및 사회와 소통하는 존재임을 처음으로 드러냈다. 이후 현재의 10대들은 그 이전의 10대 또는 청소년과 구분되었다. 이들은 이제 "촛불세대"로서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청소년 세대로서 명명되고 있다.

이와 같은 촛불세대로서의 10대는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많이 바꾸었다. 우선 이들이 촛불을 "왜" "어떻게" 들게 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로서 제기되고 논의되는 것은 ① 청소년들의 새로운 정치적 권리 주장, ② 신자유주의적 지배구조 속에서 교육제도의 억압을 경험하는 10대들의 봉기, ③ 청소년집단의 독특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④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청소년세대로서의 의미 등이다(김철규, 김선업, 이철, 2008; 오찬호, 2009).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왜 이들이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광우병 사태를 절실하게 인식했으며, 또한 그것이 인식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교류했으며, 그 결과 광장으로 나가게 되었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행동이 어떤 리더나 지도집단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 전부의 쌍방형 소통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촛불세대의 의사소통 방식이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재 10대들의 소통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이 세대를 특징짓는 가장 큰 키워드는 인터넷공간에서의 소통이라는 것이다. 이 세대는 인터넷공간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며, 그 결과 사회적으로 어떤 사안이 나타났을 때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즉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그 문제를 이슈화하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세대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는 바로 "web 2.0 세대"(오찬호, 2009)이다. web 2.0세대는 인터

넷 공간에서 상호소통하며, 참여지향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반응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는 세대이다. 이들의 특징은 ①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소통을 중시하고, ② 모바일과 인터넷을 자신의 표현수단으로 삼는 "디지털 노마드"족이며, ③ 합리적 논리와 토론이 오고 가는 "공론장" 중심이 아닌 이미지와 상징을 매개로 한 감수성과 정서적 요인이 중시되는 "심미적 토론장"(오찬호, 2009)을 신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들의 세대를 특징짓는 데 중요한 것은 인터넷과 모바일이며, 이것을 토대로 하여 이전과는 다른 상호교류 방식이 형성되어 이 세대를 다른 세대와 구분짓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과 모바일이라고 하는 기술적/물적 조건은 최근 들어 우리 삶에 도입된 것으로서 현대 생활을 결정짓고 과거와 구분되게 하는 하나의 역사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상용이라고 하는 역사·사회적 맥락이 환경의 변화 및 자극을 능동적으로 흡수하는 청소년기라는 심리발달 단계와 만난 결과 이와 같은 세대적 특징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삶과 사회적 맥락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동하게 된다. 일찌기 Elder(1975)는 청소년/개인의 생애 및 삶을 심리학적으로만 접근하는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고, 역사·사회적 맥락과 관련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연구법은 생애과정 접근법(life course perspective)으로 불리는데, 이는 사회문화 및 역사적 맥락을 통해 개인의 삶과 인생 발달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방법론이다(Elder, 1975; 1992).

생애과정 접근법에서 개인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데 "시간"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이전까지 한 인간의 발달/생애에 관한 연구들이 개인의 연령만을 고려한 개인의 시간(individual time)만을 분석단위로 하여 살펴본 한계가 있었던 반면, 생애과정 접근법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개인의 일생이 사회·역사적으로 구조화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개인의 삶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시간(individual time), 사회적 시간(social time), 그리고 역사적 시간(historical time)이라는 서로 다른 차원의 시간이 어떻게 상호작용

을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한경혜, 2004; Elder & Johnson, 2003)[2]. 여기서 개인적 시간이란 생애단계에서의 진행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인 개인의 연령을 의미하고, 사회적 시간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타임 테이블(time table)로서 일정한 역할의 진입과 퇴거의 시기가 사회적으로 적절한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역사적 시간이란 개인이 특정 역할전이를 경험할 당시의 역사상의 위치를 지칭하며, 그 당시의 경제적, 인구학적, 사회적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생애과정 관점에서는 상호연결되어 있는 세가지 차원의 시간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인간 발달의 궤적을 그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시간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인간발달의 궤적을 만들어내게 되므로,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은 유사한 역사적 사건에 노출되어 서로 공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결과 "세대"의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촛불세대로서의 청소년담론도 이와 같은 세대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삶이 결코 사회적·역사적 맥락과 분리해서는 제대로 파악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나. 부모와 자녀세대간 차이: 가치관, 행동양식을 중심으로

같은 사회 그리고 동일한 공동체 및 가족 내에서 살아가는 사회구성원·가족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간의 생각/가치관의 차이는 무엇으로부터 연유되는가? 가치관의 차이를 만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에 따른 세대차이라고 할 수 있다. 세대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언제 태어났는가 하는 출생시점이 사회·역사적 구조에서의 위치의 차이를 만들고, 이러한 위치의 차이가 잠재적 경험의 폭을 결정하며, 이러한 경험의 차이가 사고, 감정, 행동양식의 차이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2] 한경혜(2004)는 이 논문에서 생애과정 접근법의 시간 개념 중 하나로 사용하는 사회적 시간(social time) 대신에 가족의 시간(family time)을 중요 개념으로 다룬다.

(Pilcher, 1994). 따라서, 연령/세대의 차이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성별 변수 이외에 사회가 겪는 변화와 양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를 중요한 사회학적 범주로 다룰 필요가 있다(전상진, 2004).

박재홍(2003)은 연령/세대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출생 시점에 따른 역사적, 문화적 경험의 차이"와 "나이에 따른 역할 배정"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출생시점에 따른 역사적, 문화적 경험의 차이"란,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사람들이 유사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경험이나 사회화 경험을 갖게 되며, 이러한 공유된 경험은 비슷한 의식, 태도,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박재홍, 2003).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같은 세대(cohort)의 사람들이 유사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형성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라고 한다(Cobb, 2000). 이처럼, 코호트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은 사회성원간 가치관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같은 사회내, 그리고 같은 가족내에서 함께 생활한다하더라도, 그들의 가치관은 출생시점 및 코호트에 따른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경험의 폭이 달라지므로 편차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세대차이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성별이 동일한 경우에도, 즉 성별 동일성을 넘어서 작용한다. 이것은 "나이에 따른 역할배정"에 의해 나이든 남성/여성(아버지/어머니)들의 경우에는 젊은 남성/여성들(아들/딸)과 가족내 역할체계에서 다른 위치를 점하게 되므로, 성별과는 무관하게 세대간에 서로 편차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사회, 가족 내에서, 더 나아가 같은 성별을 가진 가족구성원이라 하더라고 세대에 따른 경험과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수용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의해서 세대간 생각 및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세대간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한편, 이러한 가정하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족의식 및 가정생활 실태를 그들의 부모들의 생각과 비교하고자 한다. 가족의 개념과 범위, 가족의식과 가치관, 가족기능·가족관계, 가족활동·가사활동 등에 있어서 부모와 자

녀 사이에 가치관 및 시각의 차이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세대차이가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부모세대가 학습하고 체화해 왔던 사회환경과 청소년 자녀세대가 학습하고 체화하고 있는 사회환경이 차이가 있는 바, 이러한 사회환경의 차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환경의 변화를 특히 가족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30년간 우리사회에서 나타난 가족·인구학적 변화를 통해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사회환경의 차이를 분석한다면, 왜 그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갖게 되었고, 또한 갈등하고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가족의 변화와 가족의식

여기서는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가족 인구학적 변화가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속한 가족의 성원들과 청소년들의 가족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한국사회는 전근대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변화하면서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어 전통사회의 기본적 가족구조인 확대가족제도가 파괴되고,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핵가족의 비율도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여성한국사회연구소, 2004),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혼가족, 편부모가족, 재혼가족이 "가계의 부양자로서의 아버지와 자녀양육과 가사담당자로서의 어머니로 구성된 핵가족"을 대체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구학적 가족구성의 급격한 변화는 가족구성원들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일컬어지는 청소년기에는 그 영향력이 보다 직접적이며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가족·인구학적 변화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급변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가. 한국 가족의 역사

산업화시대 이전 사회의 가족

Cherlin이 그의 저작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산업화되기 이전 사회에서도 확대가족보다는 핵가족이 지배적인 가족형태였다. 이는 서구사회에서 뿐 아니라 우리 한국 전근대사회에서도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조선시대의 호적을 통해서 가구 및 가족형태를 연구한 최재석(1982)은 조선조에 이미 소수의 가족과 직계가족, 즉 2세대 핵가족이 지배적이었음을 들어 산업화가 핵가족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여성한국사회연구소, 2001).

조선시대의 유교 지배 이데올로기에서는 확대가족을 이상으로 삼았고, 사대부 가족들은 이 이상을 준거로 삼아 실제생활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지

배계층인 농민, 상민, 천민은 비록 지배계층의 이데올로기를 인식하여 확대가족을 이상으로 삼기는 하였으나, 실제 생활에 이를 실천하기에는 물적·경제적 기반이 부족하였다. 즉, 확대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다수 가족성원을 부양할 경제적 토대가 갖추어져 있어야 했는데, 피지배계층의 삶의 여건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사회 가족의 조직원리는 비록 확대가족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으나 피지배계층의 삶의 방식은 핵가족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전통사회에서는 핵가족이 보편적 가족형태였던 것이다. 또한 가족구성원 수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핵가족의 형태를 띄는 것이 분명하지만, 피지배층도 지배층의 지배원리에 입각하여 여전히 확대가족을 이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전통사회에서의 핵가족은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등장한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과는 그 이상과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산업화시대 이후 도래한 가족의 형태

한국사회에서는 196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인구억제가 국가의 주요현안으로 부상하였는데, 이와 더불어 실시된 가족계획정책으로 인해 가구원수는 꾸준히 감소되었다. 가구원 수의 감소는 특히 1970년대 이후에 급격히 진행되어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동시에 정부 주도의 출산억제 정책이 효과를 보는 시기가 맞물려져 한국가족의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I-1> 가족유형별 평균가구원수

(단위: 명)

	혈연가구 평균 가구원수	핵가족			직계가족		기타가족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편부(모)와 미혼자녀	부부와 양(편)친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1970	5.2	2.1	5.3	3.6	5.1	7.3	5.1
1975	5.2	2.2	5.2	3.7	3.4	6.8	6.1
1980	4.8	2.1	4.8	3.5	3.4	6.3	5.6
1985	4.3	2.1	4.4	3.2	3.4	5.8	5.1
1990	4.0	2.0	4.1	3.0	3.3	5.4	4.6
1995	3.7	2.0	3.9	2.8	3.2	5.2	4.2
2000	3.5	2.0	3.8	2.6	3.2	5.1	3.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또한 90년대 이후에는 출산율의 저하가 핵가족화된 한국가족의 평균가구원 수를 더욱 감소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부부의 총출산 자녀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에서, 1987년 인구대체율 2.0을 밑도는 1.6으로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1991년 1.74, 1995년 1.65, 2000년 1.47, 그리고 2005년 현재 1.08이다.

<표 I-2> 합계 출산율 변화추이(1960-2006년)

(단위: 명)

	1960	1974	1984	1987	1991	1995	2000	2005
합계 출산율	6.0	3.6	2.1	1.6	1.74	1.65	1.47	1.08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출산율의 저하로 인하여 자녀수가 감소함에 따라 자녀 양육기간이 단축되었으며, 기혼여성의 취업률도 증가하게 되었다. 출산율의 저하로 인하여 기존의 한국가존의 모습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한 예로 자녀 양육기간이 짧아진 결과 자녀들이 출가하거나 독립하여 집을 떠나게 된 이후 부부끼리

만 보내야 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전에는 부부란 가문을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한 기능적 존재로만 인식되어졌으며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기회가 마련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녀의 출가 이후 부부끼리 보내야 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제외한 대면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압력하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또한 자녀수가 감소하고 자녀양육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표 I-3>)은 1960년 36.3%, 1970년 39.3%, 1980년 42.8%, 1990년 47.0%, 2009년 49.2%로 점진적으로 신장되었다.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비교해 볼 때 1960년에는 40%가까운 차이가 있었으나 2009년에는 약 24%로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 또한 1960년에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대부분이 미혼이었으나 현재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는 것도 특이할만한 일이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서 기존의 성역할 분담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성역할 사회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3>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남성	여성
1960	76.4	36.3
1970	77.9	39.3
1980	76.4	42.8
1990	74.0	47.0
2000	74.4	48.8
2009	73.1	49.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2000년 이전은 실업자의 구직기간이 1주 기준, 2000년 이후는 4주 기준으로 변경

또한 기혼여성이 예전과는 달리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경제력을 갖추게 되자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 삶을 찾기 위해 이혼을 결정하는 일도 증가하여 한국가족의 모습을 매우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한국가족은 확대가족의 이상에 입각한 전통적 가족의 모습이 도시화·산업화 추세에 따라 핵가족화되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및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의 모습 - 노인부부 가족, 무자녀 가족, 이혼가정, 재혼가족 등 - 으로 다양화해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나. 한국의 가족구조: 다양한 가족의 유형 및 특성

현재의 한국가족은 "정상가족"(the family)의 논리로는 더 이상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정상가족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비정상가족"으로 상정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상황하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그들의 모습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편부모가정, 재혼가정에서 성장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정책과 프로그램으로는 이들의 성장과정, 사회화과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편부모 가족

편부모 가족은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이다. 과거에는 사별로 인하 편부모 가정이 대다수였으나 최근에는 이혼으로 인한 편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은 1980년 0.6이었으나 1990년 1.0, 2000년 2.5, 2005년 2.6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혼으로 인한 편부모 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4> 연도별 총 이혼건수 및 이혼율

(단위: 건, %)

	총이혼건수	조이혼율[1]
1980	23,662	0.6
1990	45,694	1.1
2000	119,982	2.5
2005	128,468	2.6

1) 인구 천명당 이혼건수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표 I-5> 혼인상태별 한부모 가구수와 비율

(단위: 가구, %)

	유배우[1]	사별	이혼	미혼	계
1990	226,731	497,867	78,861	85,394	888,853
	(25.5)	(56.0)	(8.9)	(9.6)	(100.0)
1995	216,067	526,320	123,969	93,616	959,972
	(22.5)	(54.8)	(12.9)	(9.8)	(100.0)
2000	252,917	502,284	245,987	122,666	1,123,854
	(22.5)	(44.7)	(21.9)	(10.9)	(100.0)

1) 한부모 가구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경우는 배우자가 가출, 유기, 장기복역 등의 상태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편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양친부모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인지·사회성 발달지표가 뒤떨어진다(구인회, 2003; 이정환, 2003). 편부모 가정은 양친부모 가정에 비해 자녀의 학습지원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데, 이는 가족구조의 해체에 의한 소득의 하락에서 연유된 것이다. 편부모 가정의 물질적 자원의 부족은 자녀의 학업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구인회, 2003). 가족해체는 소득수준의 감소를 야기할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 사이의 관계 특히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여성한국사회연구소, 2005). 이혼하여 별개의 가구에 사는 부 또는 모는 자녀와의 접촉이 줄어들게 되어 부모-자녀관계 사이에 형성되는 유대감이 감소한다. 또한 자녀양육을 맡은 부 또는

모는 가계를 이끄는 동시에 자녀를 키워야 하므로 부모 두 사람이 나누어서 해야 하는 일을 혼자서 함으로써 과중한 역할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된다. 편부 또는 편모는 역할과다로 인하여 자녀의 학습발달을 감독하고 통제하며 대화를 나누는 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부족하게 되며, 그 결과 자녀들의 인지·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역할과중으로 인해 발생되는 높은 스트레스, 불안감, 외로움도 긍정적인 양육방식의 개발을 저해하게 된다(여성한국사회연구소, 2005). 편부모 가족은 가족해체로 인한 기존의 친구, 친·인척 관계의 변화와 소멸을 겪게 되고, 심한 경우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같은 가정 밖의 연결망 손실도 자녀의 교육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구인회, 2003).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편부모 가정은 양친부모 가정에 비하여 경제적, 문화적 자원이 부족하므로 청소년을 비롯한 자녀의 사회화에 부적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편부모 가정 청소년의 긍정적인 인지, 심리, 인성 발달을 위하여 정책 입안자들이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편부모 가정이 증가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혼율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과거 편부모 가정은 주로 부모 한 편의 사망으로 연유되었으나 현재 편부모 가정의 대부분은 이혼에 의해 형성된다. <표 Ⅰ-6>에 따르면 1990년의 총 이혼건수는 45,694건이었던 반면, 2000년에는 119,982건, 2005년에는 128,46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천명당 이혼율도 1990년 1.1명, 2000년 2.5명, 2003년 3.5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단순히 이혼건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절대적 이혼율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혼부부의 60% 이상이 15년 미만에서 이혼(2004년: 67.0 %, 2005년: 66.5%)을 감행하였으므로, 대다수 이혼부부의 자녀들이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이혼을 18세 미만에 경험한 자녀들은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학교 부적응 문제나 비행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혼율

의 증가는 편부모 가정이 늘어나는 것을 뜻하는데, 특히 편모가정은 일부 소수를 제외하면 직업의 안정성과 안정된 소득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편모가정에서 나타나는 자녀들의 낮은 상급학교 취업률, 상대적으로 높은 비행률 등의 문제 또한 빈곤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

<표 I-6> 주요 이혼력 지표 (1990-2005)

	이혼건수 (건)	이혼율 (천명당)	동거기간(%)				
			0~4년	5~9년	10~14년	15~19년	20년+
1990	45,694	1.1	39.5	29.1	18.2	7.9	5.3
1995	68,279	1.5	32.6	25.1	20.6	13.1	8.2
2000	119,982	2.5	29.3	22.3	18.7	15.3	14.3
2003	167,096	3.5	24.6	23.1	19.6	14.9	17.8
2004	139,365	2.9	25.2	22.9	18.9	14.7	18.3
2005	128,468	2.6	25.9	22.2	18.4	14.8	18.7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재혼가정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경제력 확보, 가부장적 사고의 약화, 또한 개인의 행복추구 가치관의 확산 등의 이유로 이혼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혼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재혼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자녀의 적응문제이다. 지금까지는 자녀의 양육권을 대부분 아버지가 갖게 되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여성의 재혼 증가의 추세를 볼 때 앞으로 서구에서와 같이 양육권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에 비해 재혼가정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 자체가 한국에서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형편이므로, 이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혼가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첫째, 지금까지 살던 배경과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가족성원들

이 서로에게 갖는 기대와 행동 양식 사이에 큰 차이가 난다는 점, 둘째, 이혼 후의 재혼한 가족의 경우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생부모와의 관계가 지속된다는 점, 셋째, 양친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효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이 존재하지만, 재혼가정에서 부모-자녀관계를 규정할만한 기존의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족구성원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이다(여성한국사회연구소, 2001).

다. 인구학적 변화와 청소년

한편, 최근 일어나고 있는 가족인구학적 변화 중 청소년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요인들은 자녀수의 감소, 초혼연령과 평균수명의 증가이다. 먼저 자녀수와 관련하여 <표 Ⅰ-7>을 보면, 지난 30년간 그 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4.53명이었으나, 1980년 2.83명, 1990년 1.19명, 2000년 1.47명, 그리고 2005년 현재 자녀수는 1970년 대비 25% 수준으로 격감하였다.

<표 I-7> 주요 출산력지표

	출생아수	조출생률 (천명당)	합계출산율[1)]	출생성비[2)]
1970	1,006,645	31.2	4.53	109.5
1980	865,350	22.7	2.83	105.3
1990	658,552	15.4	1.59	116.5
2000	636,780	13.4	1.47	110.2
2005	438,062	9.0	1.08	107.7

1) 합계출산율 : 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갖게 될 평균 출생아수.
2) 출생성비 : 여아 100명당 남아수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자녀수가 감소하면서 부모의 관심과 보호가 지나쳐 자녀들의 심약성, 의존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다만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국한된 것

이 아니라 청년기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부모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는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자녀들의 의존성 문제를 초혼연령이 늦어지는 만혼현상과도 관련지어 분석해 보자. 1990년 남성 27.8세, 여성 24.8세이던 초혼연령은 2005년 남성 30.9세, 여성 27.7세로 지난 15년간 3세 이상 증가하였다. 결혼시기가 늦춰짐으로 인해 부모와 동거하며 부모에게 의존하는 시기를 연장하는 청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전 세대에 비하여 독립성의 수준이 낮은 청년들의 등장은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부모의 과보호적인 양육방식, 만혼의 증가 등 다양한 인구학적 요인들이 복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자녀수의 감소가 야기하는 보다 심각한 문제는 평균수명의 증가와 관련해서 발생한다. 지난 30년간 의학과 생활여건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높아졌는데,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현재의 청소년이 미래에 부양해야 할 노인수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출산력의 감소로 인하여 잠재적 부양자인 청소년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미래에는 노부모 부양의 부담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지금까지 노인복지를 가정의 책임으로 미루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였으나 최근의 인구학적 변화를 볼 때 이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에서 가족 인구학적 변화가 청소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가족인구학적 요인은 보통 사회구조적 변수로서 가정이나 가족성원의 삶과 관련성이 없다고 인식되어 왔지만, 사실은 개인의 생활세계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인간발달을 분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겠다.

3. 선행연구 검토

가. 가족가치관

한 사회의 모습을 담지하고 있는 가치관은 정체될 수 없고, 계속해서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변화의 강도와 속도는 그 사회의 성원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 연령, 교육 수준 등의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은기수, 2004). 그러므로 젊은 세대, 그중에서도 여성들의 가치관은 매우 빠른 변화를 보이는데 이것은 그들이 사회에서 비기득권적인 위치를 점함으로써 사회변화에 따른 희생이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그러나 젊은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성원들의 가족가치관이 보수적으로 유지되어 변화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그러한 사회에서는 사회성원들 사이(예를 들어, 젊은 세대 대 나이든 세대 / 남성 대 여성)에 가치관에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변화하는 가족관련 문제/사회관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기 힘들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가족에 관련된 지원 및 문제에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등 함께 책임진다는 의식이 희박하게 되어 변화하는 가족을 위한 지원이나 정책이 상당히 축소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대간, 사회성원간 의견의 차이를 형성하는 가족가치관이란 무엇인가? 가족가치관이란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유지되는가 등 가족에 관련된 여러 가치관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출산, 양육, 결혼, 이혼, 그리고 성에 관한 가치나 태도를 총칭한다(김규원, 1995; 은기수, 이윤석, 2005). 이러한 가족가치관은 사회성원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그 모습을 달리해 간다. 따라서 절대적이며 불변적인 가족 가치관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가족가치관의 가변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

도,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 전체적으로 통용되고 기준으로서 간주되는 가족가치관은 있기 마련이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족가치관은 때로는 그 사회의 보이지 않는 규범으로 여겨지게 되며, 개개인의 가치관을 통제, 규제한다.

은기수, 이윤석(2005)에 따르면, 일정 시점의 일정사회에서 일단 만들어진 가족가치나 태도는 한 개인의 가치나 태도를 넘어서며, 따라서 규범에 일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보상을 주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회성원들의 가족에 관한 행위를 규율하게 된다(은기수, 이윤석, 2005, p.208).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가족가치관과 개개인의 가치관은 일치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차이가 날 수도 있으며, 따라서 같은 사회의 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면서 이 사회에서 공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가족가치관이 차이가 나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은 가족가치관의 변화의 속도가 개인과 사회적 차원에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번 확립된 규범이나 가족제도가 사회적 차원에서 변화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가치나 태도가 훨씬 빨리 변화하게 되므로, 변화된 (따라서 좀 더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진 개인은 사회적인 가족규범을 따르지 못할 경우 이와 갈등하는 과정에서 제재나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각 사회 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족가치관이란 무엇일까?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해 김규원(1995)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축, 즉 "가족중심주의(collectivism) 대 개인중심주의(individualism)"라는 축과, "가부장제 대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중심주의 대 개인중심주의 축이란 가족집단의 전체적인 발전이 개인 발전에 선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의이다. 이러한 논의에 대한 요약은 다음의 <표 Ⅰ-8>과 같다.

<표 I-8>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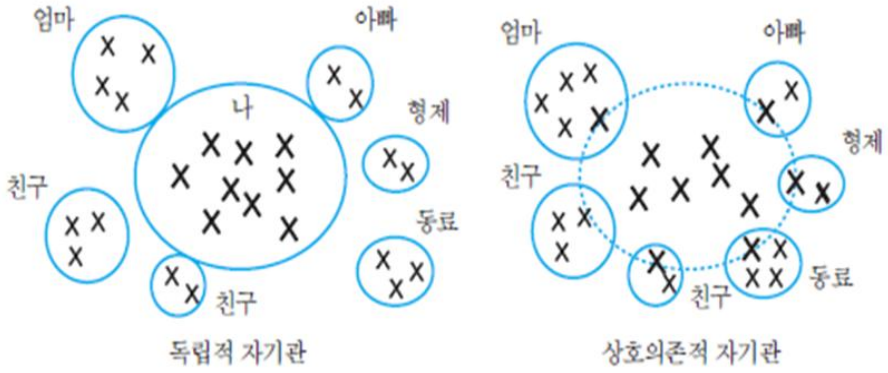
	개인주의	집단주의
생활의 단위	개인	집단
의식 단위	“I" 의식	“We"의식
이상적 사회상	자율/자유/권리 자율적 개인의 조합	자제/조화/의무/역할 공동체적 사회
지향점	쾌락추구	욕망/통제/수련
평가의 준거	내재	외재

자료: Triandis(1995)

이러한 구분은 Triandis(1995)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에 따르면 가족중심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개인보다는 가족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개인간의 관계는 가족집단 내의 의무, 책임, 규범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반대로 개인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은 자신이 속한 가족/지역/집단과는 개별적으로 자신이 목적한 바를 성취할 것이 요구되며, 집단의 이익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목적에 우선될 수 없다고 본다. 한편, 이러한 사회간 문화차이가 개인의 인성과 심리발달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한규석, 2010).

[그림 I-1]에서 볼 수 있듯이 나란 누구인가 하는 자기관의 형성도 개인적/심리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관련한 사람들,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한 문화와의 상호관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개인주의적 문화가 보다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독립적 자기관이 형성되는데, 이는 자기와 타인 사이에(비록 가족이라 하더라도) 경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집단주의적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형성되는데, 이는 자기와 타인과의 경계가 분명치 않으며,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복리가 우선시되며 자기 개인의 집단의 한 부분으로 정체감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인성은 사회적/문화적 요소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그림 I-1] 문화의 차이와 자아정체성/자기관의 형성



자료: 한규석(2010)에서 발췌

한편, 가족가치의 또 다른 축인 "가부장제 대 양성평등"은 주지하다시피, 의사결정권한과 권력이 특정인(남성)에게 집중되어 그 권위를 중시하는 가부장제 가치와 여성을 포함한 가족성원 모두가 자신의 의사와 권한을 자유롭게 타진할 수 있는가를 중시하는 남녀평등 가치의 대립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가치관은 어떠한 것인가? 이에 대해 몇몇 가족학자들은 우리 사회의 가족가치관은 원래 가족중심주의와 가부장제를 기본축으로 하였으나(이광규, 1992; 이효재, 1991; 최재석, 2009), 서구화와 산업화, 도시화의 결과로 인해 개인중심주의와 양성평등의식이 확산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김규원, 1995).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조사한 Inglehart(1997)는 한 사회의 가치관은 경제발전에 따라 급속도로 변화, 이행해간다고 하였다. 이에, 그의 명제가 한국사회에서도 설명력이 있는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 어수영(1997)은 여성들의 삶이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적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개인주의적이며 남녀평등적으로 변화해 간다고 논의하면서 위의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변화해 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신수진(1998)은 젊은 층에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가족주의 전통이 강하며, 자녀출산에 대한 문화적 압력도 강한 편이라고 밝힘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사회구성원 전체의 변화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기수(2004)는 한국사회에서 가치관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정도는 성, 연령, 교육수준 등의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가치관의 변화가 사회 전체적으로 동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이것이 다양한 사회 전반의 가치관 중에서도 특히 가족이라는 영역에서의 변화가 느리며, 전통적인 가치관의 영향이 잔재하는 이유라고 말한다(은기수, 2004).

한편,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수용도는 세대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인다. 부모세대 또는 기성세대에 비해 자녀세대/젊은 세대들은 좀 더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보다 열린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부모/자녀 세대간 가족가치관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되며, 이로 인해 부모 자녀간 가족의식, 생활패턴, 의견들이 차별성을 보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나.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인간의 최초의 사회화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가정으로 의사소통이 최초로 행해지는 곳이라 할 수 있다. 한 개인이 사회와 밀접한 상호의존적 관계임을 볼 때 가정에서의 경험은 인격형성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녀들이 성장하는 시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이므로,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부모는 자녀들이 어린 시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를 때까지 주요한 의사소통자로 기능하게 된다. Reuter & Conger(1995)는 청소년의 인성발달은 부모와 자녀관계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부모와 자녀가 원만한 관계를 가질 때 자녀는 건강한 발달을 할 수 있는 바탕을 이루며, 이러한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영역이라고 하였다.

의사소통이란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수용자)의 행동을 변용시키기 위하여 자극(언어적 자극)을 보내는 과정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가족 내에서 행해지는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Galvin & Brommel(1982)은 가족 의사소통 측면에서 의사소통을 "상징적 거래과정", 즉 "의미들을 창조하고 공유하는 과정"으로 보고 만일 의미를 상호간에 공유하지 못할 때는 의사소통이 매우 힘들게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훈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증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서로 공통된 의미를 조성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특히 가정에서의 의사소통은 가족간의 감정을 정화시켜주고 서로의 정보교환과 이해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발달해가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인성발달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상 아동에서 성인으로 가는 과도기로서 급격한 신체적,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는 치열한 경쟁하에서 학업적 성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청소년들은 뜻하지 않게 많은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 달성해야 하는 여러가지 발달과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아개념, 특히 자아존중감의 발달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 중요성 등 자신의 가치성을 평가, 판단하는 것으로 행동과 적응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인생의 전 단계에서 생

활의 행복과 만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1차적인 사회구조 안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부모의 태도가 청소년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 중에서 Coopersmith(1967)는 부모가 수용적일 때 청소년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적합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하며, Thomas(1972)는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방임적, 비판적인 부모의 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경연(1987)은 부모의 애정적 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준다고 보고하였고, 신인숙(1988)은 부모의 수용적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과 자기 긍정적 태도에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한국가족에서도 부모들의 태도와 양육방식이 청소년 자아의 인성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가족 내 청소년 자녀의 인성발달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성차에 따라 다른 수준의 심리발달 지표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인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 부모들의 의식 저변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을 반영한다. 즉, 청소년 자녀는 부모의 이러한 의식을 은연중에 지각하고 있으므로, 여학생의 경우는 자신감이 위축되어 상대적으로 남학생보다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이나 청소년 지도자들은 남녀 차별의식이 사회화되는 과정에 대한 개입을 하여 여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양육방식: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변화와 자녀양육/자녀사회화

전통사회에서 자녀 양육과 교육은 사대부 계층에서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서민층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서민들에게는 생계유지와 의식주 해결이 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는 달리 사대부 계층에서는 자녀교육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유교적 규범에 입각하여 자녀(특히 아들)를 통해 가통을 이어가고 가문을 번성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아들을 잘 키우는 것은 자녀 개인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자녀를 통해 가계를 잇고 위로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가업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아들을 통한 가계의 전승이라는 부계 중심의 가치관은 여성에 대한 양육, 교육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성은 결혼 이후에는 "출가외인"(出嫁外人)이 되므로 부모는 딸들의 교육에 투자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유교규범에 의한 아동관이라는 것은 자손을 개인 당사자로 보기 보다는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만 간주하여, 가계 전승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김미숙 외, 1995). 그러므로 자녀는 독립된 인간이라기 보다는 가족의 결정을 따라야 할 존재, 부모와 조상을 위해서 기능하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유교정신에 입각한 가족 집단주의적 사고는 산업사회의 도래로 영향을 받아 변화하게 된다.

산업화로 인하여 일과 가정이 분리됨에 따라 전통적인 확대가족은 점차 사라지고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부모와 자녀간의 직접적·대면적 관계가 이전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와 갖는 관계의 성격과 질에 따라 자녀의 가치관, 성격, 성취수준이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부모가 자녀와 갖는 관계의 하나인 부모의 훈육방법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었다. 조정문, 장상희(2004)에 의하면 부모의 훈육방법은 자녀의 인성발달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훈육방법을 훈육기법과 자녀통제 정도라는 두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는데, 훈육기법이란 부모가 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통제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며, 자녀통제는 부모가 자녀 행동의 어느 부분까지 간섭 혹은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의 문제라고 하였다. 서구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통제가 자녀의 인지, 심리 발달에 부적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Baumrind(1991)에 따르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엄격하게 훈육시킬 경우 자녀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여 학업성취를 저하시킨다고 하였는데, 한국가족 내에서는 이와는 달리 엄격한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권위적인 부모들의

자녀들이 오히려 높은 학업성취와 안정된 심신발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미 아시아 이민 가정을 분석한 Chao(1994)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Chao(1994)는 아시아 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권위적이고 엄격한 부모를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가정문화에서 자라난 아시아 청소년 자녀들은 부모들의 엄격한 양육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자신감을 갖고 행동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에 모두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아시아의 부모가 행사하는 엄격한 훈육방식은 서구 연구자들이 보는 것처럼 자녀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직적인 통제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각 사회/민족 집단은 자신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생활환경에 따라 나름대로의 사회화 방식을 발달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한국가족에서 부모의 엄격한 훈육방법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검증할 수 있었다. 백인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Baumrind(1991)의 가설은 백인 이외 타민족 가정·문화에 항상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양육방식과 청소년기 적응과의 관련성은 민족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사회화

전통사회에서는 일터와 가정의 분리가 모호하였고, 또한 확대가족인 경우가 많아 어머니 이외에 기타 가족구성원들이 자녀들을 대리 양육하고 사회화시켰으므로 기혼여성이 생산활동에 종사하더라도 자녀사회화에 어려움이 없었다(조정문, 장상희, 2001).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도시이주민이 증가하고, 가족의 분리가 진행되어 전통적인 확대가족이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확대가족의 와해로 어머니 이외 기타 가족구성원에 의한 대리양육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그 대신 핵가족 내에서 공·사 영역의 분리가 뚜렷해짐에 따라 어머니=자녀양육자의 공식이 성립되었다. 어머니는 취업을 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는 일에 전념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90년대를 거쳐 이러한 인식이 점차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여성의,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표 Ⅰ-9>를 보면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후에도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1995년에는 20~24세 연령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66.1%로 가장 높았다가 25~34세 연령대에서 급격히 저하된 47%대의 참가율을 나타내며, 그 이후에 참가율이 서서히 올라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08년에는 20~24세 연령대의 참가율이 54.6%, 25~29세 참가율이 69.3%로서 1995년과 비교하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30~34세에 53.3%로 낮아져 M자 커브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M자 커브의 하락폭도 감소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6 참조). 이는 결혼시기 및 출산연령의 지연 및 다변화 경향과 더불어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9>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1995	2000	2005	2008
계	48.4	48.8	50.1	50.0
15-19세	14.5	12.6	10.3	7.5
20-24세	66.1	61.2	62.6	54.6
25-29세	47.9	55.9	66.1	69.3
30-34세	47.6	48.8	50.2	53.3
35-39세	59.2	59.3	59.0	58.5
40-44세	65.7	63.8	65.6	65.9
45-49세	60.6	64.9	63.1	65.8
50-54세	58.8	55.3	58.3	60.3
55-59세	54.1	51.3	49.1	52.5
60세 이상	28.7	30.2	28.1	27.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이전에는 자녀양육 담당자로서 인식되었던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 모의 취업이 자녀사회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 이후 활발해졌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일반적인 생각과 편견과는 달리, 실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어머니의 취업이 반드시 자녀사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그 영향은 자녀의 연령, 어머니의 취업형태, 가정분위기 등 기타 요인들에 의해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경희(1974)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경우 아동의 활동성, 안정성 그리고 사회성 등과 같은 인성은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정태인, 유홍준(2002)도 어머니의 취업여부나 형태 등은 자녀의 인성(사회성, 자아존중감, 목표지향성, 자율성) 및 학업발달, 교우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영화(1991)도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 어머니의 가족과 일에 대한 만족수준, 대리양육자의 존재와 질 등에 좀더 주목하여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기타 변수들에 의해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정태인, 유홍준(2002)도 그들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 유무보다는 이것이 가정분위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자녀들에게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구성원들의 상호이해와 협력에 의해 상황을 개선시킬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자녀양육/사회화에 있어서의 아버지의 역할

최근까지 한국가족 내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도구적, 수단적 역할을 담당하고 경제적 담당자로서 생활비를 조달하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사회화에 감정적인 유대를 맺는 어머니의 표현적 역할과는 다른 차원에서 개입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아

버지의 역할이 자녀발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종래까지의 도구적 기능만을 담당하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한 시점에 다다르게 되었다.

최근까지 결혼한 남자는 가족부양의 책임을 지고 여자는 자녀를 낳아 길러야 한다는 것이 일반화된 생각이었으나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가족구조가 재개편됨에 따라 기존의 부모역할에 대한 의문이 생겨났다. 이와 함께 양성적 아버지, 자녀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아버지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기존의 권위적인 부의 모습에 변화를 꾀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한국가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송유진(2005)은 아버지들과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최근 10년간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아버지상이 변화했으며, 젊은 세대의 경우 아버지들의 자녀양육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다. 매스컴을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과거의 가부장적인 아버지상에서 보다 친근하고 다정한 아버지, 자녀와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아버지상이 이상적인 아버지상으로 기대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물론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가족 내에서의 직접적인 행위로 연결되기에는 앞으로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와 가치관 변화는 궁극적으로 실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 행동(역할수행)은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이나 인성, 근원가족, 주변인들의 기대 등에 의해 달라진다고 한다. 아버지의 교육수준,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양육 참여가 높고, 보다 양성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혀졌다(송순, 송희옥, 2005). 청소년과 아버지 사이의 관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 직업, 의사소통 시간, 의사소통의 욕구 등이 부와의 의사소통 유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및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유형은 자기 효능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자기 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송순, 송희옥, 2005).

흥미로운 것은 아버지와 청소년은 상호간의 긍정적 의사소통은 많으나 부정적 의사소통은 하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이것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많고, 어머니가 주로 자녀의 훈육문제를 담당하므로 부정적 의사소통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 한국가족에서 나타났던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엄부자모"(嚴父慈母)의 상이 현대에는 변화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아버지 역할모델을 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함인희, 1997).

Ⅱ.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대상과 방법
2. 조사의 내용과 도구
3. 표본의 특성

Ⅱ.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대상과 방법

가. 조사대상

본 연구는 가족의식 및 가정생활의 측면에서 청소년과 성인(학부모)세대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의 조사대상은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두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조사대상별 모집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먼저 “청소년”은 법률(청소년기본법)상으로는 9~24세의 연령집단으로 정의되지만, 일반적인 사회통념을 반영하여 조사대상을 중·고교생으로 한정하였다. 해당 학령기의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높은 취학률[3]을 고려할 때 극히 소수에 불과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조사의 청소년 모집단은 조사시점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단,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 부설학교 등 특수학교 제외)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정의된다. “부모”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있는 모든 성인이 이에 해당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세대간의 비교를 위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중·고교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로 한정하였다.

나. 표집 및 조사방식

본 조사의 목표표본은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통합조사계획에 의거하여 청소년(중·고교생)과 학부모 각 5,802명으로 결정하였다. 청소년 표본의 배정은 교육통계연보(교육과학기술부, 2009)에 기초하여 제주도를 제외

[3]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 중학교 취학률은 93.2%, 고등학교 취학률은 90.0%에 달한다.

한 전국의 중·고교생(3,923,956명)을 지역별, 교급·학년별로 층화한 뒤(<표Ⅱ-1>), 그 비율에 따라 <표 Ⅱ-2>와 같이 목표표본을 배정하였다.

<표 Ⅱ-1> 모집단의 구성

(단위: 명)

	계	지역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중학교1	648,244	114,630	43,557	35,692	37,109	23,003	21,998	17,415	160,098	19,395	47,095	50,379	77,873
중학교2	668,278	119,529	45,339	37,601	38,768	23,937	22,716	18,125	163,239	19,796	47,831	51,730	79,667
중학교3	665,078	121,679	46,080	37,156	39,321	23,531	22,211	18,085	161,319	19,414	46,959	50,775	78,548
일반고1	502,171	102,059	34,775	29,230	30,152	17,882	18,134	14,019	119,392	11,185	33,962	33,917	57,464
일반고2	495,493	103,144	34,994	29,194	30,179	17,392	18,052	14,040	114,726	10,909	33,008	33,514	56,341
일반고3	471,953	101,400	33,915	28,120	28,414	16,196	17,015	13,516	107,096	10,382	30,713	31,295	53,891
전문고1	159,722	20,363	11,991	7,827	8,640	5,384	4,037	3,860	38,738	8,232	13,472	16,673	20,505
전문고2	158,017	20,377	12,459	7,977	8,530	5,161	3,792	3,600	38,917	8,152	12,667	16,225	20,160
전문고3	155,000	20,732	12,489	7,897	8,467	5,074	3,901	3,629	38,028	7,823	12,082	15,360	19,518
전 체	3,923,956	723,913	275,599	220,694	229,580	137,560	131,856	106,289	941,553	115,288	277,789	299,868	463,967

<표 Ⅱ-2> 모집단 층화비율에 의한 표본 배분

(단위: 명)

		계	지역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중학생	중학교1	959	170	64	53	55	34	33	26	237	29	70	74	115
	중학교2	988	177	67	56	57	35	34	27	241	29	71	76	118
	중학교3	983	180	68	55	58	35	33	27	239	29	69	75	116
고교생	일반고1	743	151	51	43	45	26	27	21	177	17	50	50	85
	일반고2	733	153	52	43	45	26	27	21	170	16	49	50	83
	일반고3	698	150	50	42	42	24	25	20	158	15	45	46	80
	전문고1	236	30	18	12	13	8	6	6	57	12	20	25	30
	전문고2	234	30	18	12	13	8	6	5	58	12	19	24	30
	전문고3	229	31	18	12	13	8	6	5	56	12	18	23	29
전 체		5,803	1,072	406	328	341	204	197	158	1,393	171	411	443	686

조사는 학생청소년의 특성상 학급을 일차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로 하였다.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5명임을 가정하여 목표학급수를 산정한 결과 표본 학급수는 218개로서, 추출된 학급의 전체 학생을 조사한다는 원칙하에 예상되는 최종 표본의 크기는 7,63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하에서 ±1.72%P)이었다. 구체적인 표집방식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국을 제주도를 제외한 12개(서울/인천/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경기/충청/전라/강원/경상)지역으로 층화

- 고교생은 지역x학교계열(일반고/전문고)의 24개 섹터로 층화

② 층화지역(섹터)별 학생 수 비례 목표표본수 할당

③ 할당된 표본수에 따른 조사대상 학교수 결정

- 한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한급씩 추출
- 학급당 전원조사 원칙이므로 층화지역별 학급당 평균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수 결정

④ 층화지역별로 할당된 학교 추출

- 학교별 학생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 적용(12개 지역별로 중학교 리스트 정렬 → 12개 지역별 중학교 학생수 누적 → 12개 지역별 중학교 전체 학교 학생수를 정해진 학교수로 나눠 추출간격 결정 → 난수를 발생시켜 starting point를 정한 후 추출간격에 해당되는 학교 추출)
- 단, 실사가 불가능한 도서지역 학교, 학급수가 2개 이하인 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미만인 학교는 제외

⑤ 추출된 학교에서 1개 학년 추출

- 학년 추출 순서는 첫번째는 1학년 → 두번째는 2학년 → 세번째는 3학년 → 네번째는 다시 1학년을 뽑는 방식으로 추출

⑥ 추출된 1개 학년의 학급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 무작위 추출

-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
- 추출된 학교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 리스트에서 추출된 학교의 아래, 위 학교 순으로 대체

조사는 전문조사업체에 위탁하여 2010년 6~7월의 두달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사전에 실사관련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직접 조사대상 학급을 방문하여 조사의 목적, 내용 응답요령 등을 설명한 뒤 청소년들이 직접 조사표에 응답내용을 작성하는 학급단위의 자계식(自計式)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학부모 조사는 조사대상 청소년에게 조사표를 전달하여 부모 중 1인의 응답을 받아오는 개별조사의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학부모 조사의 경우 부친의 늦은 귀가시간 등으로 표본이 모친에 편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학급별로 조사대상 부모(부친 또는 모친)를 지정하고 한부모 가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사결과의 통계분석은 SPSS(v. 1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카이스퀘어 검증, 상관관계 분석, 평균값 차이분석(T-test, ANOVA)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조사의 내용과 도구

가. 조사내용

조사의 내용은 크게 가족의 개념, 가족의식·가치관, 가족기능·가사활동, 가족관련 개인 심리·행동 특성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조사문항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의 개념에서는 가족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자기 주변의 친척과 친지 중에서 가족으로 간주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조사하였다.

가족의식·가치관에서는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가족의식을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을 강조하는 가부장의식, 남성과 여성의 역할구분을 강조하는 성역할관, 연로한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 일상생활에서의 부모에 대한 효의식,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제도적 가족관)의 다섯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가족기능·가족관계에서는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의 두가지 측면에서 가족의 기능적 특성을 측정하였고, 또한 청소년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평소에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가족활동·가사활동 영역에서는 평소에 부모님과 함께 하는 활동의 빈도를 유형별로 측정하였고, 일상적인 가사활동에서 얼마나 자주 부모님을 돕고 있는지(학부모조사에서는 배우자와의 가사활동 어느 정도 분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개인 심리·행동 특성에서는 권위주의 성향과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고 가족관련 변인과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비행빈도와 학교생활 적응도를 조사하고 가족관련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점을 조사하였다.

조사표는 부모의 양육태도, 비행 등과 같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

항을 제외하고는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동일한 조사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단, 가사활동 문항은 예외), 학부모의 경우 가정에서 개별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져 많은 문항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활동, 심리특성 등 일부 문항을 제외하였다.

<표 Ⅱ-3> 조사의 내용과 조사표 구성

조사영역	조사문항	조사표 구성	
		청소년	학부모
가족의 개념	가족의 의미	○	○
	가족의 범위	○	○
가족의식·가치관	가부장의식	○	○
	성역할관	○	○
	부모부양의식	○	○
	효의식	○	○
	제도적 가족관	○	○
가족기능·가족관계	가족기능	○	○
	부모의 양육태도	○	—
	부모-자녀 의사소통	○	—
가족활동·가사활동	가족활동	○	—
	가사활동(부모돕기)	○	—
	가사활동(역할분담)	—	○
개인 심리특성	권위주의 성향	○	○
	자아정체감	○	—
	자아존중감	○	—
개인 행동특성	비행(문제행동)	○	—
	학교생활 적응	○	—

나. 조사도구 : 배경변인

조사결과 분석에 활용된 배경변인은 인구학적 특성(demographic characteristics) 변인과 가족 특성 관련 변인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인구학적 특성 변인은 성별(남/녀)과 교급(재학중인 학교; 중학생/고교생), 지역(거주지역; 서울

/광역시/시군부)의 세가지이며, 가족 특성 변인은 계층(사회경제적 지위; 하/중/상), 가족 세대구성(3세대 가정/2세대 가정), 부모 결손 여부(양친가정/결손가정), 부모 취업유형(한부모 취업/맞벌이), 형제유무(외동/형제있음)의 5가지이다. 이중 가족특성 변인의 구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계층

계층(social stratification) 변인은 가족현상의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조사연구에서는 척도구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계층구분은 일반적으로 학력과 소득, 직업서열을 합산한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점수를 통하여 산출되는데, 청소년들이 자기 가정의 소득을 정확하게 응답하기 어렵고 한국사회에서 직업 위세를 서열화한 타당성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의 대체항목으로서 청소년들에게 가정의 경제수준을 7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게 하고, 6점 Likert척도로 측정한 부모의 학력수준과 합산하여 계층 변인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친, 모친의 최종학력 점수를 7단계로 등급화한 점수에 가정 경제수준 점수를 합산한 값을 계층 변인의 척도값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계층의 하위집단간 차이분석을 위해 변량의 분포도를 고려하여 계층위계상 하위 21.4%(1,393명)를 하층으로, 상위 18.3%(1,193명)를 상층으로, 나머지 60.3%(3,925명)를 중간층으로 구분하였다.

가족의 세대구성

가족구성원별 생존 여부 및 동거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를 토대로 가족의 세대구성 변인을 구성하였다. 친/외가의 조부모님(증조부모님 포함) 중 한 분 이상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3세대가족”[4], 그렇지 않고 부모님 또는 두 분 중 한 분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2세대가족”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4] 엄밀한 의미에서는 “3세대 이상 가족”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증조부님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3세대 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표본의 세대별 구성은 3세대가족이 18.0%, 2세대가족이 81.4%으로 나타났다. 양친이 모두 안 계신 경우(23명, 0.3%), 부모 없이 조부모님(또는 두 분 중 한 분)과 동거하는 조손가정(10명, 0.1%)은 소수에 불과하여 가족의 세대 구성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부모결손 여부

현재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지를 기준으로 양친이 모두 있는 "양친가정"과 그렇지 않은 "결손가정"으로 구분하였다. 청소년표본의 응답결과를 보면 양친이 모두 있는 경우가 대다수로서 96.2%에 달하는 반면, 결손가정은 3.8%에 머물렀다. 구체적으로 결손가정의 분포를 보면 편부가정이 1.0%(67명), 편모가정이 2.5%(171명), 양친이 모두 없는 가정이 0.3%(23명)로 조사되었다.

부모 취업유형

부모 취업유형은 부친/모친의 직업 유무를 기준으로 "한부모 취업 가정"과 "맞벌이 가정"으로 구분하였다. 부모의 직업 유무에 대한 청소년표본의 응답결과를 보면 양친 모두 직업이 있는 맞벌이 가정이 62.6%로 과반수를 넘었고, 부모 중 한 분만 직업이 있는 한부모 취업 가정이 34.3%였다. 한부모 취업 가정의 경우, 부친만 직업이 있는 경우가 29.7%로서 모친만 취업한 가정(1.7%)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한편 부모 모두 직업이 없는 가정은 극소수(1.4%, 93명)에 머물러 독립된 분석단위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 취업유형 변인 구성에서 제외하였다.

형제유무

형제관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토대로 형제순위의 분포를 산출한 결과, 형제가 없는 외동 청소년이 9.5%, 형제 중 가장 위인 "맏이"가 36.9%, "막내"가 38.8%, 손위형제와 동생이 있는 "중간"이 10.8%로 나타났다. 본 조사의 분석에서는 이중에서 형제유무를 기준으로 외동 청소년(9.5%)과 형제가 있는 청소년(90.5%)의 구분을 활용하기로 하다.

다. 조사도구: 종속변인

분석에서 종속변인으로 활용될 주요 변인들은 선행연구에서 널리 활용되어 온 척도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관련 연구의 조사문항/척도들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쳐 새롭게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인의 구성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의식/가치관

한국사회에서 가족의식/가치관은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지만, 조사연구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한 척도는 드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식/가치관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의 조사문항과 척도들에 대한 응답결과를 토대로 요인분석을 통해 새롭게 척도를 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검토대상이 된 선행연구의 조사문항은 김현옥(2002), 김정란, 김경신(2009), 남정숙(2007), 황상민, 양진영(2002), 신수진(1998)의 가족주의 척도, 김명자(2004)의 가족생활 가치의식 척도, 김혜영(2004)의 가족관련 가치관 척도, 조미숙, 오선주(1999)의 성역할관 척도, 송근자(2004), 남정숙(2007), 김정란, 김경신(2009)의 부양의식 척도 등이다. 이들 척도 항목에 대한 내용검토를 통해 1차적으로 38개의 항목을 선정하여 조사한 뒤 응답결과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요인분석(주인자법) 후 고유치의 변화량과 요인의 설명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청소년/학부모 표본 모두 5개의 요인구조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요인의 수를 5개로 지정하고 다시 요인분석(주인자법·사교회전)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과 학부모 표본에서 다른 요인으로 분류된 항목, 요인부하량이 낮은 항목(.40 미만), 하나 이상의 요인에 유사한 수준의 부하량을 나타낸 항목이 있어 이들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항목을 대상으로 최종 요인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 Ⅱ-4>와 같은 요인구조가 추출되었다. 청소년표본과 학부모표본이 모두 동일한 요인구조를 나타냈으며, 5가지의 요인이 각각 전체 변량의 58.99%(청소년표본)와 57.48%(학부모표본)을 설명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표 Ⅱ-4> 가족의식 척도의 요인분석: 사교회전 후 요인행렬표

조사항목	청소년					학부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Ⅴ
26	.91	.07	-.05	.06	-.12	.10	.82	-.06	.09	-.07
27	.86	-.07	.04	.06	-.01	-.11	.82	.03	.04	.07
25	.72	.02	.02	-.04	.06	.04	.67	.09	-.07	-.02
28	.66	-.03	.04	-.02	.20	-.08	.56	.26	-.01	.07
18	.01	.73	-.03	.05	-.03	.78	-.01	-.03	.01	-.05
17	.04	.72	-.04	.02	.02	.63	.03	.01	.01	.02
19	-.05	.61	-.01	-.03	.08	.57	-.10	.13	-.01	-.02
15	-.04	.51	.24	.04	-.03	.61	.02	-.05	.04	.16
03	.01	.49	.11	.01	-.03	.48	-.04	.02	.01	.04
04	.15	.46	-.07	-.07	.10	.45	.20	.08	-.07	-.05
10	.05	-.07	.81	.01	-.04	-.05	.08	-.03	.03	.79
09	.04	-.03	.77	-.03	-.01	-.04	.03	-.02	.01	.79
12	-.03	.05	.68	-.02	.03	.12	-.06	.03	.01	.65
14	-.03	.20	.43	.01	-.01	.30	-.08	.01	-.03	.36
35	-.10	-.06	.06	.74	.09	-.08	-.15	.11	.77	.05
34	-.05	-.04	-.01	.68	.18	.07	-.05	.13	.69	-.07
36	.13	-.05	-.01	.54	-.08	-.10	.06	.01	.50	.02
37	-.03	.14	-.05	.49	-.16	.14	.09	-.17	.53	-.09
22	-.01	.02	.03	.45	.01	-.05	-.04	.06	.39	.12
38	.15	.04	-.08	.41	-.08	.03	.21	-.16	.49	.01
32	.15	.02	-.03	-.01	.77	.02	-.03	.88	.03	-.06
33	.13	.02	-.01	.01	.72	.01	.02	.74	.03	.02
31	.32	.01	.02	-.07	.57	.04	.25	.56	-.06	.01
30	.21	.08	.01	.02	.54	.06	.11	.62	-.01	.01
요인간 상관 Ⅰ	-	.49	-.07	-.01	.63	-	.53	.13	.22	.62
Ⅱ		-	.38	-.13	.53		-	.43	.18	.51
Ⅲ			-	.03	.16			-	-.08	.31
Ⅳ				-	-.03				-	.08

* 조사항목의 내용은 <표 Ⅱ-5> 참조

<표 Ⅱ-5> 가족의식 척도의 항목구성 및 척도신뢰도

	문항	Cronbach' α	
		청소년	학부모
성역할관	26 남자는 밖에서 일해야 하므로 가사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 27 가족이 할 일을 나눌 때 남자와 여자의 일은 달라야 한다 25 직장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8 가정 내에서 남편은 생계를, 아내는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87	.85
효의식	18 자식은 성인이 된 후에도 매사를 부모와 의논하여 실행해야 한다 17 부모가 시키는 일이 다소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그대로 따라야 한다 19 자녀는 부모의 생각이나 행동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15 부모에 대한 효도가 부부간의 사랑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03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자신보다 가족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04 자식을 낳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를 잇기 위해서이다	.78	.78
부모부양의식	10 노부모의 용돈과 생활비는 자녀가 부담해야 된다 09 자식이 노부모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2 경제적으로 빈곤하더라도 부모는 잘 봉양해야 한다 14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하기 어렵다	.77	.77
제도적 가족관	35 여자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 34 여자가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다면 아이를 낳지 않을 수도 있다 36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하면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낫다 37 동성간(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간의 사랑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22 자녀가 없더라도 부부간의 금슬만 좋으면 된다 38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72	.73
가부장의식	32 가정의 중요한 일은 아버지가 결정해야 한다 33 가족 내의 문제는 가장이 해결해야 한다 31 가문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계승되어야 한다 30 아버지는 권위를 가지고 엄격하게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	.89	.85

요인Ⅰ로 분류된 항목들은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남녀 성역할 구분의식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성역할관"으로 명명하였다. 요인Ⅱ의 항목들은 자식은 매사를 부모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효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효의식"으로, 요인Ⅲ의 항목들은 자식은 연로한 부모님을 정신적·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봉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부모부양의식"으로 명명하였다. 요인Ⅳ는 결혼(동성혼)/이혼/자녀출산 등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관련한 신념과 태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이하 "제도적 가족관"으로 표기)로, 요인Ⅴ는 가부장으로서의 남성의 권위와 가계 부계계승의 당위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가부장의식"으로 명명하였다. 이들 다섯 요인의 항목점수를 합산하여 요인점수를 산출하였는데, 다른 요인들과 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도적 가족관의 항목점수는 역순으로 리코드하였다.

각 요인의 척도로서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성역할관이 .87(청소년)과 .85(학부모), 효의식이 모두 .78, 부모부양의식이 모두 .77, 제도적 가족관이 .72와 .73, 가부장의식이 .89와 .85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Olson 등(Olson, Porter, & Lavee, 1985)의 FACES(family adaptability cohesion evaluation)-Ⅲ를 우리 실정에 맞게 번안한 김윤희(1989)의 척도에 기초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한 간이척도를 활용하였다. 가족기능 척도는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의 두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은 개인의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가족원들이 서로에 대해서 갖는 정서적 유대 정도를, 가족적응성(family adaptability)은 가족원이 처하게 되는 상황적 또는 발달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긴장에 대처하여 가족관계의 역할이나 규칙, 가족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김윤희, 1989, p.6)을 의미한다.

서울지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김윤희(1989)의 조사문항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천정효과(ceiling effect)가 나타난 문항, 요인분석 결과 요인

부하량이 낮거나(.40 미만), 두 요인에 동시에 높은 부하량을 나타낸 문항, 원 척도와는 다른 요인으로 분류된 문항 등을 제외한 결과 가족응집성 요인 6 항목, 가족적응성 요인 4 항목 등 10개의 문항이 남게 되었다. 이들 간이척도와 원척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가족응집성 요인이 .98(p<.001), 가족적응성 요인이 .84(<.001)로서 매우 높게 나타나 간이척도가 적은 문항으로 원척도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본조사에 활용하였다.

<표 Ⅱ-6> 가족기능 척도 요인분석: 사교회전 후 요인행렬표

	청소년		학부모	
	Ⅰ	Ⅱ	Ⅰ	Ⅱ
우리 가족은 다른 누구보다도 가족끼리 친하게 지낸다	.87	-.06	.86	-.04
우리 가족은 서로 강한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86	-.11	.82	-.11
우리 가족은 무슨 일이든 가족과 함께 하려 한다	.81	-.01	.84	-.05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기꺼이 도와준다	.81	-.08	.84	-.11
우리 가족은 단합과 의견통일을 중요시한다	.74	.04	.76	.02
우리 가족은 여가시간을 되도록 함께 보내려 한다	.59	.16	.65	.16
우리집에서는 벌칙을 정할 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의논한다	.12	.69	.24	.55
우리집에서는 자녀들이 자기가 받아야 할 벌칙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4	.64	.35	.46
우리집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지도자가 바뀐다	-.01	.64	-.02	.72
우리집에서는 누가 지도자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21	.46	-.28	.57
요인간 상관	.58		.44	

본조사의 가족기능 척도 응답결과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앞의 <표Ⅱ-6>과 같다. 청소년과 학부모 표본 모두에서 동일한 요인구조가 추출되었는데, 학부모표본의 경우 요인Ⅱ의 한 항목이 요인Ⅰ에도 비교적 높은 부하량을 나타냈으나 청소년표본과의 비교를 위해 분석에 그대로 활용하기로 하였

다.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2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62.60%(청소년)와 64.11%(학부모)를 설명하고 있으며, 요인간 상관은 .58(청소년), .44(학부모)로 나타났다.

요인Ⅰ은 가족응집성에 관한 6개의 문항, 요인Ⅱ는 가족적응성에 관한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변인으로 명명하고 요인점수를 산출하였다. 두 변인의 척도신뢰도(Cronbach' α)는 청소년표본의 경우 가족응집성이 .89, 가족적응성이 .69였으며, 학부모표본은 각각 .90, .68로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관한 척도는 Olson & Barnes(1982)가 개발한 PAC(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척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PAC 척도는 개방형/문제형 의사소통의 두개의 하위요인으로 각 10항목씩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각각 부친/모친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의 감정과 정보교환이 솔직하고 자유로우며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간의 이해와 만족도가 높은 형태를, 문제형 의사소통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을 회피하거나 선택적으로 하며 의사소통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갖고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국내 선행연구(권재환, 이은희, 2006; 김갑숙, 전영숙, 2009; 김수현, 2003; 김흥규, 최재향, 2006)를 참고하여 문항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번안한 뒤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간이척도를 개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40 미만), 두 요인에 동시에 높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낸 문항 등을 제거한 결과 개방형/문제형 의사소통 요인별 5항목씩 10개의 항목이 남게 되었다. 요인별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원척도와 예비조사를 통해 구성한 간이척도와의 상관관계는 .93 ($p<.001$)에서 .97($p<.001$) 사이에 분포하여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구성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10문항의 본조사의 요

인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Ⅱ-7>과 같다. 부친과의 의사소통, 모친과의 의사소통 모두 2개로 이루어진 동일한 요인구조가 추출되었는데, 이들 2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55.94%(부친), 54.92%(모친)을 설명하고 있으며, 요인간 상관은 -.41(부친), -.42(모친)로 나타났다. 요인Ⅰ은 개방형 의사소통에 속하는 5개 문항, 요인Ⅱ는 문제형 의사소통에 해당되는 5개 문항으로서, 각각 부친/모친과의 개방형 의사소통, 문제형 의사소통 변인으로 명명하고 요인점수를 산출하였다.

<표 Ⅱ-7>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요인분석: 사교회전 후 요인행렬표

	부친		모친	
	Ⅰ	Ⅱ	Ⅰ	Ⅱ
나는 무슨 일이든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릴 수 있다	.79	-.01	.77	-.01
나의 소신을 부모님과 거리낌 없이 의논할 수 있다	.77	-.02	.76	-.02
부모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감정이 어떤지 잘 아신다	.75	.03	.72	.02
내 질문에 부모님은 솔직하게 대답해 주신다	.66	-.02	.65	-.02
나는 마음놓고 부모님께 어리광을 부릴 수 있다	.66	.05	.65	.08
부모님은 나에게 화를 낼 때 모욕감을 느끼게 하신다	-.05	.66	-.05	.65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끔 믿기가 어렵다	.07	.62	.06	.61
부모님은 그냥 넘어가도 될 말을 굳이 내게 하시는 편이다	.14	.61	.16	.61
나에게는 부모님과 의논할 수 없는 비밀이 많다	-.09	.57	-.12	.58
부모님과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부모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다	-.09	.56	-.07	.56
요인간 상관	-.41		-.42	

요인분석을 통해 산출된 이들 6개 변인의 척도신뢰도(Cronbach' α)는 부친 문항의 경우 개방형 의사소통 .84, 문제형 의사소통 .74, 모친 문항은 각

각 .83, .74로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부모의 양육태도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부모 양육태도 척도로는 Parker, Tupling, & Brown(1979)의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와, Baumrind의 부모양육태도 이론을 근거로 Buri(1991)가 개발한 부모권위 척도(parental authority questionnaire: PAQ)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Buri(1991)의 PAQ 척도를 관련 선행연구(이현주, 강민희, 2008; 표경선, 안도희, 2006)를 참고하여 번안해서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보완한 뒤 본조사에 활용하였다.

PAQ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허용적(permissive), 권위적(authoritarian), 민주적(authoritative) 양육태도의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당 10문항씩 총 30문항을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게 되어 있다. 허용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거의 통제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방임하는 태도이고, 권위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들의 행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태도이며, 민주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지도함에 있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지만 따뜻하고 합리적이며 일관적인 방식을 취하는 태도를 말한다(이현주, 강민희, 2008, p.7).

PAQ척도의 30개 항목에 대한 예비조사의 응답결과의 평균값과 표준편차의 검토한 결과 두 개의 문항에서 천정효과(ceiling effect) 가 나타나 나머지 28개 문항을 대상으로 주인자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유치의 변화량을 검토한 결과 부친은 3개, 모친은 4개의 요인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 척도의 요인분류에 따라 요인을 3개로 지정하고 주인자법·사교회전의 방식으로 다시 요인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친/모친 모두 권위적 양육태도의 항목들은 원척도와 동일하게 일관되게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나, 허용적/민주적 양육태도는 별개의 요인으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

혼재되어 있었고[5], 특히 허용적 양육태도 항목의 상당수가 .04 미만의 낮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서구와는 달리 우리사회에서는 자녀 양육 방식에 있어서 허용적 태도와 민주적 태도의 구분이 어렵고 따라서 PAQ의 원 문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부친과 모친 모두에게서 동일한 요인으로 분류되고 요인부하량이 적정한 수준(.04 이상)인 권위적 양육태도, 민주적 양육태도의 10개 항목만으로 간이척도를 구성하여 활용하기로 하였다.

본조사의 부모양육태도 척도 10개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Ⅱ-8>과 같다. 부친과 모친 모두 동일한 항목으로 이루어진 2개의 요인 구조가 추출되었으며, 이들 2개의 요인이 전체변량의 59.2%(부친)와 57.3%(모친)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Ⅰ은 "민주적 양육태도", 요인Ⅱ는 "권위적 태도"에 해당되는 항목들로서 두 요인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4개 하위 척도의 내적 신뢰도(Cronbach' α)는 부친의 경우 민주적 태도가 .84, 권위적 태도가 .80이었으며, 모친은 각각 .82, .79로서 높은 수준이었다.

[5]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항목이 다수 나타나고, 허용적 태도와 민주적 태도의 혼재현상은 이현주, 강민경(2008)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표 Ⅱ-8>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요인분석: 사교회전 후 요인행렬표

	부친		모친	
	Ⅰ	Ⅱ	Ⅰ	Ⅱ
합리적인 이유나 설명을 통해 나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지도하신다	.82	.08	.79	.07
내가 가족 내의 규칙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대화로 풀어가려고 하신다	.79	-.01	.78	-.01
가족이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할 때 그 이유를 내게 설명해 주신다	.72	.12	.70	.11
나의 행동과 활동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시지만, 내가 그것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신다	.64	-.13	.61	-.11
부모님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나는 언제라도 그에 대해서 부모님과 이야기할 수 있다	.60	-.07	.59	-.07
자녀들을 엄격하게 지도하고 통제하면 많은 사회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으신다	.01	.77	-.01	.76
양의견이 다를 때 부모님 뜻에 따르는 것이 결국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10	.68	.11	.66
내가 당신의 기대대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	.13	.68	.11	.66
내가 부모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20	.66	-.19	.65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내가 군말하지 않고 즉시 하기를 원하신다	-.08	.55	-.07	.54
요인간 상관	-.15		-.10	

세대간 결속감

부모와 자녀세대간의 정서적·심리적 친밀감과 애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angen, Bengston & Landry(1988)의 척도를 수정·보완한 최정혜(1992)의 척도, 조윤주(2002)의 부모와의 애착 및 갈등 척도, 남정숙(2007)의 세대간 결속척도 등을 참고하여 "세대간 결속감" 척도를 구성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나와 부모님 사이는 매우 가까운 편이다" "나의 부모님은 매사에 나를 신뢰한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가 참 좋다" "나는 부모

님의 심정을 잘 헤아린다” “나는 부모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의 5문항이며, 각각 부친, 모친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Likert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척도신뢰도(Cronbach’ α)는 부친과의 세대결속감이 .88, 모친과의 세대결속감이 .87이었으며, 양친에 대한 응답점수를 합산한 부모와의 세대결속감이 .92로서 높은 수준이었다.

가족활동

가족활동 또는 가족여가활동은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여가활동이나 시간을 이르는 개념으로서 활동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rthner(1975)의 “공유활동”(joint activity), “병행활동”(parallel activity)의 구분을 참고하여 새로운 척도를 구성하였다. 공유활동은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한 역할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여가활동으로서 가족간의 스포츠나 여행, 가족 외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병행활동은 최소한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소극적 활동으로서 집에서의 TV시청, 라디오 청취 등이 대표적이다(안병수, 2007).

본 조사에서는 공유활동으로서 부모님과의 여행, 쇼핑, 외식, 운동/산책, 스포츠경기 관람, 영화 관람, 공연/전시회 관람, 야외나들이 등 8항목을, 병행활동으로서 가정내에서 부모님과 함께 TV시청하기, 아침식사 같이 하기, 저녁식사 같이 하기 등 3항목[6]을 조사문항으로 설정하고 그 빈도를 6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들 11개 항목의 가족활동 빈도 응답결과를 1차 요인분석하여 고유치의 변화량을 검토한 결과 3개의 요인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시 요

[6]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병행활동은 부친과 모친으로 나누어 각각 응답하게 하였으나, 양친 구분 없이 “부모님”과의 활동빈도를 측정한 공유활동과의 통일성을 기하여 위하여 척도구성에서는 부친/모친과의 활동빈도를 합산한 평균값을 6단계로 점수화한 값을 활용하였다.

인의 수를 3개로 지정하고 주인자법·사교회전에 의한 2차 요인분석 결과 다음의 <표 Ⅱ-9>와 같은 요인구조가 추출되었다. 이들 세 요인은 전체 변량의 64.2%를 설명하고 있으며 요인간 상관은 .33 ~ .49로 나타났다.

<표 Ⅱ-9> 가족활동 척도의 요인분석: 사교회전 후 요인행렬표

		Ⅰ	Ⅱ	Ⅲ
부모님과 공연/전시회 관람하기		.97	-.02	-.23
부모님과 영화 관람하기		.80	-.06	.04
부모님과 야외나들이/소풍가기		.77	.01	.10
부모님과 여행(1박 이상)하기		.72	-.01	.08
부모님과 운동 또는 산책하기		.56	.08	.29
부모님과 스포츠경기 관람하기		.51	.09	.09
부모님과 저녁식사하기		.01	.85	-.04
부모님과 아침식사하기		.13	.79	-.20
부모님과 TV시청하기		-.15	.72	.25
부모님과 장보거나 쇼핑하기		-.01	.02	.88
부모님과 식당에서 외식하기		.08	-.07	.84
요인간 상관	Ⅰ	-	.36	.49
	Ⅱ		-	.33

Orthner(1975)의 가족활동 분류를 참고하여 요인구조를 해석하면 요인Ⅰ의 6항목은 “공유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을 벗어나 외부 또는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스포츠 관련 야외체험활동에 해당된다. 요인Ⅱ에 속하는 TV시청, 식사함께 하기는 “병행활동”에 해당되며 가정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요인Ⅲ의 부모님과 함께 쇼핑, 외식하기는 Orthner(1975)의 분류에 따르면 요인Ⅰ과 마찬가지로 공유활동에 속하지만 본조사에서는 별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것은 쇼핑/외식활동이 활동빈도나 부모와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다른 공유활동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요인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요인Ⅰ을 “야외체험활동”, 요인Ⅱ를 “가정내 일상활동”, 요인Ⅲ을 “쇼

핑/외식활동"으로 명명하고 요인점수를 산출하여 변인을 구성하였다.

이들 세 변인의 척도신뢰도(Cronbach' α)는 각각 .85, .69, .74로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으며, 세 변인의 요인점수를 합산한 전체 가족활동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지금까지 사회·심리 영역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척도가 가장 널리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Rosenberg 척도의 문항내용이 개인주의에 기반한 서구문화에 편향되어 공동체적·집단주의적 전통이 강한 문화권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Crocker, Luhtanen, Blaine, & Broadnax, 1994; Luhtanen & Crocker, 1992; Markus & Kitayama, 1991). 즉, Crocker 등은 집단주의를 추구하고 소속집단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있어 자아존중감은 서구에서 주장하는 독립된 자아(independent self)와는 구별되는 상호의존적 자아[7](interdependent self)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Crocker et al., 1994).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논의를 토대로 자아존중감 측정에 있어서 집단주의적 관점을 반영한 한유화, 정진경(2007)의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존 척도의 문화적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95)과 상호의존적-독립적 자아개념(Markus & Kitayama, 1991)에 기초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고안된 12개의 문항(개인주의적 요인 6, 집단주의적 요인 6)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요인분석 및 척도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 척도의 문항 중 3개가 척도항목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 문항을 제

[7] 독립된 자아란 타인이나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분리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자아를 이해하는 것으로 개인의 속성에 맞추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상호의존적 자아는 자아개념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타인의 안녕과 반응을 자신의 자아존중감 형성의 준거틀로 활용하고 이를 자신의 인지, 동기 및 감정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노충래, 2000, p. 111).

외한 9개 항목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본조사의 응답결과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Ⅱ-10>과 같다. 두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61.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간 상관은 .66으로서 높은 수준이었다.

<표 Ⅱ-10> 자아존중감 척도 요인분석 결과: 사교회전 후 요인행렬표

	Ⅰ	Ⅱ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할 말은 한다	.76	-.07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행동으로 잘 옮긴다	.74	.03
나는 남들은 하지 못하는 일을 가끔 해낸다	.72	.02
나는 남과 경쟁을 하면 대체로 이기는 편이다	.67	.0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의 일을 스스로 한다	.55	.14
나는 남들을 잘 배려한다	-.10	.72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02	.70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이 화합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07	.68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09	.68
요인간 상관	.66	

요인Ⅰ은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아존중감을, 요인Ⅱ는 집단적 요인에 의한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각각 “개인요인 자아존중감” “집단요인 자아존중감” 변인으로 명명하였고, 또한 이들 두 요인점수를 합산하여 전체 “자아존중감” 변인을 구성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두 변인의 척도신뢰도(Cronbach’ α)는 개인요인 자아존중감이 .83, 집단요인 자아존중감이 .80이었으며, 이들 두 변인을 합산한 전체 자아존중감은 .86으로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자아정체감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측정은 Erikson(1968)의 정의에 기초하여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허정철(2008)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체성과 미래확신성의 두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진 총 9개의 문항을 5첨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9개 문항에 대한 예비조사의 결과를 요인분석한 결과 2개의 요인구조가 확인되었으나 한 문항이 두 개의 요인에 동시에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어 이 문항을 제외한 8개 문항을 본 조사에 활용하였다. 본 조사의 최종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Ⅱ-11>와 같다. 하나의 항목("나는 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이 두 요인에 유사한 부하량을 나타냈으나 내용 검토 후 원 척도의 분류에 따라 요인Ⅰ의 항목으로 그대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들 2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69.5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간 상관은 .50으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표 Ⅱ-11> 자아정체감 척도 요인분석: 사교회전 후 요인행렬표

	Ⅰ	Ⅱ
나는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93	-.05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89	.06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85	-.04
나는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41	.34
나는 내 일을 스스로 잘 처리할 수 있다	-.05	.85
나는 내 판단에 자신이 있다	-.02	.81
나는 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좋아한다	-.03	.66
나는 내 모습 이대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2	.54
요인간 상관	.50	

요인Ⅰ은 미래확신성에 속하는 4개의 문항, 요인Ⅱ는 주체성에 속하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각각 "미래확신성" "주체성" 으로 명명하고 요인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이들 두 변인의 요인점수를 합산하여 자아정체성 변인을 구성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생성된 세 변인의 척도신뢰도(Cronbach' α)는 미래확신성이 .88, 주체성이 .80, 두 변인을 합산한 자아정체감이 .86으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권위주의적 성격

"권위주의적 성격"(authoritarian personality)은 Adorno 등(1950)에 의해서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서, 이들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 권위주의 성격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을 밝혀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potentiality for Fascism scale, F-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를 활용한 후속연구를 통해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인지 측면에서 인지적 경직성과 애매함을 못 참는 특성이 있고(Block & Block, 1951), 태도 측면에서 소수집단의 성원을 배척하고 보수적인 정치·경제적 태도를 지니고 권력자나 권위자의 태도를 수용하며(Izzett, 1971), 권위주의적인 후보들에게 투표하는(Higgins & Kuhlman, 1965) 성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dorno 등의 F-척도는 백인, 우파(right wing) 중심의 편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척도의 수정·보완작업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Adorno 등의 F-척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번안한 민경환(1989)의 한국판 권위주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조사에 활용하였다. 민경환(1989)의 원 척도를 활용하여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척도의 내적 신뢰도가 낮은 수준으로서 조사에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8]. 이에 따라 F-척도의 하위요인[9]을 고려하여 요인분석과 문항내용 검토를 거쳐 10개 항목을 선정한 뒤 중·고교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보다 평이한 형태로 다듬어서 간이척도를 구성하였다.

본조사에 활용한 간이척도의 항목은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

---

[8] 이와 같은 낮은 신뢰도는 같은 척도를 활용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민경환(1989), 서영석·이정림·차주환(2006)의 연구(각각 .86, .89)와 뚜렷하게 대비되는데, 이것은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부적합한 내용의 문항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9] 민경환(1989)에 따르면, F-척도의 하위요인은 인습주의(conventionlism), 권위주의적 복종(authoritarian submission), 권위주의적 공격성(authoritarian aggression), 반내성주의(反內省主義; anti-intraception), 미신과 고정관념(superstition and stereotype), 권력과 강인성(power and toughness), 파괴와 냉소주의(destructiveness and cynicism), 투사성(projectivity), 성(sex) 등으로 구성된다.

"사람은 선인과 악인으로 갈라진다"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직업의 귀천을 나눌 수 있다" "아이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미덕은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가정이나 학교나 권위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은 모두 천성적으로 남을 지배하고 싶어한다" "인간의 본성 때문에 전쟁과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보다는 어떻게든 헐뜯으려고만 하는 것 같다" "요즘은 사기꾼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등이다.

조사완료 후 척도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를 검증한 결과 청소년표본과 학부모표본이 모두 .81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삶에 대한 만족감

삶에 대한 만족감은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1985)의 SWLS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7점 Likert 척도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 연구를 통해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나타내어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김완석, 김영진, 1997).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선행연구(김완석, 김영진, 1997; 조명한, 차경호, 1998)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문항내용을 번안("지금 나의 생활은 내가 바라던 대로이다" "나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지금의 내 생활에 만족한다" "나는 지금까지 원하는 것을 대부분 이루어 왔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고 싶다")하고 응답항목을 5점 척도로 조정하여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내적 신뢰도(Cronbach' α)는 청소년표본이 .89, 학부모표본이 .90으로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청소년들의 가족의식 및 가정생활 특성이 문제행동 성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 비행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가족과 비행의

관련에 관한 선행연구(김영희, 안상미, 2008; 신연희, 2001; 신혜섭, 2005; 양점도, 박영국, 2009) 및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조사항목들을 참고하여 총 13개의 대표적인 청소년비행 항목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자신의 경험정도를 6단계의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1차 요인분석 결과 2개의 요인구조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요인의 수를 2개로 지정하고 주인자법·사교회전의 방식으로 요인분석하였다. 요인의 해석가능성과 요인부하량을 검토(요인부하량이 .40 미만, 두 개의 요인에 유사한 부하량을 나타낸 항목)한 결과 4개의 항목이 척도구성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들 항목을 제외한 9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종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Ⅱ-12>와 같다. 요인Ⅰ에 5항목, 요인Ⅱ에 4개 항목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었으며, 이들 두 요인은 전체 변량의 61.7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2> 비행 척도 요인분석: 사교회전 후 요인행렬표

	Ⅰ	Ⅱ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	.86	-.07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경험	.84	-.05
시험시간에 부정행위(컨닝 등)를 한 경험	.61	.05
공공기물을 파손하거나 낙서한 경험	.50	.05
다른 사람을 구타/폭행한 경험	.50	.20
어른 몰래 술마신 경험	-.07	.81
담배 피운 경험	-.06	.79
무단외박을 한 경험	.14	.65
무단조퇴 및 무단결석 경험	.16	.61
요인간 상관	.62	

요인Ⅱ는 청소년이라는 신분상의 속성에 기인하는 비행으로 지위비행에 해당되며, 요인Ⅰ은 지위비행과는 달리 법령에 위배되며 타인에게 피해를 미치는 행위로서 넓은 의미의 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요인Ⅰ을

“지위비행” 변인으로, 요인Ⅱ를 “범죄형 비행” 변인으로 명명하여 요인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이 두 요인점수를 합산한 평균값을 전체 “비행” 변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세 변인의 척도신뢰도(Cronbach’ α)는 지위비행이 .81, 범죄형 비행이 .79였으며, 전체 비행은 .85로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학교생활 적응

청소년들의 가정배경 및 가족의식·가정생활 특성이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이경숙, 2006; 이미자, 2009)의 조사문항을 참고하여 학교생활 적응 척도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와의 관계, 학교친구와의 관계, 학교공부 몰입도의 세가지 영역에 대한 적응정도에 관한 총 13개의 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요인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인자법에 의한 1차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고유치의 변화량을 검토한 결과 3개의 요인구조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의 수를 3개로 지정하고 주인자법·사교회전의 방식으로 2차 요인분석한 결과 각각 4개, 5개, 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세 개의 요인구조가 추출되었다. 이들 세 요인은 전체 변량의 65.5를 설명하고 있으며 요인간 상관은 .39 ~ .50으로 나타났다.

요인Ⅰ은 학교생활에 있어서 교사와의 관계를, 요인Ⅱ는 학교친구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요인Ⅲ은 학과공부 몰입과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요인Ⅰ을 “교사 적응”, 요인Ⅱ를 “친구 적응”, 요인Ⅲ은 “공부몰입”으로 명명하고 요인점수를 산출하고, 아울러 이들 세 요인의 요인점수를 합산하여 전체 “학교생활 적응” 변인을 구성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산출된 이들 4변인의 척도신뢰도(Cronbach’ α)는 “교사적응”이 .89, “친구적응”이 .82, “공부몰입”이 .78이었으며 세 변인을 합산한 전체 “학교생활 적응”이 .87로서 높은 수준이었다.

<표 Ⅱ-13> 학교생활 적응 척도 요인분석: 사교회전 후 요인행렬표

	Ⅰ	Ⅱ	Ⅲ
나는 학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하는 것이 즐겁다	.88	.01	.01
나는 학교 선생님을 본받고 싶다	.83	-.06	.02
나는 학교나 교문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82	.06	-.02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신다	.74	.02	.01
나는 우리 반 친구들에게 인기가 좋은 편이다	-.06	.78	.05
학교에서 놀거나 회의를 할 때 친구들이 내 의견을 잘 따라준다	-.02	.77	.08
친구들은 내가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자기 것을 함께 쓰게 하거나 빌려준다	.03	.70	-.06
우리 반에는 내가 비밀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	.03	.66	-.09
우리 반 친구들은 자신의 생일에 나를 초대한다	.04	.62	-.01
나는 수업시간에 장난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다	.02	-.13	.83
나는 예습과 복습을 꼬박꼬박 하는 편이다	-.03	-.05	.79
나는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공책에 잘 정리한다	-.02	.20	.55
나는 수업시간에 발표하기를 좋아한다	.07	.09	.53
요인간 상관 Ⅰ	-	.39	.47
Ⅱ		-	.50

3. 표본의 구성

표본의 특성

설문조사를 통해 회수된 조사표는 청소년 표본이 7,002명, 학부모 표본이 6,090명으로서 학부모 조사표의 회수율이 87.0%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회수된 조사표를 대상으로 주요 배경변인 미응답, 고의 오답 등에 대한 자료 선별작업을 거쳐 청소년 표본 6,979명, 학부모 표본 6,082명이 1차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청소년 표본은 응답자의 성비가 1:1로 균형을 이룬 반면, 학부모 표본은 모친 응답자(4,040명)가 부친 응답자(2,042명)의 약 2배에 달하여 학부모표본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성비 조정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서 학부모 표본은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학생의 부모 중 1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성별 비율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학급별로 조사대상이 되는 부모님의 성별을 사전에 지정하고 조사표를 학생에게 전달하여 부모님이 개별적으로 응답한 뒤 조사표를 회수해 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부친의 경우 직장업무로 인한 늦은 귀가시간 등으로 조사에 응하지 못하거나 부친 대신 모친이 응답한 사례가 적지 않아서 여자 표본에 비해 남자 표본이 과소표집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조사의 주제인 가족의식/가치관과 가정생활이 남녀간 성차가 현저한 영역이며, 특히 부모-자녀세대간 응답결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학부모 표본의 성비 조정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학부모 표본에서 남자에 비해 과다표집된 여자 표본을 SPSS프로그램의 무작위추출법을 활용하여 제거하는 방식으로 표본을 조정하여 총 4,010명(남자 2006명, 여자 2004명)을 분석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이상의 절차에 따라 최종분석 대상으로 확정된 청소년표본과 학부모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Ⅱ-14>와 같다.

<표 Ⅱ-14> 표본의 특성

		청소년		학부모[1]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계		6979	100.0	4010	100.0
성별	남자	3547	50.8	2006	50.0
	여자	3432	49.2	2004	50.0
교급	중학교	3145	45.1	1840	45.9
	일반고	2680	38.4	1472	36.7
	전문고	1154	16.5	698	17.4
학년	중1	1027	14.7	585	14.6
	중2	1097	15.7	619	15.4
	중3	1021	14.6	636	15.9
	고1	1310	18.8	783	19.5
	고2	1303	18.7	734	18.3
	고3	1221	17.5	653	16.3
지역	서울	1062	15.2	590	14.7
	광역시	2393	34.3	1349	33.6
	시군부	3524	50.5	2071	51.6
부친 최종학력	중졸 이하	445	6.7	268	6.9
	고졸	2794	41.8	1594	41.1
	대졸 이상	3438	51.5	2014	52.0
모친 최종학력	중졸 이하	469	6.9	269	6.9
	고졸	3656	54.0	2097	53.9
	대졸 이상	2648	39.1	1528	39.2
부친 연령대	30대	165	2.4	87	2.2
	40대	4855	71.9	2829	72.2
	50대 이상	1737	25.7	1004	25.6
모친 연령대	30대	620	9.1	344	8.7
	40대	5520	80.6	3210	81.6
	50대 이상	709	10.4	381	9.7
가정경제수준	하	1268	18.4	706	17.8
	중	4745	68.7	2765	69.8
	상	893	12.9	493	12.4

1) 성별과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의 수치는 해당 학부모의 자녀가 응답한 결과로서, 표에서 부친/모친의 최종학력과 연령대는 학부교급, 학년은 자녀, 자녀해당 학부모의 자녀가 응답한 것임

먼저 청소년표본의 경우 성별로 거의 동일한 분포를 나타내었고,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45.1%, 고교생이 54.9%로서 모집단 인구구성(2009년 50.5%, 49.5%)에 비해 고교생이 다소 과다표집되었다. 고교 계열별로는 일반고가 69.9%, 전문고가 30.1%로서 모집단 인구구성(2009년 75.6%, 24.6%)과 비교하여 일반고의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학년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지만 고3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는데, 이것은 입시준비를 이유로 몇몇 학교에서 다른 학년 조사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2%, 광역시가 34.3%, 시군부가 50.5%로서 모집단의 인구구성(2009년 각각 17.7%, 27.6%, 54.7%)과 비교하여 서울과 시군부의 비율이 다소 낮은 한편 광역시가 과다표집된 것으로 나타났다[10].

부모의 학력은 부친의 경우 대졸 이상이, 모친은 고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부친의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부모의 연령대는 부친/모친 모두 40대가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고, 30대는 모친이, 50대 이상은 부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10] 세부 행정구역별 표본의 분포는 다음의 표와 같다.

		청소년		학부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서 울		1062	15.2	590	14.7
광역시	부산	453	6.5	254	6.3
	대구	505	7.2	300	7.5
	인천	486	7.0	265	6.6
	광주	342	4.9	182	4.5
	대전	300	4.3	173	4.3
	울산	307	4.4	175	4.4
시군부	경기	1431	20.5	856	21.3
	강원	295	4.2	171	4.3
	충북	246	3.5	137	3.4
	충남	251	3.6	111	2.8
	전북	313	4.5	179	4.5
	전남	237	3.4	152	3.8
	경북	302	4.3	200	5.0
	경남	449	6.4	265	6.6

가정의 경제수준은 중간 수준이 68.7%로 가장 다수였고, 이어서 낮은 수준(18.4%), 높은 수준(12.9%)의 순이었다. 학부모 표본의 배경변인별 분포는 청소년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응답/무응답 집단의 비교

이번 조사에서 학부모 표본의 응답률은 87.0%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지만 응답 안 한 학부모의 비율도 1할을 상회하였다. 이 비율을 고려할 때 만약 학부모의 무응답이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통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11] 본 조사의 학부모 표본은 대표성 있는 표본(representative sample)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조사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을 안게 된다.

무응답 집단의 존재로 인한 표본의 대표성 문제 검증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가 응답한 집단과 응답하지 않은 집단의 속성이 분석에 활용된 주요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는가의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만약 대부분의 변인에서 두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응답의 비율이 상당한 수준에 달하더라도 표본의 대표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분석에 활용된 주요변인의 학부모 응답집단과 무응답집단의 응답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Ⅱ-15>, <표 Ⅱ-16>과 같다.

먼저 두 집단은 성별, 거주지역, 가족의 세대구성, 형제유무, 부모의 취업유형, 부모의 연령대와 최종학력, 가정경제 수준, 학업성적 등 배경변인의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Ⅱ-15>). 가족특성/가족관계 관련 변인(<표 Ⅱ-16>)에서는 비교대상이 된 13개 변인 중에서, 가족응집성, 부친과의 개방형 의사소통, 부친과의 세대결속감, 부친의 민주적 양육태도 등 4개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개인 심리·행동 특성과 관련된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비행

[11] 예컨대, 특정한 계층의 학부모들이 자기 가정의 정보 공개를 꺼려서 고의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을 표본에서 제외한 조사결과는 해당 계층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표본이라 할 수 없다.

등 6개 변인에서는 모두 두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Ⅱ-15> 부모응답/무응답 집단 비교 I

(단위: %)

	부모 응답	부모 무응답	계	
남자	52.3	48.8	50.8	x^2= 2.57^{ns}
여자	47.7	51.2	49.2	
서울	14.7	15.9	15.2	x^2= 5.20^{ns}
광역시	33.6	35.2	34.3	
시군부	51.6	48.9	50.5	
3세대 가정	18.3	17.8	18.1	x^2= .20^{ns}
2세대 가정	81.7	82.2	81.9	
형제 없다	8.9	10.2	9.5	x^2= 2.87^{ns}
형제 있다	91.1	89.8	90.5	
부부 맞벌이	66.3	64.8	65.7	x^2=1.75^{ns}
부친만 취업	30.6	31.8	31.1	
모친만 취업	1.8	1.9	1.8	
부부 무직	1.3	1.5	1.4	

* p< .05, ** p< .01, *** p< .001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두 집단간의 차이가 모두 부친 관련 변인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부모가 응답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응답한 청소년에 비해 부친과의 개방형 의사소통 정도와 세대간 결속감이 낮고 부친의 민주적 양육태도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따라서 부친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청소년들 중에서 일부가 부친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였거나 아니면 부친 대신 모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친과의 개방형 의사소통, 부친의 민주적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형 의사소통, 권위적 양육태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분석대상이 된 30개의 변인 중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

의미한 변인은 4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조사의 학부모표본은 부친 관련 변인에서 부분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표본의 대표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Ⅱ-16> 부모응답/무응답 집단 비교Ⅱ

	부모 응답		부모 무응답		계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부친 연령대	3.98	.88	3.98	.89	3.98	.88	t= -.01^{ns}
모친 연령대	3.44	.85	3.48	.87	3.46	.86	t= -1.71^{ns}
부친 최종학력	3.95	1.22	3.95	1.23	3.95	1.22	t= -.10^{ns}
모친 최종학력	3.66	1.13	3.66	1.14	3.66	1.13	t= .11^{ns}
가정경제수준	4.32	1.09	4.28	1.15	4.30	1.11	t= 1.25^{ns}
학업성적(전과목)	2.96	.92	2.93	.95	2.95	.93	t= 1.46^{ns}
가정생활 만족도	4.94	1.47	4.91	1.50	4.93	1.48	t= .83^{ns}
가족응집성	3.65	.79	3.60	.82	3.63	.80	t= 2.85**
가족적응성	2.97	.82	2.92	.83	2.95	.83	t= 2.26
부친 개방형 의사소통	3.26	.89	3.19	.91	3.23	.90	t= 3.02**
부친 문제형 의사소통	2.87	.80	2.90	.81	2.88	.80	t= -1.80^{ns}
모친 개방형 의사소통	3.50	.85	3.47	.87	3.49	.86	t= 1.57^{ns}
모친 문제형 의사소통	2.83	.79	2.87	.80	2.85	.79	t= -1.96^{ns}
부친과의 세대결속감	3.52	.88	3.46	.90	3.50	.89	t= 2.61**
모친과의 세대결속감	3.70	.80	3.67	.83	3.68	.81	t= 1.43^{ns}
부친 민주적 양육태도	3.57	.82	3.51	.85	3.55	.84	t= 3.17**
부친 권위적 양육태도	3.07	.87	3.05	.88	3.06	.87	t= .90^{ns}
모친 민주적 양육태도	3.71	.76	3.68	.76	3.69	.76	t= 1.73^{ns}
모친 권위적 양육태도	3.02	.84	3.02	.84	3.02	.84	t= .26^{ns}
자아정체감	3.44	.70	3.45	.72	3.44	.71	t= .99^{ns}
개인요인 자아존중감	3.36	.67	3.35	.69	3.36	.68	t= .47^{ns}
집단요인 자아존중감	3.70	.63	3.67	.66	3.69	.64	t= 1.39^{ns}
삶에 대한 만족감	3.05	.90	3.02	.91	3.04	.91	t= 1.32^{ns}
권위주의적 태도	2.85	.63	2.84	.65	2.85	.64	t= .47^{ns}
비행	1.39	.66	1.42	.70	1.40	.68	t= -1.92^{ns}

* p< .05, ** p< .01, *** p< .001

Ⅲ. 가족의식 · 가치관

1. 가족의 개념
2. 가족의식·가치관
3. 가정생활 만족도
4. 요약

Ⅲ. 가족의식·가치관

이 장에서는 청소년과 학부모의 가족개념, 가족의식과 가치관,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조사결과를 분석한다. 가족개념에서는 가족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자기 주변의 친척과 친지 중에서 가족으로 간주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조사하였다. 가족의식/가치관에서는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가족의식을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을 강조하는 가부장의식, 남성과 여성의 역할구분을 강조하는 성역할관, 연로한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 일상생활에서의 부모에 대한 효의식,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제도적 가족관)의 다섯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1. 가족의 개념

가. 가족의 의미

청소년/학부모 응답결과

청소년과 학부모가 가족의 의미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의 의미를 설명하는 6항목의 문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응답결과를 보면,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4.49),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4.25),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4.23)의 긍정응답률이 “재산과 수입을 함께 하는 사람들”(3.46), “같은 운명을 지닌 사람들”(3.17),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2.9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학부모의 응답은 모든 항목에 걸쳐 긍정응답 비율이 청소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지만 긍정응답률의 순위는 청소년과 완

전히 일치하였다.

따라서 가족의 의미에 대한 세대간 인식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며, 부모, 자녀 세대 모두 가족을 주로 "혈연공동체"(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 "생활공동체"(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애정공동체"(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혈연과 주거를 함께 하는 사회적 단위로서의 가족은 전통사회에서부터 유지되어 온 보편적인 가족의 정의라고 할 수 있지만, 이와 더불어 애정공동체로서의 가족이 중시되고 있는 것은 세대를 불문하고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식의 한 단면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1> 가족의 의미: 청소년과 학부모

	청소년		학부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	4.49	.77	4.51	.74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4.25	.91	4.27	.90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4.23	.81	4.26	.78
재산과 수입을 같이 하는 사람들	3.46	1.09	3.48	1.09
같은 운명을 지닌 사람들	3.17	1.21	3.20	1.22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2.90	1.16	2.92	1.16

다음으로 가족의 의미로서 청소년과 학부모 표본 모두에서 높은 긍정응답률을 나타낸 세 항목(혈연공동체, 애정공동체, 생활공동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배경변인별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분석에 활용된 배경변인은 인구학적 특성(demographic characteristics)과 관련된 성별(남/녀), 교급(재학중인 학교; 중학생/고교생), 지역(거주지역; 서울/광역시/시군부)의 세 변인과, 가족특성과 관련된 계층(사회경제적 지위; 하/중/상), 가족 세대구성(3세대 가정/2세대 가정), 부모결손 여부(양친가정/결손가정), 부모 취업유형(한부모 취업/맞벌이), 형제유무(외동/형제있음)의 5가지 변인이다. 분석은 각 변인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혈연공동체로서의 가족

혈연공동체(“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로서의 가족개념에 대한 청소년들의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Ⅲ-2>와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긍정응답률을 나타내어 남자가 여자보다 혈연의식이 강하다는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어긋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지역별로는 광역시/시군부 청소년이 서울 청소년보다 긍정응답률이 다소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Ⅲ-2> 가족의 의미: 혈연공동체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4.44	.81	t= -4.62***
	여자	4.53	.72	
교급	중학생	4.50	.76	t= 1.39ns
	고교생	4.47	.77	
지역	서울	4.45	.78	F= 1.57ns
	광역시	4.50	.76	
	시군부	4.49	.77	
계층	하[a]	4.42	.81	F= 12.76***
	중[b]	4.50	.75	(a-b-c)
	상[c]	4.58	.73	
가족세대구성	3세대	4.46	.82	t= -1.58ns
	2세대	4.50	.75	
부모결손여부	양친가정	4.49	.76	t= 2.40*
	결손가정	4.36	.89	
부모취업유형	한부모취업	4.50	.75	t= .43ns
	맞벌이	4.49	.76	
형제유무	없다	4.38	.85	t= -3.42**
	있다	4.50	.75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과 부모결손 여부, 형제유무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계층위계상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혈연공동체로서의 가족개념에 대한 긍정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상/중/하의 세 집단간 차이가 뚜렷하였다. 또한 양친가정 청소년이 결손가정 청소년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높은 긍정응답률을 나타내었다. 부모/형제의 결손 또는 유무가 혈연집단으로서의 가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의 세대구성과 부모의 취업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족

생활공동체("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의 가족개념에 대한 청소년들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Ⅲ-3>과 같다.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교급별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긍정응답률이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청소년이 서울/시군부 청소년보다 긍정응답률이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 부모결손 여부, 형제유무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별로는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긍정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세 집단간 차이도 매우 뚜렷하였다. 또한 양친가정 청소년이 결손가정 청소년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긍정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양친이 모두 생존해 계시고 형제가 있는 경우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의 가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을 알 수 있다. 가족의 세대구성과 부모 취업유형별로는 하위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Ⅲ-3> 가족의 의미: 생활공동체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4.26	.94	t= .81^{ns}
	여자	4.24	.88	
교급	중학생	4.31	.92	t= 5.55***
	고교생	4.19	.90	
지역	서울	4.24	.89	F= .56^{ns}
	광역시	4.26	.92	
	시군부	4.24	.91	
계층	하^{a}	4.15	.94	F= 20.46***
	중^{b}	4.26	.90	(a-b-c)
	상^{c}	4.38	.86	
가족세대구성	3세대	4.25	.91	t= -.06^{ns}
	2세대	4.25	.91	
부모결손여부	양친가정	4.25	.90	t= 2.37*
	결손가정	4.12	1.00	
부모취업유형	한부모취업	4.25	.93	t= -.28^{ns}
	맞벌이	4.26	.89	
형제유무	없다	4.14	.96	t= -3.08**
	있다	4.26	.90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애정공동체로서의 가족

애정공동체(“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로서의 가족개념에 대한 청소년들의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Ⅲ-4>와 같다.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성별 차이만 유의미하였는데, 여자의 긍정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여자는 남자보다 가족 형성의 요인으로서 애정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급, 지역별 하위집단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과 부모결손 여부, 형제유무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별 차이는 세 하위집단간에 매우 뚜렷하여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긍정응답률이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양친가정 청

소년이 결손가정 청소년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애정공동체로서의 가족개념에 대해 긍정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 가족의 의미: 애정공동체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4.19	.84	t= -4.11***
	여자	4.27	.78	
교급	중학생	4.22	.82	t= -.40ns
	고교생	4.23	.81	
지역	서울	4.22	.82	F= .32ns
	광역시	4.24	.82	
	시군부	4.23	.81	
계층	하a	4.06	.90	F= 59.43***
	중b	4.26	.77	(a-b-c)
	상c	4.39	.76	
가족세대구성	3세대	4.19	.83	t= -1.95ns
	2세대	4.24	.81	
부모결손여부	양친가정	4.24	.80	t= 3.38**
	결손가정	4.03	.97	
부모취업유형	한부모취업	4.26	.80	t= 1.26ns
	맞벌이	4.23	.81	
형제유무	없다	4.17	.86	t= -2.02*
	있다	4.24	.81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나. 가족의 범위

가족은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말이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시대와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전통적으로 촌수가 가까운 부계혈연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지만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 및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이 포괄하는 범위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대상들을 제시하고 이들을 가족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은 혈연 또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가까운 친척 15개 항목, 먼 친척, 친구, 이웃, 애완동물 등 기타 4개 항목으로서, "가족으로 볼 수 있다" "가족으로 볼 수 없다" "잘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청소년/학부모 응답결과 비교

각 조사항목에 대하여 "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하 "긍정응답률")을 청소년과 학부모로 나누어서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Ⅲ-5>와 같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이 된 19개 항목 중에서 네 항목(형수/새언니, 매형/형부, 조카/질녀, 정이 든 이웃)을 제외하고는 청소년의 긍정응답률이 학부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부모세대에 비해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부모세대에 비해 주변의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연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가까운 친척들 중에서 청소년과 학부모간의 응답률 차이가 특히 현저한 항목(10% 이상)은 외사촌, 이모부, 외삼촌, 이모, 외숙모 등으로서 모두 모계(외가) 친척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부모세대와는 달리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출가외인(出嫁外人)으로 상징되는 부계 중심의 가족관이 점차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까운 친척 이외의 기타 항목 중에서는 애완동물에 대한 두 집단간의 차이가 현저하여, 애완동물을 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과반수를 상회하는 반면(57.7%), 학부모는 3할 수준(34.5%)에 머물렀다.

조사항목별 긍정응답률의 순위를 보면, 청소년의 경우 이모가 83.4%로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외삼촌(81.9%), 고모(81.7%)가 8할을 넘었고, 다음으로 백부·숙부(79.8%), 이모부(78.7%), 외숙모(78.6%), 백모·숙모(78.2%), 친사촌(78.0%), 고모부(77.5%), 조카/질녀(77.4%), 매형/형부 (74.0%), 외사촌

(71.2%), 형수/새언니(71.0%), 고종사촌(60.9%), 이종사촌(60.6%)의 순이었다. 가까운 친척 이외의 기타 항목들은 애완동물(57.7%)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먼 친척(49.9%), 친구(32.1%), 이웃(24.9%)의 순이었다.

학부모 표본의 긍정응답률 순위는 형수/새언니가 82.1%로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매형/형부(79.2%), 백부·숙부(79.0%), 조카/질녀(78.5%), 백모·숙모(77.5%), 고모(75.5%), 이모(72.7%), 외삼촌(71.1%), 고모부(69.9%), 친사촌(69.5%), 외숙모(68.0%), 이모부(67.2%), 외사촌(57.0%), 고종사촌(54.3%), 이종사촌(52.3%)의 순이었다. 가까운 친척을 제외한 기타 항목들은 먼 친척(38.5%), 애완동물(34.5%), 친구(27.5%), 이웃(24.9%)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이 백부·숙부보다는 외삼촌을, 고모보다는 이모를 보다 가까운 친척으로 여기고 있다. 이것은 한국 가족의 친인척 관계가 과거의 부계 중심에서 모계 중심으로 옮아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부계혈연에 기초한 촌락공동체의 붕괴와 더불어 직업 중심의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어머니 쪽 친척과의 접촉빈도가 증가하는 생태환경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남녀)형제의 배우자(형수/새언니, 매형/형부)와 그 자녀(조카/질녀)에 대한 응답결과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표본간에 현격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이들은 가까운 친척 15개 항목 중 가족으로 간주하는 긍정응답률의 순위에서 청소년 표본의 경우 하위권에 머문 반면(각각 13위, 11위, 10위), 학부모 표본에서는 모두 상위권(각각 1위, 2위, 4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과 학부모 세대의 성장환경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세대는 어려서부터 여러 형제들 사이에서 성장하고 손위형제가 결혼 후에도 부모와 동거하는 대가족적 문화에 친숙한 반면, 한 자녀 가구의 증가 및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자녀 세대는 형제의 배우자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부모세대에 비해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애완동물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응답결과의 차이를 통해 변화하는 가족관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애완동물을 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과반수(57.7%)에 달하여 먼 친척(49.9%)을 상회하였지만, 학부모는 애완동물(34.5%)보다 먼 친척의 긍정응답률(38.5%)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가족구성의 원리로서 부모세대는 여전히 혈연관계를 중시하고 있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애정과 관심이 혈연 못지 않게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Ⅲ-5> 가족의 범위: 가족으로 볼 수 있는 대상

(단위:%)

응답	청소년		학부모	
순위	조사항목	비율	조사항목	비율
1	이모	83.4	형수/새언니	82.1
2	외삼촌	81.9	매형/형부	79.2
3	고모	81.7	백부·숙부	79.0
4	백부·숙부	79.8	조카/질녀	78.5
5	이모부	78.7	백모·숙모	77.5
6	외숙모	78.6	고모	75.5
7	백모·숙모	78.2	이모	72.7
8	친사촌	78.0	외삼촌	71.1
9	고모부	77.5	고모부	69.9
10	조카/질녀	77.4	친사촌	69.5
11	매형/형부	74.0	외숙모	68.0
12	외사촌	71.2	이모부	67.2
13	형수/새언니	71.0	외사촌	57.0
14	고종사촌	60.9	고종사촌	54.3
15	이종사촌	60.6	이종사촌	52.3
16	오랫동안 길러온 애완동물	57.7	촌수는 멀지만 가깝게 지내는 친척	38.5
17	촌수는 멀지만 가깝게 지내는 친척	49.9	오랫동안 길러온 애완동물	34.5
18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32.1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27.5
19	오랫동안 서로 왕래하면서 정이든 이웃	24.0	오랫동안 서로 왕래하면서 정이든 이웃	24.9

친척유형별 비교: 청소년과 학부모

가족의 범위에 관한 응답결과를 보다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까운 친척에 속하는 조사항목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여 <표 Ⅲ-6>과 같이 새로운 변인을 구성하였다.

분류의 기준은 ① 아버지쪽 친척인가 아니면 어머니쪽 친척인가(부계친척/모계친척), ② 혈연에 의한 친척인가 아니면 혼인관계에 의한 친척인가(혈연친척/혼인친척), ③ 친척의 성별은 무엇인가(남자친척/여자친척)의 세가지로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총 6개의 하위 친척유형(변인)이 설정되었다. 친척유형 변인의 값은 각 유형에 속하는 친척항목 중 "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응답한 항목이 갯수(변량 1~4)를 활용하였다.

<표 Ⅲ-6> 조사대상 친척의 분류

구분	구성원			
부계(친가) 친척	백부·숙부	백모·숙모	고모	고모부
모계(외가) 친척	외삼촌	외숙모	이모	이모부
혈연관계 친척	백부·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혼인관계 친척	백모·숙모	고모부	외숙모	이모부
남자 친척	백부·숙부	고모부	외삼촌	이모부
여자 친척	백모·숙모	고모	외숙모	이모

친척유형 변인별 청소년과 학부모의 응답결과 평균값의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Ⅲ-7>과 같다. 전체적으로 모든 친척유형에 걸쳐 청소년의 점수가 부모세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청소년이 부모세대보다 가족으로 간주하는 친척의 범위가 더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이 부모세대보다 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앞서의 빈도분포 분석과 일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각 분류기준별로는 먼저 부계/모계친척 구분에서는 청소년은 부계친척보다는 모계친척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학부모와는 상반되는 태도를 나타

내고 있다. 즉, 부모세대 사이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부계 중심의 가족구성 원리가 일반화되어 있는 반면, 자녀세대는 아버지쪽보다는 어머니쪽 친척에 대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가족으로서의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혈연/혼인친척 구분에서는 청소년과 부모세대 모두 혼인을 통해 맺어진 친척보다는 혈연에 기초한 친척을 가깝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척의 성별 구분에 있어서도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남자 친척보다는 여자 친척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우리사회에서 부계/남성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관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세대 내부에서도 점진적으로 변화과정을 겪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Ⅲ-7> 가족의 범위 인식: 청소년과 학부모

	청소년		학부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계 친척	3.17	1.44	3.02	1.51
모계 친척	3.23	1.45	2.80	1.72
혈연관계 친척	3.27	1.35	2.99	1.52
혼인관계 친척	3.13	1.45	2.83	1.60
남자 친척	3.18	1.40	2.88	1.56
여자 친척	3.22	1.37	2.94	1.53

다음으로 각 친척항목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응답결과의 상관관계(Spearman's ρ)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8>과 같다. 전체적으로 모든 친척항목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가족의 범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자녀는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동성/이성부모와 자녀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먼저 부친과 남아의 상관관계 계수는 모든 친척항목에 걸쳐 .27 ~ .30의 분포를 보인 반면, 모친과 남아는 .16 ~ .20의 분포를 나타내어 부친-남아의 상관관계보다 다

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친과 여아의 친척항목별 상관관계 계수는 .19 ~ .22로서 부친-여아의 .23 ~ .25와 거의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가족범위의 인식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남자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부친이 모친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여자 청소년에 대한 부친, 모친의 영향력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가족 인식에 있어서 부친→자녀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부계의 영향력이 모계의 영향력(모친→자녀)보다 높은 수준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Ⅲ-8> 가족의 범위인식: 부모-자녀간 상관관계

	부친-남아	모친-남아	부친-여아	모친-여아
부계친척	.28***	.20***	.23***	.21***
모계친척	.27***	.16***	.23***	.21***
혈연친척	.30***	.19***	.23***	.20***
혼인친척	.28***	.18***	.24***	.21***
남자친척	.28***	.18***	.24***	.19***
여자친척	.30***	.20***	.24***	.22***
전체친척	.28***	.19***	.25***	.21***

* p< .05, ** p< .01, *** p< .001

부계친척/모계친척

다음으로 가족의 범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결과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분석에 활용된 배경변인은 인구학적 특성 변인(성별, 교급, 지역), 가족특성 변인(계층, 가족 세대구성, 부모결손 여부, 부모 취업유형, 형제유무) 등 두가지 유형의 8가지이다.

먼저 부계친척과 모계친척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Ⅲ-9>와 같다. 표에 나타난 수치는 각각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부계/모계친척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친척유형과의 접촉도나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계친척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보면,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성별,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광역시/시군부 청소년이 서울 청소년보다 가족으로 인식하는 부계친척의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교생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9> 가족의 범위인식: 부계친척과 모계친척

		부계친척		모계친척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14	1.46	3.15	1.52
	여자	3.21	1.42	3.31	1.37
		t= -2.09*		t= -4.86***	
교급	중학생	3.17	1.43	3.24	1.43
	고교생	3.18	1.45	3.22	1.46
		t= -.10ns		t= .54ns	
지역	서울a	3.07	1.52	3.19	1.46
	광역시b	3.18	1.44	3.22	1.46
	시군부c	3.20	1.42	3.25	1.43
		F= 3.29*(a-b/c)		F= .84ns	
계층	하a	3.02	1.51	3.03	1.57
	중b	3.23	1.41	3.29	1.40
	상c	3.27	1.38	3.34	1.35
		F= 13.10***(a-b/c)		F= 19.86***(a-b/c)	
가족세대 구성	3세대	3.15	1.45	3.16	1.51
	2세대	3.18	1.44	3.25	1.43
		t= -.75ns		t= -1.97*	
부모결손 여부	양친가정	3.19	1.43	3.24	1.44
	결손가정	2.90	1.65	2.97	1.62
		t= 2.79**		t= 2.60*	
부모취업 유형	한부모취업	3.22	1.39	3.27	1.40
	맞벌이	3.18	1.45	3.23	1.45
		t= 1.19ns		t= 1.11ns	
형제유무	없다	3.15	1.44	3.21	1.46
	있다	3.18	1.44	3.23	1.45
		t= -.51ns		t= -.38ns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 부모결손 여부 변인의 응답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하층과 비교하여 중/상층 청소년이, 결손가정 청소년보다는 양친가정 청소년이 가족으로 인식하는 부계친척의 범위가 더 넓었다. 2세대 가정이 3세대 가정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이 맞벌이 가정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모계친척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먼저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성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부계친척의 응답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보다 가족으로 인식하는 모계친척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지역별로는 시군부/광역시 청소년이 서울 청소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 가족 세대구성, 부모결손 여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위계상 중/상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하층 청소년보다 가족으로 인식하는 모계친척의 범위가 더 넓었다. 또한 2세대 가정이 3세대 가정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부부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정이 조부모와 동거하는 가정보다 어머니쪽 친척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양친가정 청소년이 결손가정 청소년보다 가족으로 인식하는 모계친척의 범위가 더 넓었다. 부모의 결손이 있을 경우 청소년들의 친척 접촉과 친밀도는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부모 취업유형, 형제유무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가족으로 인식하는 부계/모계친척의 범위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먼저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여자는 가족으로 인식하는 범위가 부계친척보다는 모계친척이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자는 남자보다 어머니쪽 친척과의 접촉도 또는 친밀도가 더 높은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급별, 지역별로는 모든 하위집단에 걸쳐 가족으로 인식하는 모계친척의 범위가 부계친척보다 더 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층별로는 하층은 부계/모계 친척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중/상층

은 모계친척의 점수가 부계친척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 세대구성에서는 모계친척과 부계친척의 점수 차이가 3세대 가정보다 2세대 가정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서의 2세대 가정 청소년이 3세대 가정 청소년보다 어머니쪽 친척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뒷받침하는 조사결과라 할 수 있다. 이밖에 부모결손 여부, 부모 취업유형, 형제유무별로는 하위집단간에 특징적인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혈연친척/혼인친척

혈연친척과 혼인친척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Ⅲ-10>과 같다. 먼저 혈연친척에 대한 청소년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여자가 남자에 비해 큰 격차를 두고 높은 점수를 나타냈었다. 중학생과 고교생의 점수는 동일하였고, 지역별로는 서울에 비해 광역시/시군부의 점수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족특성에서는 계층, 부모결손 여부 변인에서 하위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계층위계상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일수록 혈연으로 맺어진 친척간의 관계가 강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친가정 청소년의 점수가 결손가정 청소년과 비교하여 큰 격차를 두고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결손이 혈연으로 맺어진 친척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대구성별로는 2세대 가정이, 부모 취업유형별로는 한부모 취업 가정이, 형제유무별로는 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혼인친척에 대한 배경변인별 응답결과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앞서 혈연친척의 응답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여자가 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남자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급별로는 중/고교생간에 큰 차이가 없었고, 지역별로는 서울/광역시 청소년이 시군

부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Ⅲ-10> 가족의 범위인식: 혈연친척과 혼인친척

		혈연친척		혼인친척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19	1.41	3.09	1.47
	여자	3.35	1.29	3.18	1.42
		t= -4.79***		t= -2.44*	
교급	중학생	3.27	1.33	3.14	1.43
	고교생	3.27	1.37	3.13	1.47
		t= .07ns		t= .43ns	
지역	서울[a]	3.21	1.41	3.05	1.52
	광역시[b]	3.27	1.36	3.14	1.45
	시군부[c]	3.29	1.33	3.16	1.43
		F= 1.57ns		F= 2.20ns	
계층	하[a]	3.11	1.45	2.95	1.54
	중[b]	3.33	1.32	3.20	1.41
	상[c]	3.36	1.28	3.24	1.37
		F= 16.40***(a-b/c)		F= 18.18***(a-b/c)	
가족세대 구성	3세대	3.22	1.38	3.08	1.47
	2세대	3.28	1.35	3.15	1.44
		t= -1.40ns		t= -1.53ns	
부모결손 여부	양친가정	3.28	1.35	3.14	1.44
	결손가정	3.01	1.50	2.86	1.59
		t= 2.83**		t= 2.81**	
부모취업 유형	한부모취업	3.32	1.29	3.18	1.41
	맞벌이	3.27	1.37	3.14	1.45
		t= 1.39ns		t= 1.02ns	
형제유무	없다	3.24	1.35	3.11	1.45
	있다	3.27	1.36	3.13	1.45
		t= -.55ns		t= -.33ns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가족특성에서는 계층, 부모결손 여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계층위계상 하층보다는 중/상층 청소년의 점수가 더 높은 수준이었고 이것은 앞서의 혈연친척의 응답결과와도 일치한다. 부모결손 여부별로는 양친가정 청소년의 점수가 결손가정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결손이 혈연으로 맺어진 친척뿐 아니라 혼인관계에 의한 친척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2세대 가정이 3세대 가정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이 맞벌이 가정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다음으로 가족으로 인식하는 혈연/혼인친척의 범위를 비교한 결과 조사대상이 된 8개의 배경변인의 모든 하위집단에서 혈연친척의 점수가 혼인친척과 비교하여 상당한 격차를 두고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부계/모계친척의 구분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반면, 혈연을 통한 친척인가 아니면 혼인관계로 맺어진 친척인가의 구분은 친척간 접촉과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자친척/여자친척

남자/여자친척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정리하면 <표 Ⅲ-11>과 같다. 표에 나타난 점수는 각각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친척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친척집단과의 접촉도와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남자친척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인구학적 특성 변인 중에서는 성별에서만 의미있는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교급별로 중학생과 고교생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지역별로는 광역시/시군부가 서울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표 Ⅲ-11> 가족의 범위인식: 남자친척과 여자친척

		남자친척		여자친척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13	1.44	3.16	1.42
	여자	3.24	1.36	3.29	1.31
		t= -3.19**		t= -4.08***	
교급	중학생	3.19	1.38	3.23	1.35
	고교생	3.18	1.42	3.22	1.39
		t= .25ns		t= .29ns	
지역	서울	3.11	1.46	3.15	1.43
	광역시	3.18	1.41	3.22	1.38
	시군부	3.21	1.38	3.24	1.35
		F= 1.79ns		F= 2.01ns	
계층	하[a]	3.01	1.49	3.05	1.47
	중[b]	3.24	1.37	3.28	1.33
	상[c]	3.29	1.32	3.31	1.30
		F= 17.32***(a-b/c)		F= 17.95***(a-b/c)	
가족세대 구성	3세대	3.14	1.42	3.17	1.40
	2세대	3.19	1.40	3.24	1.36
		t= -1.33ns		t= -1.60ns	
부모결손 여부	양친가정	3.19	1.40	3.23	1.36
	결손가정	2.91	1.56	2.97	1.52
		t= 2.89**		t= 2.77**	
부모취업 유형	한부모취업	3.23	1.35	3.27	1.31
	맞벌이	3.19	1.41	3.22	1.38
		t= 1.17ns		t= 1.24ns	
형제유무	없다	3.17	1.40	3.19	1.37
	있다	3.18	1.40	3.22	1.37
		t= -.24ns		t= -.66ns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 부모결손 여부별 하위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계층위계상 중/상층 청소년이 하층 청소년과 비교하여 큰 격차를 두고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양친이 모두 있는 청소년이 결손가정 청소년에 비해 가족으로 인식하는 남자친척의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세대 가정이 3세대 가정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이 맞벌이 가정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여자친척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검토해 보면,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남자친척의 응답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자의 점수가 남자와 큰 격차를 두고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하위집단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지역별로는 광역시/시군부 청소년의 점수가 서울 청소년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과 부모결손 여부 변인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위계상 중/상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점수가 하층 청소년에 비해 높았으며, 양친이 모두 있는 청소년이 결손가정 청소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밖에 2세대 가정이 3세대 가정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이 맞벌이 가정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다음으로 배경변인별 남자친척과 여자친척의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어떤 성별의 친척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분석대상이 된 모두 8개 변인의 하위집단별 점수의 차이를 검토한 결과, 모든 하위집단에서 여자친척의 점수가 남자친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것은 성, 계층, 지역, 가족특성 등 의 차이와는 관계 없이 모든 유형의 청소년들이 남자친척보다는 여자친척과 더 자주 접촉하고 높은 친밀감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가족의식·가치관

한국사회에서 가족의식/가치관은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지만, 조사연구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한 척도는 드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하여 가족의식/가치관 관련 선행연구의 조사문항과 척도들을 검증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가부장의식, 성역할관, 효의식, 부모부양의식, 제도적 가족관의 5개 척도를 새롭게 구성하여 조사에 활용하였다.

가부장의식은 가장으로서의 남성의 권위와 가계의 부계 계승에 대한 태도를, 성역할관은 전통적인 남녀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효의식은 자녀는 매사를 부모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관념을, 부모부양의식은 연로한 부모님을 정신적·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봉양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적 가족관은 결혼/이혼/자녀출산 등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관련한 신념과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 4~6개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되며 척도점수가 점수가 낮을수록 진보적, 높을수록 보수적인 태도로 해석될 수 있도록 재부호화하였다.

가족의식의 각 하위요인별 청소년과 학부모의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Ⅲ-12>와 같다. 가족의식의 하위영역 중 부모부양의식을 제외한 나머지 네 영역에서 부모세대가 청소년들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부장의식과 성역할관에 있어서 부모-자녀세대간 차이는 매우 현저하였다. 효의식과 제도적 가족관에서는 세대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부모세대가 보다 보수적이었다. 유일하게 부모부양의식은 청소년이 부모세대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아야할 부모세대의 자녀에 대한 배려와 현실적인 고려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섯가지 하위영역별 점수를 합산(평균값)한 전체 점수에서도 부모세대가 청소년들보다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청소년과 비교하여 부모세대가 보수

적인 가족의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Ⅲ-12> 가족의식: 청소년과 학부모

	청소년		학부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족의식(전체)	2.80	.52	2.97	.47
가부장의식	2.40	.99	2.78	.90
성역할관	2.03	.93	2.39	.85
부모부양의식	3.74	.73	3.63	.70
효의식	2.80	.73	2.87	.69
제도적 가족관	3.03	.74	3.19	.70

가족의식의 세대간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과 학부모의 영역별 가족의식의 상관관계(Pearson's r)를 산출한 결과 다음의 <표 Ⅲ-13>과 같이 나타났다.

<표 Ⅲ-13> 가족의식의 부모-자녀간 상관관계

	부모-자녀	부친-남아	모친-남아	부친-여아	모친-여아
가족의식(전체)	.23***	.18***	.17***	.13***	.27***
가부장의식	.23***	.19***	.16***	.18***	.25***
성역할관	.23***	.19***	.21***	.15***	.24***
부모부양의식	.15***	.19***	.12***	.16***	.13***
효의식	.21***	.22***	.14***	.16***	.23***
제도적 가족관	.19***	.16***	.21***	.13***	.24***

* p< .05, ** p< .01, *** p< .001

먼저 전체 가족의식의 세대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는 부모의 가족의식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자녀세대간 성별 영향관계를 보면, 청소년의 성별로 다소 상이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즉, 남자 청소년과 부친/모친간의 상관관계는 거의 차이가 없

는 반면, 모친과 여자 청소년의 상관관계가 부친-여자 청소년의 상관관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족의식의 측면에서 남자 청소년에 대한 부친과 모친의 영향력은 거의 대등한 수준이지만, 여자 청소년에 대해서는 모친의 영향력이 부친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 가부장의식

다음으로 가족의식의 5개 하위영역별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가부장의식에 대한 청소년들의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는 <표 Ⅲ-14>와 같다. 인구학적 배경에서는 분석대상이 된 세 변인 모두 하위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보수적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시군부에 비해 광역시 청소년들이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전통적인 가족의식이 약화될 것이라는 사회통념과는 달리 광역시 청소년들의 가부장의식이 서울은 물론 시군부 청소년들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인구학적 특성의 세 변인 중 특히 성별 차이가 가장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특성과 관련된 변인 중에서는 계층과 가족 세대구성, 부모 취업유형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위계상 상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중/하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부장의식을 나타내었다. 또한 3세대 가정 청소년들이 2세대 가정 청소년들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동거하고 있는 조부모님의 영향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부모 취업유형별로는 맞벌이 가정 청소년이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보다 가부장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결손 여부와 형제유무는 청소년들의 가부장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Ⅲ-14> 가부장의식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2.74	.94	t= 31.10***
	여자	2.05	.91	
교급	중학생	2.46	.99	t= 4.57***
	고교생	2.35	.98	
지역	서울[a]	2.32	.98	F= 15.10***
	광역시[b]	2.49	1.00	(a/c-b)
	시군부[c]	2.36	.98	
계층	하[a]	2.40	.99	F= 4.72**
	중[b]	2.37	.96	(b/a-c)
	상[c]	2.47	1.08	
가족세대구성	3세대	2.53	1.01	t= 5.02***
	2세대	2.37	.98	
부모결손여부	양친가정	2.40	.99	t= -.75ns
	결손가정	2.44	.98	
부모취업유형	한부모취업	2.36	.97	t= -2.13*
	맞벌이	2.41	1.00	
형제유무	없다	2.41	1.05	t= .32ns
	있다	2.40	.98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나. 성역할관

전통적인 성역할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Ⅲ-15>와 같다. 인구학적 배경에서는 성별, 교급, 지역의 세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지역별로는 광역시 청소년들이 서울, 시군부 청소년들보다 전통적인 성역할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 가족 세대구성, 부모 취업유형, 형제유무의 네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위계상 상층이 중/하층보다, 3세대 가정이 2세대 가정보다, 맞벌이 가정이 한부모 취업 가정보다, 외동 청소년이 형제가 있는 청소년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외동

청소년들이 형제가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보수적인 성역할관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는데, 이것은 가정에서 평소에 남녀형제들과 함께 가사일을 분담하는 훈련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12]. 양친가정과 결손가정 청소년들간에는 성역할관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15> 성역할관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2.40	.92	t= 34.47***
	여자	1.65	.78	
교급	중학생	2.07	.96	t= 2.70**
	고교생	2.00	.91	
지역	서울[a]	1.96	.90	F= 12.65***
	광역시[b]	2.11	.95	(a/c-b)
	시군부[c]	2.00	.92	
계층	하[a]	2.02	.93	F= 4.81**
	중[b]	2.00	.90	(b/a-c)
	상[c]	2.10	1.03	
가족세대구성	3세대	2.17	.99	t= 5.65***
	2세대	2.00	.92	
부모결손여부	양친가정	2.03	.93	t= -1.94ns
	결손가정	2.14	.93	
부모취업유형	한부모취업	1.99	.90	t= -1.97*
	맞벌이	2.04	.94	
형제유무	없다	2.15	1.00	t= 3.08**
	있다	2.02	.92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12] 한 자녀 가구의 경우 남아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비의 불균형이 응답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가정할 수도 있지만, 본 조사에서 외동 자녀의 비율이 남자가 10.8%(380명), 여자가 8.1%(276명)으로서 큰 차이가 없었다.

다. 부모부양의식

부모님 부양의식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Ⅲ-16>과 같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별, 교급, 지역의 세 변인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자가 여자보다,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광역시 청소년이 서울/시군부 청소년에 비해 부모부양의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표 Ⅲ-16> 부모 부양의식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75	.74	t= 1.35^{ns}
	여자	3.73	.72	
교급	중학생	3.73	.74	t= -.60^{ns}
	고교생	3.74	.73	
지역	서울^{a}	3.73	.73	F= .60^{ns}
	광역시^{b}	3.75	.72	
	시군부^{c}	3.73	.74	
계층	하^{a}	3.72	.75	F= 8.28***
	중^{b}	3.73	.71	(a/b-c)
	상^{c}	3.82	.76	
가족세대구성	3세대	3.69	.74	t= -2.80**
	2세대	3.75	.73	
부모결손여부	양친가정	3.74	.73	t= -.10^{ns}
	결손가정	3.75	.86	
부모취업유형	한부모취업	3.74	.71	t= -.19^{ns}
	맞벌이	3.74	.73	
형제유무	없다	3.69	.80	t= -1.68^{ns}
	있다	3.75	.72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 가족 세대구성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위계상 상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중/하층 청소년들에 비해 부양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중/하층 청소년들

의 부모님 부양의식이 상층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 능력과 같은 현실적인 고려가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 가족의 세대구성별로는 2세대 가정의 청소년들이 3세대 가정 청소년들보다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님이 조부모님을 부양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성장한 3세대 가정 청소년이 2세대 가정 청소년보다 부양의식이 낮게 나타난 점이 주목되는데, 가정환경 등을 고려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친가정과 결손가정, 한부모 취업 가정과 맞벌이 가정 청소년들의 부양의식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고, 형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외동 청소년보다 부양의식이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라. 효의식

효의식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Ⅲ-17>과 같다.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교급, 지역 세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지역별로는 광역시/시군부 청소년들의 효의식이 서울 청소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가족특성별로는 계층과 가족 세대구성, 부모 취업유형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계층위계상 상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중/하층 청소년들에 비해, 3세대 가정 청소년들이 2세대 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맞벌이 가정 청소년들이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효의식을 나타내었다. 3세대 가정의 경우 청소년들의 부모부양의식은 2세대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효의식은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만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에 복종하는 태도(효의식)가 반드시 노후의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봉양하고 모시려는 의식(부모부양의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가정환경 등 부모님 부양과 관련된 다른 요인들을 고려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17> 효의식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2.94	.75	t= 16.52***
	여자	2.66	.67	
교급	중학생	2.92	.75	t= 11.91***
	고교생	2.71	.70	
지역	서울[a]	2.72	.75	F= 9.28***
	광역시[b]	2.84	.73	(a-c/b)
	시군부[c]	2.80	.72	
계층	하[a]	2.75	.72	F= 17.56***
	중[b]	2.78	.70	(a/b-c)
	상[c]	2.91	.83	
가족세대구성	3세대	2.88	.76	t= 4.06***
	2세대	2.79	.72	
부모결손여부	양친가정	2.80	.73	t= -.64ns
	결손가정	2.83	.77	
부모취업유형	한부모취업	2.76	.71	t= -2.49*
	맞벌이	2.81	.74	
형제유무	없다	2.80	.77	t= -.08ns
	있다	2.80	.73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마. 제도적 가족관

제도적 가족관은 결혼/이혼/자녀출산 등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관련한 신념과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점수가 낮을수록 진보적, 높을수록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도적 가족관 척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Ⅲ-18>과 같다.

<표 Ⅲ-18> 제도적 가족관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18	.72	t= 17.74***
	여자	2.88	.72	
교급	중학생	3.21	.71	t= 5.93***
	고교생	3.18	.70	
지역	서울[a]	3.14	.72	F= 10.24***
	광역시[b]	3.22	.69	(a-c-b)
	시군부[c]	3.19	.70	
계층	하[a]	3.20	.70	F= 2.46ns
	중[b]	3.21	.69	
	상[c]	3.18	.75	
가족세대구성	3세대	3.18	.70	t= 1.53ns
	2세대	3.20	.70	
부모결손여부	양친가정	3.20	.70	t= -.02ns
	결손가정	3.15	.63	
부모취업유형	한부모취업	3.05	.72	t= .97ns
	맞벌이	3.03	.74	
형제유무	없다	3.12	.76	t= -.77ns
	있다	3.20	.70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인구학적 특성별로는 성별, 교급별, 지역별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지역별로는 세 지역간 차이가 두드러져서 광역시 청소년들이 가장 보수적인 한편 서울 청소년들이 가장 진보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결혼/이혼/자녀출산 등과 관련한 가족관에서 도시 주민이 농촌보다 진보적인 의식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울 지역 청소년들이 가장 진보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은 예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대도시에 속하는 광역시 청소년들이 시군부 청소년보다 더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은 주목할만한 점으로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가족특성별로는 양친가정 청소년이 결손가정 청소년보다, 형제가 있는 청

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계층, 가족 세대구성, 부모 취업유형별 하위집단간에는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가정생활만족도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현재의 가정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고 있는지 단계별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양자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 .26, p< .001)를 나타내어 상호영향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9> 가정생활 만족도: 청소년과 학부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청소년	6797	4.93	1.48
학부모	3944	4.85	1.27

가정생활 만족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Ⅲ-20>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중학생과 고교생의 만족도는 같은 수준이었고 지역별로는 광역시 청소년의 만족도가 서울/시군부에 비해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족특성과 관련된 5개 변인에서는 하위집단별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계층위계상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증가하여 하층이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상층이 가장 높았고, 세 집단간 차이는 큰 격차를 두고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족구성에 있어서는 2세대 가정이 3세대 가정보다, 양친가정 청소년이 결손가정 청소년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자신의 가정생활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한편, 한부모 취업 가정이 맞벌이 가정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맞벌이 가정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접촉·대화시간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20> 가정생활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4.98	1.48	t= 3.16**
	여자	4.87	1.47	
교급	중학생	4.93	1.51	t= -.03ns
	고교생	4.93	1.46	
지역	서울	4.94	1.50	F= .30ns
	광역시	4.94	1.45	
	시군부	4.91	1.50	
계층	하[a]	4.28	1.59	F= 254.19***
	중[b]	5.00	1.36	(a-b-c)
	상[c]	5.53	1.35	
가족세대구성	3세대	4.85	1.45	t= -2.07*
	2세대	4.95	1.48	
부모결손여부	양친가정	4.94	1.47	t= 2.13*
	결손가정	4.71	1.69	
부모취업유형	한부모취업	5.04	1.44	t= 3.52***
	맞벌이	4.90	1.48	
형제유무	없다	4.81	1.50	t= -2.19*
	있다	4.94	1.48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4. 요약

가족의 의미

가족의 의미를 설명하는 여섯가지의 정의를 제시하고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의미에 대하여 청소년과 학부모는 모두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 “같이 사는 사람들”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순으로 응답하여 부모-자녀세대 모두 가족을 “혈연공동체” “생활공동체” “애정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혈연과 주거를 같이 하는 단위로서의 가족 개념은 전통사회에서부터 유지되어온 보편적인 가족의 정의라고 할 수 있지만, 이와 더불어 애정공동체로서의 가족이 중시되고 있는 것은 세대를 불문하고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식의 한 단면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가족의 의미에 대한 청소년들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혈연공동체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은 모든 집단에 공통적이지만, 생활공동체와 애정공동체의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은 집단별 차이가 뚜렷하였다. 여자와 고교생, 계층위계상 상층에 속하는 청소년들, 형제가 없는 외동 청소년들은 생활공동체보다는 애정공동체로서의 가족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가족의 범위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전통적으로 촌수가 가까운 부계혈연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지만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 및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이 포괄하는 범위는 점차 다양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인척 및 친구/이웃/애완동물 등 19가지의 항목을 제시하고 이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친인척의 순위에서 세대간의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긍정응답률이 높은 상위 5개 항목을 제시하면, 청소년은 이모를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간주하였고 이어서, 외삼촌, 고모, 백부·숙부, 이모부의 순서인 반면, 학부모는 형수/새언니, 매형/형부, 백부·숙부, 조카/질녀, 백모·숙모의 순으로 나타나 한 항목(백부·숙부)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이 서로 불일치하였다.

둘째, 청소년들은 부모세대보다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친인척의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가족개념이 부계/혈연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관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접촉과 친밀감을 중시하는 생활 중심의 가족관으로 옮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애완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과반수에 달하는 반면(57.7%), 학부모는 3할 수준(34.5%)에 머문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부계/모계친척에 대한 태도에서 세대간 차이가 뚜렷하였다. 청소년은 모계친척을 부계친척보다 가깝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세대와 상반되는 태도를 나타내었다.

넷째, 친척의 성별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세대 모두 남자친척보다는 여자친척을 가깝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부계/남성 중심의 가족관이 세대를 불문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부모세대의 경우 친척관계에서 부계 중심의 관념은 유지되고 있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혈연/혼인친척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과 부모세대가 일치하였다. 즉, 청소년과 학부모는 모두 혼인을 통해 맺어진 친척보다는 혈연에 기초한 친척을 보다 가깝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가족범위의 인식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남자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부친이 모친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여자 청소년에 대한 부친과 모친의 영향력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가족 인식에 있어서 부친→자녀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부계의 영향력이 모계의 영향력(모친→자녀)보다 높은 수준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의식·가치관

가족의식을 가부장의식, 성역할관, 효의식, 부모부양의식, 제도적 가족관의 다섯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고 청소년과 학부모 및 청소년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은 부모세대와 비교하여 보다 개방적인 가족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식의 하위영역 중 부모부양의식을 제외한 나머지 네 영역에서 부모세대가 청소년들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가부장의식과 성역할관에 있어서 부모-자녀세대간 차이는 매우 현저하였다. 효의식과 제도적 가족관에서는 세대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부모세대가 보다 보수적이었다. 부모부양의식은 청소년이 부모세대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아야할 부모세대의 자녀에 대한 배려와 현실적인 고려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섯가지 하위영역별 점수를 합산한 전체 점수에서도 부모세대가 청소년들보다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청소년과 비교하여 부모세대가 보수적인 가족의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과 학부모의 가족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자녀는 부모의 가족의식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세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자녀의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과 부친/모친간의 상관관계는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모친과 여자 청소년의 상관관계가 부친-여자 청소년의 상관관계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이것은 가족의식의 측면에서 남자 청소년에 대한 부친과 모친의 영향력은 거의 대등한 수준이지만, 여자 청소년에 대해서는 모친의 영향력이 부친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가족의식은 하위집단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부모부양의식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영역에서 개방적·진보적인 태도를 나타내었고, 특히 가부장의식과 성역할관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매우 현격한 수준이었다. 계층별 가족의식의 차이도 뚜렷하여 제도적 가족관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중/상층 청

소년이 하층 청소년보다 진보적인 가족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세대구성별로는 3세대 가정 청소년이 2세대 가정 청소년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동거하고 있는 조부모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맞벌이 가정 청소년이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과 비교하여 가부장의식과 성역할관, 효의식의 측면에서, 외동 청소년이 형제가 있는 청소년에 비해 성역할관의 측면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가정생활만족도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현재의 가정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생활 만족도의 세대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서 상호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가족 특성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성별에서만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만족도가 높았는데,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분석대상이 된 5개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위계상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증가하여 하층이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상층이 가장 높았고, 세 집단간 차이는 큰 격차를 두고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2세대 가정이 3세대 가정보다, 양친가정이 결손가정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이 맞벌이 가정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현재의 가정생활에 보다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가족기능 · 가족관계

1. 가족기능
2. 부모의 양육태도
3. 부모-자녀 의사소통
4. 세대간 결속감
5. 요약

Ⅳ. 가족기능·가족관계

이 장에서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의 두가지 측면에서 가족의 기능적 특성을 조사한 뒤 청소년과 학부모의 응답결과를 비교하였고, 가정내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생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식과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서 느끼는 세대간 결속감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1.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Olson, Porter, & Lavee(1985)의 FACES-Ⅲ를 우리 실정에 맞게 번안한 김윤희(1989)의 척도에 기초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한 간이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Likert척도의 10개 문항으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의 두 개의 하위요인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은 가족구성원들간의 정서적 유대감의 정도를, 가족적응성(family adaptability)은 가족이 내부 또는 외부의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높은 가족은 건강한 가족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족기능에 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표 Ⅳ-1>과 같다.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척도 모두에서 학부모가 청소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학부모가 가족기능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 가족기능: 청소년과 학부모

	청소년		학부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족응집성	3.63	.80	3.86	.71
가족적응성	2.95	.83	3.07	.74

가족기능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 응답결과의 상관관계(Pearson's r)를 보면 가족응집성(r= .34, p< .001), 가족적응성(r= .20, p< .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부모와 자녀의 평가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응집성 척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Ⅳ-2>와 같다.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가족응집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지역별로는 광역시/시군부 청소년이 서울 청소년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세대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네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위계상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자기 가족의 응집성을 높게 평가하였고 상/중/하의 세 집단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양친가정 청소년이 결손가정 청소년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이 맞벌이 가정 청소년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가족의 응집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가족 세대구성에서는 2세대 가정 청소년의 가족응집성 점수가 3세대 가정 청소년보다 다소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Ⅳ-2> 가족응집성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65	.80	2.92	.86
	여자	3.61	.81	2.98	.79
		t=1.94^{ns}		t=-3.11**	
교급	중학생	3.67	.80	3.00	.83
	고교생	3.59	.81	2.91	.82
		t=4.04***		t=4.42***	
지역	서울	3.59	.82	2.95	.82
	광역시	3.65	.79	2.94	.83
	시군부	3.63	.81	2.95	.82
		F=1.46^{ns}		F=.29^{ns}	
계층	하^{a}	3.36	.83	2.80	.82
	중^{b}	3.66	.76	2.96	.80
	상^{c}	3.89	.79	3.12	.89
		F=150.84***(a-b-c)		F=47.58***(a-b-c)	
가족세대 구성	3세대	3.61	.81	2.99	.84
	2세대	3.64	.80	2.94	.82
		t=-.83^{ns}		t=1.83^{ns}	
부모결손 여부	양친가정	3.64	.80	2.95	.83
	결손가정	3.48	.90	2.86	.85
		t=2.71**		t=1.65^{ns}	
부모취업 유형	한부모취업	3.67	.78	2.93	.81
	맞벌이	3.62	.80	2.97	.83
		t= 2.50*		t= -1.62^{ns}	
형제유무	없다	3.55	.85	2.96	.84
	있다	3.64	.80	2.95	.82
		t=-2.39*		t=.36^{ns}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가족적응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표 Ⅳ-2>)를 보면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교급별 변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자가 남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자기 가정의 적응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지역별 하위집단간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별 하위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가족적응성을 높게 평가하였고 세 집단간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밖에 3세대 가정 청소년이 2세대 가정 청소년보다, 양친가정 청소년이 결손가정 청소년보다, 맞벌이 가정 청소년이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보다 자기 가정의 적응성을 높게 평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2. 부모의 양육태도

Buri(1991)의 부모권위척도(PAQ)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문항은 민주적/권위적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여기서 민주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지도함에 있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지만 따뜻하고 합리적이며 일관적인 방식을 취하는 태도를, 권위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들의 행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태도를 의미한다(이현주, 강민희, 2008, p.7).

부친/모친의 양육태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민주적 양육태도의 점수는 모친이 3.69로서 부친(3.55)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권위적 양육태도의 점수는 양친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지도에 있어서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엄부자모"(嚴父慈母)의 이미지가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3> 부모의 양육태도: 부친/모친 비교

	민주적 양육태도		권위적 양육태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양친	3.62	.74	3.04	.82
부친	3.55	.84	3.06	.87
모친	3.69	.76	3.02	.84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세대의 양육태도는 같은 방향으로 서로 일치할 수도 있고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다를 수도 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평가한 부친과 모친의 두가지 유형의 양육태도 점수의 상관관계(Pearson's r)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유형의 양육태도의 상관관계가 서로 상이한 유형의 상관관계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중 한 사람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지도한다면 그 배우자도 권위주의

적 방식보다는 민주적으로 지도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앞서의 응답결과와 종합하면 한국사회에서 부모세대의 자녀양육방식은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친보다는 모친이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표 Ⅳ-4> 부모의 양육태도: 부친-모친 상관관계

부친	모친	상관계수
민주적	민주적	.74***
	권위적	-.05***
권위적	민주적	-.06***
	권위적	.82***

* p< .05, ** p< .01, *** p< .001

민주적 양육태도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점수에 대한 청소년 하위집단별 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Ⅳ-5>와 같다.

먼저 부친의 경우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교급별로만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중학생의 점수가 고교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친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자녀에 대하여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지도함을 알 수 있다. 성별, 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특성에서는 계층과 부모결손 여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별 하위집단의 차이는 매우 뚜렷하였는데, 하층에서 중간층,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부친의 양육태도 점수가 증가하였고 그 격차도 높은 수준이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일수록 부친은 자녀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친가정의 부친이 모친이 없는 가정의 부친보다 자녀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가족 세대구성, 부모 취업유형, 형제유무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5> 부친/모친의 민주적 양육태도

		부친		모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56	.84	3.70	.76
	여자	3.53	.83	3.69	.75
		t= 1.80^{ns}		t= .51^{ns}	
교급	중학생	3.57	.83	3.69	.78
	고교생	3.52	.84	3.70	.74
		t= 2.52*		t= -1.78^{ns}	
지역	서울	3.54	.84	3.69	.76
	광역시	3.55	.84	3.69	.76
	시군부	3.55	.84	3.69	.76
		F= .01^{ns}		F= .01^{ns}	
계층	하^{a}	3.29	.87	3.52	.78
	중^{b}	3.59	.79	3.72	.72
	상^{c}	3.74	.83	3.88	.75
		F= 106.02***(a-b-c)		F= 74.71***(a-b-c)	
가족세대 구성	3세대	3.54	.84	3.66	.79
	2세대	3.55	.83	3.70	.75
		t= -.36^{ns}		t= -1.63^{ns}	
부모결손 여부	양친가정	3.55	.83	3.70	.75
	결손가정	3.30	.97	3.50	.91
		t= 3.89***		t= 3.35**	
부모취업 유형	한부모취업	3.57	.82	3.70	.74
	맞벌이	3.55	.83	3.71	.75
		t= .91^{ns}		t= -.21^{ns}	
형제유무	없다	3.55	.88	3.67	.83
	있다	3.54	.87	3.70	.75
		t= .22^{ns}		t= -.94^{ns}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모친의 경우에는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부친의 경우와 동일하게 계층, 부모결손 여부 변인의 하위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계층위계상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모친의 민주적 양육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양친가

정의 모친이 부친이 없는 가정의 모친보다 자녀에 대해서 보다 민주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한편 2세대 가정 청소년이 3세대 가정 청소년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보다 민주적인 것으로 평가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를 종합해 보면 계층적으로 하층보다는 상층 가정의 부모가, 또한 부부가 모두 생존해 있는 가정이 결손가정보다 자녀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하위집단별 부친과 모친의 민주적 양육태도 점수를 비교해 보면, 모든 변인에서 모친의 점수가 부친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자녀의 인구학적 특성, 가족 특성과는 관계 없이 모친은 부친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권위적 양육태도

부친/모친의 권위적 양육태도에 대한 청소년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Ⅳ-6>과 같다.

부친의 경우, 인구학적 변인에서 성별, 교급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부친의 양육태도를 보다 권위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군부에 비해 광역시 청소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가족 세대구성과 부모결손 여부에 따른 하위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2세대보다는 3세대 가정 청소년이, 결손가정보다는 양친가정의 청소년이 부친의 양육태도를 보다 권위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계층, 부모 취업유형, 형제유무 변인에서는 하위집단간 응답결과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모친의 권위적 양육태도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별 응답결과는 성별, 교급, 지역의 세 변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광역시 청소년이 시군부 청소년보다 모친의 양육태도를 보다 권위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Ⅳ-6> 부친/모친의 권위적 양육태도

		부친		모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14	.86	3.10	.84
	여자	2.97	.87	2.93	.84
		t= 7.94***		t= 8.46***	
교급	중학생	3.11	.86	3.10	.84
	고교생	3.01	.88	2.96	.84
		t= 4.82***		t= 6.89***	
지역	서울[a]	3.04	.89	3.03	.86
	광역시[b]	3.09	.85	3.06	.82
	시군부[c]	3.04	.88	2.99	.85
		F= 2.71ns		F= 4.11*(c/a-a/b)	
계층	하[a]	3.09	.87	3.04	.83
	중[b]	3.05	.86	3.01	.83
	상[c]	3.09	.92	3.05	.88
		F= 2.06ns		F= 1.39ns	
가족세대 구성	3세대	3.10	.89	3.06	.87
	2세대	3.05	.87	3.01	.83
		t= 2.07*		t= 1.96*	
부모결손 여부	양친가정	3.06	.87	3.03	.84
	결손가정	2.91	.90	2.86	.90
		t= 2.62**		t= 2.90**	
부모취업 유형	한부모취업	3.06	.86	3.03	.83
	맞벌이	3.06	.88	3.02	.84
		t= -.24ns		t= .27ns	
형제유무	없다	3.67	.83	3.05	.88
	있다	3.06	.87	3.02	.84
		t= -.04ns		t= 1.12ns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가족특성별로는 부친과 마찬가지로 가족 세대구성, 부모결손 여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3세대 가정 청소년이 2세대 가정 청소년보다, 양친가정 청소년이 모친만 있는 가정 청소년보다 모친의 양육태도를 보다 권위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계층, 부모 취업유형, 형제유무별로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권위적 양육태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종합해 보면, 양친 모두 여아보다는 남아에 대해서, 고교생 자녀보다는 중학생 자녀에 대해서 보다 권위적인 태도로 자녀를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세대 가정이 2세대 가정보다, 양친가정이 결손가정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보다 권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결손가정과 비교하여 양친가정이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권위적 양육태도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두가지 양육태도가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부모의 특성과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상호보완적으로 병행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하위집단별 부친과 모친의 권위적 양육태도 점수를 비교해 보면, 모든 변인에서 부친의 점수가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민주적 양육태도와는 달리 권위적 양육태도에 있어서는 부친과 모친간의 점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었다.

3.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정에서 부모-자녀간에 어느 정도 원만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Olson & Barnes(1982)의 PAC(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척도를 활용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간이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의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의 감정과 정보교환이 솔직하고 자유로우며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간의 이해와 만족도가 높은 형태를, 문제형 의사소통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을 회피하거나 선택적으로 할 뿐 아니라 의사소통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갖고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부친/모친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는 <표 Ⅳ-7>과 같다. 개방형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모친이 부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한편,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는 부친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가정내에서 부친보다는 모친과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Ⅳ-7> 의사소통 유형별 부친/모친 비교

	개방형 의사소통		문제형 의사소통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친	3.23	.90	2.88	.80
모친	3.49	.86	2.85	.79
양친	3.36	.83	2.86	.76

가정에서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서 부친과 모친의 상호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이 평가한 부친과 모친의 두가지 의사소통 방식 점수의 상관관계(Pearson's r)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유형의 의사소통 방식간에는 정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상이한 유형의

의사소통 방식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부친과의 개방형 의사소통의 수준이 높으면 모친과도 개방형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한편 문제형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서 부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일한 방향으로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Ⅳ-8> 의사소통 유형별 부친/모친의 상관관계

부친	모친	상관계수
개방형	개방형	.78***
	문제형	-.25***
문제형	개방형	-.26***
	문제형	.83***

* p< .05, ** p< .01, *** p< .001

개방형 의사소통

부친/모친과의 개방형 의사소통에 대한 청소년 표본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Ⅳ-9>와 같다. 먼저 부친과 모친의 개방형 응답점수를 비교해 보면 조사대상이 된 8개 변인의 모든 하위집단에 걸쳐 모친의 점수가 부친보다 높았고 그 차이도 매우 큰 편이었다. 모든 유형의 청소년들이 부친보다는 모친과 쉽고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부친과의 개방형 의사소통 정도에 대한 청소년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성별, 교급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부친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청소년의 점수가 서울/시군부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과 부모결손 여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계층위계가 올라갈수록 점수가 증가하여 상층 청소년이 중간

층보다 중간층 청소년 하층 청소년보다 부친과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모두 있는 청소년이 부친만 있는 한부모가정 청소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그 차이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모친의 존재 여부가 부친과의 의사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 세대 구성에서는 하위집단별 차이가 거의 없었고,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이 부모 맞벌이 가정 청소년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모친과의 개방형 의사소통 점수를 하위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성별 차이만 유의미하였다. 여자가 남자보다 모친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부친에 대한 응답결과와 종합하면 청소년들은 대체로 이성부모보다는 동성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광역시 청소년이 서울/시군부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지만,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과 부모결손 여부, 형제유무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부친과 마찬가지로 모친과의 의사소통에서도 계층위계상 상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세 집단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양친이 모두 있는 청소년이 모친만 있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모친과 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세대 가정 청소년이 3세대 가정 청소년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이 맞벌이 가정 청소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Ⅳ-9> 부친/모친과의 개방형 의사소통

		부친		모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27	.88	3.46	.83
	여자	3.19	.91	3.52	.88
		t= 3.61***		t= -3.12**	
교급	중학생	3.25	.91	3.48	.87
	고교생	3.21	.89	3.50	.85
		t= 2.02*		t= -.91ns	
지역	서울	3.21	.92	3.46	.88
	광역시	3.25	.89	3.50	.85
	시군부	3.21	.89	3.48	.86
		F= 1.63ns		F= .82ns	
계층	하[a]	2.97	.92	3.32	.89
	중[b]	3.27	.86	3.51	.83
	상[c]	3.45	.90	3.69	.83
		F= 100.00***(a-b-c)		F= 63.02***(a-b-c)	
가족세대 구성	3세대	3.24	.90	3.47	.86
	2세대	3.23	.89	3.50	.85
		t= .46ns		t= -.98ns	
부모결손 여부	양친가정	3.24	.89	3.50	.85
	결손가정	2.94	.95	3.19	.93
		t= 4.88***		t= 5.54***	
부모취업 유형	한부모취업	3.26	.87	3.53	.83
	맞벌이	3.23	.90	3.49	.86
		t= 1.41ns		t= 1.66ns	
형제유무	없다	3.19	.93	3.40	.93
	있다	3.23	.89	3.50	.85
		t= -.97ns		t= -2.44*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문제형 의사소통

부모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에 대한 청소년들의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Ⅳ-10>과 같다. 먼저 부친, 모친의 점수를 비교해 보면 앞서의 개방형 의사소통과는 달리 문제형 의사소통에서는 양친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다. 대체로 부친과의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가 모친의 경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하위집단은 부친/모친의 점수 차가 거의 없었고(중학생, 서울지역, 상층, 외동 청소년), 한부모 가정 청소년은 유일하게 모친과의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편부 가정보다는 편모 가정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부친과의 문제형 의사소통에 대한 청소년 하위집단별 차이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인구학적 특성별로는 세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 특성 변인에서는 계층, 가족 세대구성, 부모 취업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에서는 중/상층과 비교하여 하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부친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세대 가정 청소년들이 2세대 가정 청소년보다, 맞벌이 가정 청소년이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보다 부친과의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가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외동 청소년이 형제가 있는 청소년보다 부친과의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가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모친과의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를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교급, 지역의 세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서울 청소년이 광역시/시군부 청소년보다 모친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과 부모 취업유형, 형제유무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계층에 있어서는 부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층 청소년들이 중/상층 청소년에 비해 모친과의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가정 청소년이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보다, 외동 청

소년이 형제가 있는 청소년보다 모친과의 의사소통에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0> 부친/모친과의 문제형 의사소통

		부친		모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2.89	.80	2.87	.79
	여자	2.87	.81	2.82	.80
		t= 1.00^{ns}		t= 2.51*	
교급	중학생	2.89	.82	2.88	.81
	고교생	2.87	.79	2.83	.77
		t= .97^{ns}		t= 2.57*	
지역	서울^{a}	2.90	.79	2.91	.79
	광역시^{b}	2.87	.80	2.84	.79
	시군부^{c}	2.88	.81	2.84	.79
		F= .64^{ns}		F= 4.19*(b/c-a)	
계층	하^{a}	3.03	.80	2.96	.79
	중^{b}	2.85	.78	2.82	.77
	상^{c}	2.82	.86	2.81	.85
		F= 29.75***(c/b-a)		F= 17.38***(c/b-a)	
가족세대 구성	3세대	2.93	.82	2.88	.81
	2세대	2.87	.80	2.84	.79
		t= 2.32*		t= 1.79^{ns}	
부모결손 여부	양친가정	2.88	.80	2.85	.79
	결손가정	2.88	.85	2.93	.84
		t= .03^{ns}		t= -1.53^{ns}	
부모취업 유형	한부모취업	2.83	.79	2.81	.77
	맞벌이	2.90	.80	2.86	.80
		t= -3.71***		t= -2.21*	
형제유무	없다	2.92	.80	2.93	.80
	있다	2.88	.80	2.84	.79
		t= 1.23^{ns}		t= 2.78*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4. 세대간 결속감

세대간 결속감은 부모와 자녀세대간의 정서적·심리적 친밀감과 애착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조사에서는 Bengston, Mangen & Landry(1984)의 척도를 수정·보완한 최정혜(1992)의 척도, 조윤주(2002)의 부모와의 애착 및 갈등 척도, 남정숙(2007)의 세대간 결속척도 등을 참고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척도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조사항목은 5점 Likert 척도의 5개 항목으로서 각 항목별로 부친, 모친에 대하여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세대간 결속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전체 부모와의 세대간 결속감은 청소년의 성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1>). 한편 부모의 성별로는 부친에 대한 결속감은 남자 청소년이, 모친에 대한 결속감은 여자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부친과 모친의 결속감 점수를 비교하면 남/녀 청소년 모두 모친과의 결속감이 부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정서적·심리적 친밀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1> 세대간 결속감: 부친/모친 비교

	부모 전체		부친과의 결속감		모친과의 결속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59	.80	3.50	.89	3.68	.81
남자	3.60	.81	3.52	.89	3.67	.82
여자	3.59	.79	3.47	.88	3.70	.81

부모와의 세대간 결속감

부친/모친에 대한 응답결과를 합산한 부모와의 세대간 결속감을 청소년의 배경변인별로 비교하면 다음의 <표 Ⅳ-12>와 같다.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교급별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높은 결속

감을 나타내어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 부모에 대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정서적·심리적 일체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지역별로는 하위집단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 부모결손 여부, 부모 취업유형, 형제유무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위계상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결속감이 높아져서 상층이 가장 높고 이어서 중간층, 하층의 순이었으며 집단별 격차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양친가정 청소년이 한부모가정 청소년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의 청소년이 맞벌이 가정 청소년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부모에 대한 높은 결속감을 나타내었다.

<표 Ⅳ-12> 부모와의 세대간 결속감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60	.81	t= .64^{ns}
	여자	3.59	.79	
교급	중학생	3.64	.81	t= 4.73***
	고교생	3.55	.79	
지역	서울^{a}	3.59	.79	F= .01^{ns}
	광역시^{b}	3.59	.80	
	시군부^{c}	3.59	.80	
계층	하^{a}	3.36	.80	F= 122.01***
	중^{b}	3.62	.77	(a-b-c)
	상^{c}	3.84	.79	
가족세대구성	3세대	3.57	.80	t= -1.17^{ns}
	2세대	3.60	.79	
부모결손여부	양친가정	3.60	.79	t= 3.99***
	결손가정	3.34	.92	
부모취업유형	한부모취업	3.63	.79	t= 2.00*
	맞벌이	3.59	.79	
형제유무	없다	3.48	.85	t= -2.25*
	있다	3.60	.79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부모 중 한 분이 안 계신 편부, 편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양친이 모두 있는 가정의 청소년보다 부모에 대한 결속감이 낮은 수준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과 비교하여 부모-자녀간의 접촉빈도가 소원하기 때문에 결속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동 청소년이 형제가 있는 청소년에 비해 부모와의 결속감이 낮은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와의 관계를 독점하고 있는 외동 청소년이 형제가 있는 청소년보다 부모에 대한 결속감이 오히려 낮다는 것은 접촉의 빈도와 시간과 같은 양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접촉의 내용과 성격과 같은 질적인 속성이 부모와의 결속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2세대 가정 청소년이 3세대 가정 청소년보다 부모와의 결속감이 다소 높은 수준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부친/모친과의 세대간 결속감

다음으로 부친, 모친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느끼는 세대간 결속감을 배경변인별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먼저 부모의 성별에 따른 결속감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 모든 하위집단에서 모친과의 결속감이 부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만한 사실은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부친/모친에 대해 느끼는 결속감이 전체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특히 편부가정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결속감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다. 즉, 즉 편모가정의 청소년이 모친에 대해 느끼는 결속감 점수가 3.53로서 전체 평균(3.68)보다 다소 낮은 편이고, 편부가정 청소년의 부친에 대한 결속감 점수는 3.19로서 전체 평균(3.50)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결속감은 양친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한편, 특히 편부가정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친과의 결속감에 대한 청소년의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 교급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다.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부친에 대한 결속감이 높은 수준이었다.

<표 Ⅳ-13> 부친/모친과의 세대간 결속감

		부친		모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52	.89	3.67	.82
	여자	3.47	.88	3.70	.81
		t= 2.63**		t= -1.61ns	
교급	중학생	3.56	.90	3.72	.82
	고교생	3.45	.88	3.65	.81
		t= 5.14***		t= 3.56***	
지역	서울	3.50	.89	3.68	.81
	광역시	3.50	.89	3.69	.82
	시군부	3.49	.89	3.68	.81
		F= .04ns		F= .01ns	
계층	하[a]	3.21	.91	3.51	.83
	중[b]	3.53	.84	3.70	.78
	상[c]	3.78	.86	3.91	.80
		F= 142.20***(a-b-c)		F= 78.66***(a-b-c)	
가족세대	3세대	3.48	.88	3.65	.84
구성	2세대	3.50	.89	3.70	.80
		t= -.80ns		t= -1.64ns	
부모결손	양친가정	3.51	.88	3.69	.81
여부	결손가정	3.19	1.13	3.53	.99
		t= 4.22***		t= 2.44*	
부모취업	한부모취업	3.55	.87	3.71	.80
유형	맞벌이	3.49	.88	3.68	.80
		t= 2.32*		t= 1.41ns	
형제유무	없다	3.39	.95	3.55	.90
	있다	3.51	.88	3.70	.80
		t= -3.00**		t= -3.95***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가족 세대구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위계상 상층에 속하는 청소년이 중간층보다, 중간층 청소년이 하층 청소년보다 부친에 대한 높은 결속감을 나타내었다. 또한 양친가정 청소년이 편부가정 청소년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이 맞벌이 가정 청소년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부친에 대한 결속감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모친과의 결속감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교급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결속감 점수가 높은 것은 부친의 경우와 동일하였지만, 모친에 대한 결속감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이성의 부모보다는 동성의 부모에 대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결속감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부모결손 여부와 형제유무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양친이 모두 있는 청소년이 편모가정의 청소년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외동 청소년보다 모친에 대해서 높은 결속감을 나타내었다.

5. 요약

가족기능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에 대한 청소년과 청소년과 학부모의 응답결과를 비교하였다.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은 가족구성원들간의 정서적 유대감의 정도를, 가족적응성(family adaptability)은 가족이 내·외부적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높은 가족은 건강한 가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과 학부모의 가족응집성/적응성 점수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상호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의 가족응집성/적응성 점수가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 부모세대가 자녀보다 가정의 건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족응집성에 대한 청소년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교급별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가족응집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세대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네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위계상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자기 가족의 응집성을 높게 평가하였고 상/중/하의 세 집단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양친가정 청소년이 결손가정 청소년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이 맞벌이 가정 청소년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가족의 응집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셋째, 가족적응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교급별 변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자가 남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자기 가정의 응집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별 하위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가족적응성을 높게 평가하였고 세 집단간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자녀 지도방식을 민주적 양육태도와 권위적 양육태도로 구분하고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평가하게 하였다. 여기서 민주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지도함에 있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지만 따뜻하고 합리적이며 일관적인 방식을 취하는 태도를, 권위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들의 행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적 양육태도의 점수는 모친이 부친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권위적 양육태도의 점수는 양친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지도에 있어서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엄부자모"(嚴父慈母)의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부친/모친의 양육태도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동일한 유형의 양육태도의 상관관계가 서로 상이한 유형의 상관관계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상호보완적이라기 보다는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친보다는 모친이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셋째, 민주적 양육태도에 대한 청소년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비교해 보면 계층과 부모결손 여부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양친가정이 편부/편모 가정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보다 민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층위계상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보다 민주적이었고 세 하위집단간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넷째, 권위적 양육태도에 대한 청소년의 하위집단별 차이는 성별과 교급, 가족 세대구성, 부모결손 여부의 네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부친과 모친 모두 여자보다는 남자 자녀, 고교생 자녀보다는 중학생 자녀에 대하여 보다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었다. 세대구성에 있어서는 3세대 가정이 2세대 가정보다 권위적이었는데 이것은 조부모님의 동거에 따른 보다 엄격한 가정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친가정의 경우 한부모가정과 비교하여 민주적/권위적 양육태도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

난 점이 주목되는데, 이것은 두가지 양육태도가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부모의 특성과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상호보완적으로 병행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식을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유형화하여 청소년들에게 부모 각각에 대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솔직하고 자유로우며 이해와 만족도가 높은 의사소통 방식을, 문제형 의사소통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경계심을 갖고 있는 형태의 의사소통 방식을 의미한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 의사소통 점수는 모친이 부친보다 높은 한편,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는 부친이 다소 높은 편으로서, 청소년들은 가정내에서 부친보다는 모친과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부친/모친과의 의사소통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동일한 유형의 의사소통 방식간에는 정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상이한 유형의 의사소통 방식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서 부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일한 방향으로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부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에 대한 청소년들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계층, 부모결손 여부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양친가정이 한부모 가정보다, 계층위계상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부친/모친과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친과의 의사소통은 남자가 여자보다, 모친과의 의사소통은 여자가 남자보다 원활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동성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밖에 형제가 있는 청소년은 외동 청소년보다 모친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문제형 의사소통에 대한 청소년들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배경변인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부친/모친 모두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난 변인은 계층과 부모 취업유형으로서, 계층위계상 하층에 속하는 청소년이 중/상층 청소년보다, 맞벌이 가정이 한부모 취업 가정보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더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모친과의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는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서울이 광역시/시군부보다, 외동 청소년이 형제가 있는 청소년보다 높았으며, 부친과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점수는 3세대 가정이 2세대 가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간 결속감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적·심리적 친밀감을 조사하여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세대간 결속감은 청소년의 성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성별에 따른 세대간 결속감을 비교하면 남녀 청소년 모두 모친과의 결속감이 부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정서적·심리적 친밀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부모와의 세대간 결속감 점수는 교급, 계층, 부모결손 여부, 부모 취업유형, 형제유무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부모와의 결속감이 높은 수준이었고, 계층별로는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결속감 점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양친가정이 한부모 가정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이 맞벌이 가정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부모에 대한 높은 결속감을 나타내었다.

Ⅴ. 가족 활동 · 가사활동

1. 가족활동
2. 가사활동
3. 요약

Ⅴ. 가족활동·가사활동

이 장에서는 일상생활 과정에서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의 빈도를 유형별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의 배경변인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평소에 청소년들이 부모를 도와 가사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를 가사활동 유형별로 측정한 뒤, 부모세대의 가사활동 분담 관계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1. 가족활동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가족활동은 예비조사를 통하여 "가정내 일상활동" "쇼핑·외식활동" "야외체험활동"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제Ⅲ장 2절 조사도구 참조). "가정내 일상활동"은 부모와 함께 TV를 시청하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 등 가정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하며, 집밖에서의 이루어지는 가족활동은 활동의 성격과 빈도 등을 고려하여 "쇼핑·외식활동"과 여행, 스포츠, 공연 관람, 야외나들이 등을 포괄하는 "야외체험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의 분류(Orthner, 1975)에 따르면 가정내 일상활동은 "병행활동"(parallel activity), 쇼핑·외식활동과 야외체험활동은 "공유활동"(joint activity)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Orthner(1975)는 공유활동은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한 역할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병행활동은 가족원간의 최소한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소극적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전체 가족활동

먼저 이들 가족활동의 전체 점수를 합산한 평균값을 청소년의 배경변인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Ⅴ-1>과 같다.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성, 교급, 지역에 따른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여자가 남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부모와 함께 하는 가족활동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생의 가족활동 빈도가 중학생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은 입시준비에 따른 활동시간 부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지역별로는 시군부 청소년의 활동빈도가 광역시보다 더 높고 서울은 중간이었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분석대상이 된 네 변인[13]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위계상 상층에 속할수록 부모와의 가족활동 빈도가 높았는데, 여가활동을 위한 가정의 경제적 여건 및 부모의 관심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2세대 가정의 가족활동 빈도가 3세대 가정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조부모와의 동거로 인하여 부모-자녀세대의 공동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이 한부모 취업 가정보다 활동빈도가 낮은 것은 양친이 모두 직장생활을 함에 따라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외동 청소년이 형제가 있는 청소년보다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의 빈도가 낮게 나타난 점도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가족구성원의 수가 적을수록 가족활동이 용이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상반되는 결과인데, 이것은 자녀 수에 따른 가족문화의 차이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13] 가정내 일상활동에서 부친, 모친과의 TV시청, 아침/저녁식사 함께 하기를 측정하였는데, 한부모 가정과 양친 결손 가정은 이에 대한 응답이 불가능하여 부모결손 여부 변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V-1> 가족활동 전체 빈도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59	1.06	t= -3.72***
	여자	3.68	.99	
교급	중학생	3.89	1.03	t= 18.53***
	고교생	3.42	.97	
지역	서울[a]	3.61	1.02	F= 6.04**
	광역시[b]	3.58	1.01	(b/a-a/c)
	시군부[c]	3.68	1.04	
계층	하[a]	3.15	1.00	F= 266.83***
	중[b]	3.70	.98	(a-b-c)
	상[c]	4.03	.99	
가족세대구성	3세대	3.47	1.06	t= -6.08***
	2세대	3.67	1.02	
부모취업유형	한부모취업	3.69	1.02	t= 2.15*
	맞벌이	3.63	1.02	
형제유무	없다	3.52	1.06	t= -2.66**
	있다	3.64	1.02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가정내 일상활동

다음으로 가족활동의 유형별 빈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부모와 함께 하는 가정내 일상활동 빈도에 대한 전체 청소년의 응답결과(평균값)은 다음의 <표 V-2>와 같다. TV시청, 아침식사, 저녁식사의 세가지 유형의 활동에 대하여 부친, 모친과 함께하는 빈도를 측정하였는데, 모든 유형의 활동에서 모친과 함께 하는 빈도가 부친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2> 부친/모친과의 가정내 일상활동

	빈도	평균	표준편차
아버지와 함께 TV시청하기	6746	4.09	1.74
어머니와 함께 TV시청하기	6836	4.50	1.62
아버지와 함께 아침식사하기	6735	3.39	1.98
어머니와 함께 아침식사하기	6835	3.66	2.02
아버지와 함께 저녁식사하기	6735	3.92	1.75
어머니와 함께 저녁식사하기	6841	4.24	1.76

가정내 일상활동의 6가지 항목 응답결과를 종합한 점수를 청소년 하위집단별로 비교하면 다음의 <표 V-3>과 같다.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성, 교급, 지역의 세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부모님과 함께 하는 가정내 일상활동의 빈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광역시 청소년에 비해 시군부 청소년의 활동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의 청소년들이 농어촌·중소도시 청소년에 비해 가정에서 부모와 접촉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 가족 세대구성, 부모 취업유형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계층위계상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상/중/하의 세 집단간 활동빈도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또한 2세대 가정이 3세대 가정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이 맞벌이 가정보다 활동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가정에서 부모와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표 V-3> 가정내 일상활동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89	1.33	t= 2.82**
	여자	3.80	1.30	
교급	중학생	4.15	1.28	t= 17.51***
	고교생	3.59	1.29	
지역	서울[a]	3.80	1.30	F= 10.00***
	광역시[b]	3.76	1.32	(b/a-c)
	시군부[c]	3.92	1.31	
계층	하[a]	3.49	1.39	F= 74.73***
	중[b]	3.91	1.28	(a-b-c)
	상[c]	4.08	1.26	
가족세대구성	3세대	3.70	1.41	t= -3.89***
	2세대	3.88	1.29	
부모취업유형	한부모취업	3.92	1.28	t= 2.70**
	맞벌이	3.83	1.32	
형제유무	없다	3.78	1.40	t= -1.27ns
	있다	3.85	1.31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쇼핑·외식활동

가정밖에서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활동은 모두 8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년간 활동빈도를 6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먼저 각 항목별 청소년들의 응답결과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V-4>와 같다. 부모님과 함께 외식, 쇼핑하기의 빈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이어서 운동/산책하기, 스포츠 경기 관람, 야외나들이/소풍, 영화 관람, 여행의 순이었으며 공연/전시회 관람의 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과 쇼핑은 집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활동으로서 활동의 빈도나 성격의 측면에서 다른 활동들과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쇼핑·외식활동”과 그 이외의 활동을 포괄하는 “야외체험활동”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표 V-4> 부모와의 가정밖에서의 가족활동

	빈도	평균	표준편차
부모님과 식당에서 외식하기	6919	4.46	1.59
부모님과 장보거나 쇼핑하기	6923	4.40	1.67
부모님과 운동 또는 산책하기	6921	3.01	1.73
부모님과 스포츠경기 관람하기	6917	2.95	1.66
부모님과 야외나들이/소풍가기	6922	2.58	1.66
부모님과 영화 관람하기	6897	2.57	1.56
부모님과 여행(1박 이상)하기	6914	2.54	1.47
부모님과 공연/전시회 관람하기	6912	1.89	1.33

쇼핑·외식 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V-5>와 같다.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성별, 교급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여자가 남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부모와 함께 쇼핑이나 외식을 하는 빈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군부 청소년이 광역시 청소년에 비해 활동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분석대상이 된 다섯개 변인[14]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위계상 상층에 속할수록 부모와 쇼핑·외식하는 빈도가 높은 수준으로서, 상/중/하의 세 집단간의 빈도 차이가 매우 뚜렷하였다. 또한 2세대 가정이 3세대 가정보다, 양친가정이 결손가정 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이 맞벌이 가정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부모와 쇼핑·외식하는 빈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14] 쇼핑·외식활동과 야외체활동에서는 부친, 모친을 구분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하는 빈도를 질문하였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 청소년도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결손 여부 변인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단, 부모가 모두 안 계시는 청소년은 분석에서 제외).

<표 V-5> 부모와의 쇼핑·외식활동 빈도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4.24	1.51	t= -11.45***
	여자	4.63	1.37	
교급	중학생	4.62	1.42	t= 9.50***
	고교생	4.28	1.46	
지역	서울	4.43	1.43	F= 2.65ns
	광역시	4.38	1.46	
	시군부	4.47	1.46	
계층	하[a]	3.89	1.54	F= 170.97***
	중[b]	4.54	1.39	(a-b-c)
	상[c]	4.87	1.29	
가족세대구성	3세대	4.12	1.50	t= -8.34***
	2세대	4.50	1.43	
부모결손여부	양친가정	4.46	1.45	t= 5.80***
	결손가정	3.90	1.54	
부모취업유형	한부모취업	4.52	1.42	t= 1.99*
	맞벌이	4.45	1.44	
형제유무	없다	4.24	1.50	t= -3.54***
	있다	4.45	1.45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야외체험활동

야외체험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는 <표 V-6>과 같다. 인구학적 특성별로는 교급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활동빈도가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지역별로는 광역시 청소년이 서울/시군부 청소년에 비해 활동빈도가 낮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과 부모결손 여부에 따른 하위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계층위계가 올라갈수록 부모와의 야외체험활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층과 중간층, 중간층과 하층의 차이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양친이 모두 있는 청소년이 결손가정 청소년보다 부모

와 야외체험을 함께 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밖에 2세대 가정이 3세대 가정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이 맞벌이 가정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활동빈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표 V-6> 부모와의 야외체험활동 빈도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2.59	1.23	t= .40^{ns}
	여자	2.58	1.16	
교급	중학생	2.87	1.27	t= 17.86***
	고교생	2.36	1.08	
지역	서울	2.60	1.20	F= .93^{ns}
	광역시	2.56	1.17	
	시군부	2.60	1.21	
계층	하^{a}	2.07	.97	F= 287.22***
	중^{b}	2.64	1.14	(a-b-c)
	상^{c}	3.16	1.33	
가족세대구성	3세대	2.53	1.19	t= -1.90^{ns}
	2세대	2.60	1.19	
부모결손여부	양친가정	2.61	1.19	t= 7.18***
	결손가정	2.08	1.11	
부모취업유형	한부모취업	2.63	1.19	t= .66^{ns}
	맞벌이	2.61	1.19	
형제유무	없다	2.52	1.18	t= -1.53^{ns}
	있다	2.59	1.19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2. 가사활동

가사활동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참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사활동의 5가지 유형별로 참여빈도를 조사하였다. 청소년들에게는 부모님을 얼마나 자주 도와드리고 있는지, 학부모에게는 배우자와 어느 정도 역할분담하고 있는지를 5점 Likert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가사활동 유형별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보면 다음의 <표 Ⅴ-7>과 같다. 조사대상 5가지 가사활동 중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은 집안청소하기(2.61)였으며, 이어서 식사준비하기(2.57), 쓰레기치우기(2.55), 설거지하기(2.28)의 순이었고, 세탁·빨래하기(2.05)의 참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7> 가사활동 유형별 빈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식사준비하기	6979	2.57	.97
설거지하기	6979	2.28	.93
세탁빨래하기	6979	2.05	1.01
집안청소하기	6979	2.61	.98
쓰레기치우기	6979	2.55	1.10
가사활동(전체)	6979	2.41	.76

전체 가사활동

조사대상이 된 가사활동 유형의 합산한 전체 점수를 청소년들의 배경변인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Ⅴ-8>과 같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교급별 차이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참여도가 높았는데, 고교생의 경우 입시준비로 인한 정신적·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가사활동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성별 가사

활동 참여빈도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고, 시군부 청소년이 광역시/서울 청소년에 비해 가사활동 참여도가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8> 가사활동 전체 빈도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2.41	.78	t= .16^{ns}
	여자	2.41	.75	
교급	중학생	2.44	.75	t= 2.47*
	고교생	2.39	.78	
지역	서울	2.38	.76	F= 1.91^{ns}
	광역시	2.40	.77	
	시군부	2.43	.76	
계층	하^{a}	2.46	.79	F= 9.16***
	중^{b}	2.37	.72	(b-c/a)
	상^{c}	2.45	.83	
가족세대구성	3세대	2.40	.80	t= -.68^{ns}
	2세대	2.41	.76	
부모결손여부	양친가정	2.40	.76	t= -3.71***
	결손가정	2.62	.88	
부모취업유형	한부모취업	2.26	.71	t= -10.95***
	맞벌이	2.47	.77	
형제유무	없다	2.35	.80	t= -2.22*
	있다	2.42	.76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가족특성별로는 가족 세대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4변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별로는 상층과 하층 청소년이 중간층 청소년에 비해 가사활동 참여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손가정 청소년이 양친가정 청소년보다, 맞벌이 가정 청소년이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보다 가사활동 참여도가 높았는데, 부모의 결손과 취업에 따른 일손 부족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

다 가사활동 참여도가 높은 점이 주목된다. 형제가 있는 경우 일의 분담을 통해 외동 청소년보다 참여빈도가 낮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녀가 외동인가 아니면 여럿인가에 따라서 가정의 자녀지도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사활동: 식사준비하기

청소년의 가사활동 참여도를 가사활동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식사준비하기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Ⅴ-9>와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 교급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여자가 남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식사준비하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하위집단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5가지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상층/하층 청소년이 중간층보다, 2세대 가정이 3세대 가정보다, 결손가정이 양친가정보다, 맞벌이 가정이 한부모 취업 가정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부모를 도와 식사를 준비하는 활동빈도가 더 높았다. 2세대 가정과 결손가정 청소년의 참여도가 높은 것은 가족구성 특성에 따른 상대적인 일손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가 맞벌이를 할 경우 부모(주로 모친)를 대신하여 자녀가 식사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 청소년의 참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동 청소년이 형제가 있는 청소년보다 참여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이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형제가 있는 경우 형제간 역할분담을 통해 개별 청소년의 가사활동 참여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외동 청소년보다 오히려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가사활동 참여가 부모의 취업이나 결손 등으로 인한 현실적인 요인(일손 부족 등) 외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 지도방식 등에 의해서도 영향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V-9> 식사준비하기 빈도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2.52	.98	t= -4.33***
	여자	2.62	.97	
교급	중학생	2.61	.98	t= 3.33**
	고교생	2.53	.97	
지역	서울	2.56	.98	F= .82ns
	광역시	2.55	.98	
	시군부	2.58	.97	
계층	하[a]	2.60	1.00	F= 3.29*
	중[b]	2.54	.94	(b-a/c)
	상[c]	2.61	1.04	
가족세대구성	3세대	2.51	.98	t= -2.29*
	2세대	2.58	.97	
부모결손여부	양친가정	2.57	.97	t= -2.01*
	결손가정	2.69	1.00	
부모취업유형	한부모취업	2.44	.94	t= -7.42***
	맞벌이	2.63	.98	
형제유무	없다	2.47	.96	t= -2.82**
	있다	2.58	.98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가사활동: 설거지하기

청소년들의 하위집단별 설거지하기의 참여빈도는 다음의 <표 V-10>과 같다. 인구학적 배경에서는 성별, 지역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참여도가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시군부 청소년이 서울/광역시 청소년보다 설거지하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가족 세대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층 청소년들이 중·상층보다(계층), 결손가정 청소년이 양친가정 청소년보다, 맞벌이 가정 청소년이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부모를 도와 설거

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0> 설거지하기 빈도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2.19	.92	t= -8.55***
	여자	2.38	.93	
교급	중학생	2.26	.92	t= -1.74ns
	고교생	2.30	.94	
지역	서울[a]	2.22	.93	F= 4.31*
	광역시[b]	2.26	.93	(a/b-c)
	시군부[c]	2.31	.93	
계층	하[a]	2.35	.97	F= 7.24**
	중[b]	2.25	.88	(c/b-a)
	상[c]	2.24	.98	
가족세대구성	3세대	2.29	.97	t= .61ns
	2세대	2.27	.92	
부모결손여부	양친가정	2.27	.92	t= -4.64***
	결손가정	2.60	1.07	
부모취업유형	한부모취업	2.11	.87	t= -9.98***
	맞벌이	2.34	.93	
형제유무	없다	2.19	.97	t= -2.54*
	있다	2.29	.93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가사활동: 세탁·빨래하기

세탁·빨래하기 활동 참여도에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V-11>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로는 식사준비하기, 설거지하기의 응답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자의 참여율이 남자보다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것은 이들 활동을 여성의 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성역할관의 영향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 청소년들이 광역시/시군부 청소년에 비해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 부모결손 여부, 부모 취업유형별 하위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계층위계상 하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중·상층 청소년보다, 결손가정 청소년이 양친가정 청소년보다, 맞벌이 가정 청소년이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보다 세탁·빨래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준비하기, 설거지하기와는 달리 세탁·빨래하기에서는 형제유무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11> 세탁·빨래하기 빈도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2.01	1.02	t= -3.42**
	여자	2.10	1.00	
교급	중학생	2.04	1.00	t= -1.26ns
	고교생	2.07	1.02	
지역	서울[a]	1.97	.98	F= 5.10**
	광역시[b]	2.05	1.00	(a-b/c)
	시군부[c]	2.08	1.02	
계층	하[a]	2.17	1.08	F= 16.01***
	중[b]	2.00	.95	(b/c-a)
	상[c]	2.04	1.06	
가족세대구성	3세대	2.07	1.03	t= .81ns
	2세대	2.05	1.01	
부모결손여부	양친가정	2.04	1.00	t= -4.52***
	결손가정	2.38	1.14	
부모취업유형	한부모취업	1.85	.91	t= -11.13***
	맞벌이	2.13	1.03	
형제유무	없다	2.03	1.03	t= -.56ns
	있다	2.06	1.01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가사활동: 집안 청소하기

집안 청소하기의 청소년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V-12>와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교급별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참여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앞서의 세가지 활동과는 달리 집안청소

하기에서는 성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적인데, 이것은 집안청소하기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 부모 취업유형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위계에서 상층과 하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중간층보다, 맞벌이 가정 청소년들이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보다 부모를 도와 집안청소를 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손가정 청소년이 양친가정 청소년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외동 청소년들보다 집안청소 빈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12> 집안청소하기 빈도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2.62	1.00	t= .77^{ns}
	여자	2.60	.96	
교급	중학생	2.65	.98	t= 3.10**
	고교생	2.57	.98	
지역	서울	2.60	.99	F= .07^{ns}
	광역시	2.61	.99	
	시군부	2.61	.97	
계층	하^{a}	2.64	1.03	F= 9.56***
	중^{b}	2.56	.93	(b-a/c)
	상^{c}	2.69	1.05	
가족세대구성	3세대	2.61	1.01	t= .18^{ns}
	2세대	2.60	.97	
부모결손여부	양친가정	2.60	.98	t= -1.75^{ns}
	결손가정	2.72	1.02	
부모취업유형	한부모취업	2.45	.93	t= -8.81***
	맞벌이	2.67	.99	
형제유무	없다	2.56	1.00	t= -1.34^{ns}
	있다	2.61	.98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가사활동: 쓰레기치우기

쓰레기치우기의 청소년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Ⅴ-13>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참여빈도가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른 활동들과는 달리 남자 청소년의 쓰레기치우기 참여도는 여자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중·고교생을 자녀로 둔 가정에서는 식사준비/설거지/세탁·빨래는 여아가, 쓰레기치우기는 남아가 주로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Ⅴ-13> 쓰레기치우기 빈도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2.73	1.12	t= 14.39***
	여자	2.36	1.05	
교급	중학생	2.62	1.12	t= 5.26***
	고교생	2.48	1.08	
지역	서울	2.55	1.11	F= .16ns
	광역시	2.54	1.08	
	시군부	2.55	1.11	
계층	하[a]	2.52	1.13	F= 8.56***
	중[b]	2.51	1.06	(b/a-c)
	상[c]	2.66	1.16	
가족세대구성	3세대	2.50	1.09	t= -1.76ns
	2세대	2.56	1.10	
부모결손여부	양친가정	2.54	1.09	t= -2.02*
	결손가정	2.70	1.23	
부모취업유형	한부모취업	2.45	1.07	t= -4.51***
	맞벌이	2.58	1.11	
형제유무	없다	2.50	1.12	t= -1.24ns
	있다	2.55	1.10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 부모결손 여부, 부모 취업유형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위계상 상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중·하층 청소년들보다, 결손가정 청소년이 양친가정 청소년보다, 맞벌이 가정 청소년이 한부모 취업 가정보다 쓰레기를 치우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 세대구성, 형제유무 변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사활동 참여의 세대간 비교

한국사회에서 가사활동은 성별 역할분담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서 부모세대의 역할관계가 자녀세대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사활동에 있어서 부모-자녀세대의 성별 역할관계의 특징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가사활동의 유형별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성별 참여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Ⅴ-14>와 같다. 청소년의 경우 전체 가사활동 참여도에 있어서 남녀가 거의 동등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식사준비/설거지/세탁·빨래에 있어서는 여자의 참여도가 높지만 성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한편, 집안청소과 쓰레기 치우기에 있어서는 남자의 참여도가 높고 특히 쓰레기 치우기에서 남자의 참여도가 여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부모세대의 경우 전체 가사활동 참여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현격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는 달리 식사준비/설거지/세탁·빨래는 물론 집안청소/쓰레기치우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에서 여자의 참여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자녀세대에 있어서는 가사활동 유형에 따른 성별 역할분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모세대는 거의 대부분의 활동을 여자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표 V-14> 가사활동 빈도: 청소년/학부모 성별 비교

청소년	남자		여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사활동(전체)	2.41	.78	2.41	.75	t= .16^{ns}
식사준비하기	2.52	.98	2.62	.97	t= -4.33***
설거지하기	2.19	.92	2.38	.93	t= -8.55***
세탁/빨래하기	2.01	1.02	2.10	1.00	t= -3.42**
집안청소하기	2.62	1.00	2.60	.96	t= .77^{ns}
쓰레기치우기	2.73	1.12	2.36	1.05	t= 14.39***
학부모	**남자**		**여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사활동(전체)	2.50	.88	3.93	.87	t= -51.23***
식사준비하기	2.38	1.00	4.08	.95	t= -54.51***
설거지하기	2.46	.99	3.96	.95	t= -48.74***
세탁/빨래하기	2.31	1.06	4.10	.99	t= -54.40***
집안청소하기	2.60	.98	3.83	1.01	t= -39.16***
쓰레기치우기	2.76	1.05	3.68	1.11	t= -26.68***

* p< .05, ** p< .01, *** p< .001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가사활동 참여는 동성의 부모로부터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성별로 부모와 청소년의 가사활동 참여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먼저 가사활동 전체의 상관관계 계수는 부친과 남자 자녀가 .06(p> .05), 모친과 여자 자녀가 -.14(p<.001)로 나타났다. 즉, 남자 자녀의 가사활동 참여는 부친의 가사활동 참여 정도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여자 자녀는 모친이 가사활동을 많이 담당할수록 오히려 가사활동 참여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동성 부모와 자녀의 가사활동 유형별 참여도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다음의 <표 V-15>를 통해 이와 같은 부모-자녀간 가사활동의 영향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일부 항목에서 매우 약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가사활동 참여에 있어 부모-자녀간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부친의 가사활동 참여도가 높다고 해서 자녀가 이를 모범으로 부모를 도와 가사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여자의 경우 모친과 여자 자녀의 가사활동 참여도는 거의 모든 가사활동 유형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즉, 모친이 가사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여자 자녀의 가사활동 참여도는 낮아지며 그 역의 관계도 성립한다는 것으로서, 따라서 모친과 여자 자녀는 가사활동 참여에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V-15> 가사활동 빈도의 동성 부모-자녀간 상관관계

		부친				
		1	2	3	4	5
남자 청소년	1 식사준비하기	**-.02**	.01	.002	-.01	-.03
	2 설거지하기	.05	**.05**	.02	-.01	.001
	3 세탁빨래하기	.06	.06*	**.07***	.000	.01
	4 집안청소하기	-.01	.004	-.03	**-.02**	-.02
	5 쓰레기치우기	.002	.01	-.02	-.02	**-.01**
		모친				
		1	2	3	4	5
여자 청소년	1 식사준비하기	**-.06**	-.08*	-.07*	-.10**	-.10**
	2 설거지하기	-.10**	**-.11*** **	-.11***	-.11**	-.09**
	3 세탁빨래하기	-.11***	-.10**	**-.11****	-.11***	-.14***
	4 집안청소하기	-.09**	-.09**	-.11**	**-.13*** **	-.09**
	5 쓰레기치우기	-.08**	-.07*	-.04	-.05	**-.06***

* p< .05, ** p< .01, *** p< .001

3. 요약

가족활동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을 가정내 일상활동, 쇼핑·외식활동, 야외체험활동의 세가지로 유형화한 뒤 그 빈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별 활동 빈도를 합산한 전체 가족활동 빈도는 모든 배경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인구학적 특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시군부 청소년이 서울 청소년보다 부모와의 활동빈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위계상 상층이 중·하층보다, 2세대 가정이 3세대 가정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이 맞벌이 가정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가족활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내 일상활동을 부모 중 주로 누구와 함께 하는지 비교한 결과 조사대상이 된 세가지 유형의 활동(TV시청, 아침식사, 저녁식사) 모두 모친과 함께 하는 빈도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가정내 일상활동 빈도의 응답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비교하면, 인구학적 특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서울/광역시 청소년이 시군부 청소년보다 부모와 함께 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상층이 중간층보다, 중간층이 하층보다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2세대 가정이 3세대 가정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이 맞벌이 가정보다 부모와 함께하는 빈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넷째, 쇼핑·외식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인구학적 특성별로는 성, 교급변인에서,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분석대상이 된 5가지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부모와 함께 쇼핑이나 외식을 하는 빈도가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계층별로는 상층이 중간층보다, 중간층이 하층보다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이밖에 2세대 가정이 3세대 가정보다, 양친가정이 결손가정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이 맞벌이 가정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부모와 함께 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부모와 함께 야외체험활동을 하는 빈도를 배경변인별로 비교해 보면, 교급, 계층, 부모결손 여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양친가정이 결손가정보다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계층별로는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빈도가 증가하였고 상/중/하의 세 집단간 차이가 뚜렷하였다.

가사활동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부모를 도와 가사활동에 참여하는지 빈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유형별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비교하면, 집안청소하기의 참여빈도가 가장 높고, 이어서 식사준비하기, 쓰레기치우기, 설거지하기의 순이었으며 세탁·빨래하기의 참여빈도가 가장 낮았다.

둘째, 청소년들의 전체 가사활동 참여도를 배경변인별로 비교하면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교급별 차이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참여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교생의 입시준비로 인한 정신적·시간적 여유부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가족특성별로는 계층, 부모결손 여부, 부모 취업유형, 형제유무의 네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별로는 상층과 하층 청소년이 중간층 청소년에 비해 가사활동 참여빈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결손가정이 양친가정보다, 맞벌이 가정이 한부모 취업 가정보다 청소년의 가사활동 참여도가 높았는데, 부모의 결손/취업에 따른 일손부족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가사활동 참여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셋째, 가사활동 분담 정도를 세대별로 비교하면 청소년들은 일정 수준의 성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모세대는 대부분의 가사활동을 모친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의 경우 식사준비/설거지/세탁·빨래는 여자가 집안청소/쓰레기 치우기는 주로 남자가 담당하고 가사활동

전체 참여빈도도 동등한 수준이지만, 부모세대는 거의 모든 유형의 가사활동에서 여자의 참여빈도가 남자보다 현격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넷째, 청소년과 학부모의 가사활동 참여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남자 자녀의 가사활동 참여는 부친의 가사활동 참여 정도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여자 자녀는 모친이 가사활동을 많이 담당할수록 오히려 가사활동 참여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모친과 여자 자녀는 가사활동 참여에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Ⅵ. 가족관련 심리 · 행동 특성

1. 심리 특성
2. 문제행동
3. 학교생활 적응
4. 요약

Ⅵ. 가족관련 심리·행동 특성

이 장에서는 권위주의 성향과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고 가족관련 변인과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비행 빈도와 학교생활 적응도를 조사하고 가족관련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점을 조사하였다.

1. 심리특성

가.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 측정은 Erikson(1968)의 정의에 기초하여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허정철(2008)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체성과 미래확신성의 두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진 총 9개의 문항을 5첨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비교하면 다음 <표 Ⅵ-1>과 같다.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성별, 교급별, 지역별 하위집단의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서울 청소년이 광역시/시군부 청소년보다 높은 자아정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특성과 관련된 다섯가지 변인에서는 계층간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계층위계가 높아질수록 높은 자아정체감을 나타내어 상층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가장 높고 하층 청소년이 가장 낮았으며, 세 하위집단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족 세대구성, 부모 취업유형, 형제유무 변인에서는 하위집단간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양친이 모두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높은 자아정체감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Ⅵ-1> 자아정체감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48	.71	t= 5.36***
	여자	3.39	.70	
교급	중학생	3.46	.72	t= 2.25*
	고교생	3.42	.69	
지역	서울[a]	3.51	.71	F= 6.24**
	광역시[b]	3.44	.70	(c/b-a)
	시군부[c]	3.42	.71	
계층	하[a]	3.33	.71	F= 75.68***
	중[b]	3.42	.68	(a-b-c)
	상[c]	3.66	.72	
가족세대구성	3세대	3.45	.69	t= .37ns
	2세대	3.44	.71	
부모결손여부	양친가정	3.44	.71	t= 1.06ns
	결손가정	3.39	.73	
부모취업유형	한부모취업	3.45	.69	t= .73ns
	맞벌이	3.44	.71	
형제유무	없다	3.44	.75	t= .05ns
	있다	3.44	.70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다양한 척도로 측정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원천을 개인 요인과 집단 요인으로 구분하는 한유화, 정진경(2007)의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자아존중감의 전체 점수를 청소년 하위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Ⅵ-2>와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지역변인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광역시/시군부 청소년과 비교하여 서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수준이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문화환경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 중학생과 고교생은 모두 유사한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었다.

<표 VI-2> 자아존중감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51	.62	t= .32^{ns}
	여자	3.50	.56	
교급	중학생	3.51	.61	t= .45^{ns}
	고교생	3.50	.57	
지역	서울^{a}	3.58	.60	F= 12.07***
	광역시^{b}	3.51	.59	(c/b-a)
	시군부^{c}	3.48	.58	
계층	하^{a}	3.39	.60	F= 98.69***
	중^{b}	3.50	.56	(a-b-c)
	상^{c}	3.71	.60	
가족세대구성	3세대	3.48	.59	t= -1.68^{ns}
	2세대	3.51	.58	
부모결손여부	양친가정	3.51	.58	t= 3.18**
	결손가정	3.39	.67	
부모취업유형	한부모취업	3.52	.58	t= 1.34^{ns}
	맞벌이	3.50	.58	
형제유무	없다	3.51	.63	t= .13^{ns}
	있다	3.50	.58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과 부모결손 여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수준일수록 점진적으로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상층이 가장 높고 이어서 중간층, 하층의 순이었으며 세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뚜렷하였다. 또한 양친이 모두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어 부모의 결손여부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2세대 가정 청소년이 3세대 가정 청소년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

이 맞벌이 가정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이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과 외동 청소년간의 자아존중감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집단요인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개인요인과 집단요인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다음의 <표 Ⅵ-3>과 같다.

먼저 개인요인의 자아존중감 점수를 비교해 보면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 교급, 지역의 세 변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서울 청소년이 광역시/시군부 청소년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었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별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위계상 상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어서 중간층, 하층의 순이었으며 세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뚜렷하였다. 이밖에 2세대 가정이 3세대 가정보다, 양친가정이 결손가정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이 맞벌이 가정보다, 외동 청소년이 형제가 있는 청소년보다 개인요인의 자아존중감이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집단요인의 자아존중감을 청소년 하위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 교급, 지역의 세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수준으로서 개인요인 자아존중감과는 상반되는 조사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성, 교급별로 자아존중감의 주된 원천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즉, 남자와 중학생은 자아존중감의 원천을 주로 자신의 개인적 속성 또는 자질에 의존하는 반면, 여자와 고교생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 또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청소년이 광역시/시군부보다 집단요인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요인 자아존중감의 응답결과와 일치

하였다.

<표 VI-3> 개인/집단요인 자아존중감

		개인요인		집단요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39	.70	3.66	.67
	여자	3.33	.66	3.72	.61
		t= 3.29**		t= -3.80***	
교급	중학생	3.38	.71	3.67	.65
	고교생	3.34	.66	3.70	.63
		t= 2.61**		t= -2.50*	
지역	서울[a]	3.45	.71	3.75	.63
	광역시[b]	3.35	.67	3.70	.65
	시군부[c]	3.34	.68	3.66	.64
		F= 11.19***(c/b-a)		F= 8.19***(c/b-a)	
계층	하[a]	3.24	.70	3.59	.65
	중[b]	3.34	.65	3.69	.61
	상[c]	3.59	.70	3.85	.66
		F= 95.69***(a-b-c)		F= 57.17***(a-b-c)	
가족세대 구성	3세대	3.33	.68	3.66	.64
	2세대	3.37	.68	3.69	.64
		t= -1.45ns		t= -1.57ns	
부모결손 여부	양친가정	3.36	.68	3.70	.64
	결손가정	3.32	.77	3.48	.70
		t= .88ns		t= 5.27***	
부모취업 유형	한부모취업	3.38	.67	3.71	.64
	맞벌이	3.35	.68	3.69	.63
		t= 1.22ns		t= 1.27ns	
형제유무	없다	3.39	.73	3.66	.68
	있다	3.36	.68	3.69	.64
		t= 1.05ns		t= -.99ns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별, 부모결손 여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위계상 위로 올라갈수록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아져서 상층이 가장 높고, 이어서 중간, 하층의 순이었으며 세 집단간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양친가정 청소년이 결손가정 청소년보다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부모의 결손이 개인요인의 자아존중감보다는 집단요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밖에 2세대 가정이 3세대 가정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이 맞벌이 가정보다 집단요인의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은 편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자아존중감의 원천에 따른 형제유무별 하위집단의 응답결과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지만 외동 청소년은 개인요인 자아존중감이, 형제가 있는 청소년은 집단요인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서, 형제가 있을 경우 외동 청소년들에게는 결여된 형제간의 인간관계기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권위주의

권위주의 성향은 민경환(1989)의 한국판 권위주의 척도를 수정·보완한 간이 척도를 활용하여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10개의 조사항목을 5첨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권위주의 성향에 대한 청소년의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Ⅵ-4>와 같다.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성별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권위주의 성향을 나타내었다. 교급별로는 중학생, 지역별로는 서울 이외 지역 청소년들의 점수가 다소 높은 편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과 가족 세대구성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계층위계상 상층과 하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중간층

청소년에 비해 높은 권위주의 성향을 나타내었고, 3세대 가정 청소년이 2세대 가정 청소년보다 권위주의 성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3세대 가정의 경우 조부모님과의 동거에 따라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족분위기가 청소년들의 권위주의적 성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VI-4> 권위주의 성향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2.92	.66	t= 9.91***
	여자	2.77	.60	
교급	중학생	2.86	.67	t= 1.18ns
	고교생	2.84	.61	
지역	서울	2.83	.63	F= .57ns
	광역시	2.85	.64	
	시군부	2.85	.64	
계층	하[a]	2.90	.61	F= 11.22***
	중[b]	2.81	.62	(b-c/a)
	상[c]	2.87	.72	
가족세대구성	3세대	2.89	.64	t= 2.43*
	2세대	2.84	.64	
부모결손여부	양친가정	2.85	.64	t= -1.38ns
	결손가정	2.90	.67	
부모취업유형	한부모취업	2.83	.62	t= -1.55ns
	맞벌이	2.85	.64	
형제유무	없다	2.86	.68	t= .53ns
	있다	2.85	.64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라. 삶에 대한 만족감

삶에 대한 만족감은 현재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조사에서는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1985)의 SWLS(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활용하여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7점 Likert 척도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청소년과 학부모의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표 VI-5>), 두 집단의 평균 점수가 같은 것으로 나타나 삶에 대한 만족감에 있어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삶에 대한 만족감 점수의 두 집단간 상관관계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서(r= .24, p< .001),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삶에 대한 만족감은 상호영향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5> 삶에 대한 만족감: 청소년과 학부모

	빈도	평균	표준편차
청소년	6945	3.04	.91
학부모	3967	3.04	.86

다음으로 삶에 대한 만족감 점수를 청소년의 배경변인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VI-6>과 같다.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성별, 교급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수준이었고, 성별 차이보다는 교급별 차이가 더욱 현저하였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 부모결손 여부, 부모 취업유형, 형제유무 변인에서 하위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변인에서는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만족감 점수가 증가하였고 집단간 격차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양친가정 청소년이 결손가정 청소년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이 맞벌이 가정 청소년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가족구성이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6> 삶에 대한 만족감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07	.90	t= 3.28**
	여자	3.00	.91	
교급	중학생	3.14	.94	t= 8.36***
	고교생	2.96	.87	
지역	서울	3.09	.90	F= 1.97ns
	광역시	3.04	.89	
	시군부	3.02	.92	
계층	하[a]	2.61	.89	F= 323.94***
	중[b]	3.08	.85	(a-b-c)
	상[c]	3.47	.87	
가족세대구성	3세대	3.04	.91	t= .03ns
	2세대	3.04	.90	
부모결손여부	양친가정	3.05	.90	t= 5.10***
	결손가정	2.76	.88	
부모취업유형	한부모취업	3.09	.90	t= 2.19*
	맞벌이	3.04	.90	
형제유무	없다	2.96	.93	t= -2.25*
	있다	3.05	.90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2. 비행

청소년비행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조사항목을 토대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유형의 항목들을 대상으로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사항목은 모두 9개로서 지위비행과 범죄형 비행으로 구분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 빈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비행

먼저 전체 비행빈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Ⅵ-7>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분석대상이 된 성, 교급, 지역 세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비행 빈도가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것은 청소년비행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광역시 청소년의 비행빈도가 서울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특성별로는 계층과 가족 세대구성, 부모결손 여부 및 부모 취업유형의 4개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별로는 하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중/상층 청소년과 비교하여 비행빈도가 높은 수준으로서 청소년 비행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3세대 가정 청소년이 2세대 가정 청소년보다, 결손가정 청소년이 양친가정 청소년보다, 맞벌이 가정 청소년이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보다 비행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가정과 맞벌이 가정 청소년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행빈도는 가족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지도·통제의 결여 또는 부족을 그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세대구성에 따른 비행빈도의 차이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외동 청소년의 비행빈도가 형제가 있는 청소년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I-7> 비행 빈도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1.47	.75	t= 8.61***
	여자	1.33	.59	
교급	중학생	1.30	.53	t= -11.83***
	고교생	1.48	.77	
지역	서울[a]	1.35	.62	F= 5.27**
	광역시[b]	1.43	.74	(a/c-c/b)
	시군부[c]	1.39	.66	
계층	하[a]	1.50	.76	F= 24.54***
	중[b]	1.35	.59	(b/c-a)
	상[c]	1.38	.72	
가족세대구성	3세대	1.45	.76	t= 2.83**
	2세대	1.38	.64	
부모결손여부	양친가정	1.39	.66	t= -3.68***
	결손가정	1.62	1.01	
부모취업유형	한부모취업	1.34	.61	t= -4.35***
	맞벌이	1.41	.68	
형제유무	없다	1.44	.77	t= 1.34ns
	있다	1.40	.67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유형별 비행 빈도

청소년비행은 일반적으로 지위비행과 범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위비행은 성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청소년이라는 신분상의 이유로 문제행동으로 간주되는 비행으로서 음주, 흡연 등이 대표적이다. 범죄는 실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청소년의 비행이 이와 같은 비행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이 된 비행항목을 지위비행과 범죄형 비행으로 구분하여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검토하였다.

먼저 지위비행 빈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성, 교급, 지역의 세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광역시/시군부 청소년이 서울 청소년보다 비행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 가족 세대구성, 부모결손 여부, 부모 취업유형에 따른 응답결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계층에 있어서는 하층에 속하는 청소년의 비행빈도가 중/상층 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3세대 가정 청소년이 2세대 가정 청소년보다, 결손가정 청소년이 양친가정 청소년보다, 맞벌이 가정 청소년이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보다 지위비행 빈도가 높은 수준이었고, 세대구성에서는 3세대 가정 청소년이 2세대 가정 청소년보다 지위비행을 더 자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형 비행의 경우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성별,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광역시 청소년이 서울/시군부 청소년보다 비행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위비행과는 달리 교급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특성별로는 계층과 가족 세대구성, 부모결손 여부, 부모 취업유형의 네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위계상 하층과 상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중간층 청소년보다 범죄형 비행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층 청소년의 비행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지위비행과 일치하지만 범죄형 비행의 경우 상층 청소년의 비행빈도가 하층 청소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이밖에 3세대 가정 청소년이 2세대 가정 청소년보다, 결손가정 청소년이 양친가정 청소년보다, 맞벌이 가정 청소년이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보다 비행빈도가 높은 수준으로서 지위비행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외동 청소년이 형제가 있는 청소년에 비해 지위비행, 범죄형 비행 모두에서 비행빈도가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I-8> 비행 유형별 빈도

		지위비행		범죄형 비행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1.55	1.03	1.40	.73
	여자	1.37	.80	1.30	.57
		t= 8.36***		t= 6.57***	
교급	중학생	1.25	.63	1.34	.58
	고교생	1.64	1.08	1.36	.71
		t= -18.56***		t= -1.60ns	
지역	서울[a]	1.39	.83	1.33	.64
	광역시[b]	1.49	.98	1.38	.70
	시군부[c]	1.46	.92	1.34	.62
		F= 4.64*(a-c/b)		F= 3.89*(a/c-b)	
계층	하[a]	1.64	1.08	1.38	.69
	중[b]	1.40	.83	1.32	.59
	상[c]	1.40	.90	1.37	.71
		F= 39.93***(b/c-a)		F= 6.21**(b-c/a)	
가족세대 구성	3세대	1.51	.97	1.40	.75
	2세대	1.44	.90	1.33	.61
		t= 2.26*		t= 2.76**	
부모결손 여부	양친가정	1.45	.91	1.34	.64
	결손가정	1.79	1.33	1 .49	.95
		t= -4.04***		t= -2.50*	
부모취업 유형	한부모취업	1.38	.83	1.31	.60
	맞벌이	1.48	.93	1.36	.65
		t= -4.67***		t= -2.65**	
형제유무	없다	1.50	.98	1.39	.76
	있다	1.46	.92	1.35	.64
		t= 1.12ns		t= 1.45ns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3. 학교생활 적응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이경숙, 2006; 이미자, 2009)의 조사문항을 참고하여 학교생활 적응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적응(교사와의 관계), 친구적응(학교친구와의 관계), 공부몰입의 세가지 영역에 대한 총 13개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역별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학교생활 적응

먼저 학교생활 적응의 전체 응답결과를 합산한 평균값을 청소년의 배경변인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Ⅵ-9>와 같다.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성, 교급 지역의 세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서울/광역시 청소년이 시군부 청소년보다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 부모 결손 여부, 부모 취업유형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계층위계상 상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적응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중간층, 하층의 순이었으며 세 집단간 차이가 뚜렷하였다. 또한 부모님이 모두 있는 청소년이 결손가정 청소년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이 맞벌이 가정 청소년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세대구성과 형제유무 변인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I-9> 학교생활 적응: 전체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2.97	.67	t= -3.41**
	여자	3.03	.59	
교급	중학생	3.06	.66	t= 6.73***
	고교생	2.95	.61	
지역	서울[a]	3.04	.61	F= 6.95**
	광역시[b]	3.02	.64	(c-b/a)
	시군부[c]	2.97	.64	
계층	하[a]	2.87	.63	F= 67.10***
	중[b]	3.02	.60	(a-b-c)
	상[c]	3.15	.70	
가족세대구성	3세대	3.03	.68	t= 1.61ns
	2세대	3.00	.62	
부모결손여부	양친가정	3.01	.63	t= 3.81***
	결손가정	2.83	.74	
부모취업유형	한부모취업	3.04	.62	t= 2.58*
	맞벌이	2.99	.63	
형제유무	없다	2.99	.68	t= -.24ns
	있다	3.00	.63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교사 적응

다음으로 학교생활 적응의 세가지 하위요인별로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VI-10>과 같다.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성별, 교급별,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광역시 청소년이 시군부 청소년에 비해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 가족 세대구성, 부모결손 여부, 부모 취업유형의 네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위계가 올라갈수록 교사와의 관계 적응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계층간 격차가 매

우 뚜렷하였다. 또한 3세대 가정 청소년이 2세대 가정 청소년보다, 양친가정 청소년이 결손가정 청소년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이 부모 맞벌이 가정 청소년보다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제유무별로는 외동 청소년이 형제가 있는 청소년보다 다소 점수가 높은 편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표 VI-10> 학교생활 적응: 교사 적응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2.99	.95	t= 3.58***
	여자	2.91	.93	
교급	중학생	3.03	.96	t= 5.76***
	고교생	2.90	.91	
지역	서울[a]	2.98	.92	F= 4.81**
	광역시[b]	3.00	.93	(c/a-a/b)
	시군부[c]	2.92	.95	
계층	하[a]	2.89	.93	F= 9.80***
	중[b]	2.96	.91	(a-b-c)
	상[c]	3.05	1.01	
가족세대구성	3세대	3.01	.96	t= 2.13*
	2세대	2.94	.93	
부모결손여부	양친가정	2.96	.94	t= 2.56*
	결손가정	2.81	1.00	
부모취업유형	한부모취업	2.99	.91	t= 2.00*
	맞벌이	2.94	.95	
형제유무	없다	2.98	.98	t= .78ns
	있다	2.95	.93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친구 적응

학교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들의 다음의 <표VI-11>과 같다.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성별, 교급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여자가 남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학교에서 친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청소년이 다른 지역 청소년들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 부모결손 여부, 형제유무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위계상 상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적응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중간층, 하층의 순이었다. 양친가정 청소년이 결손가정 청소년보다 큰 격차를 두고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부모의 결손 여부가 교우관계 형성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형제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또래집단 속에서의 인간관계를 학습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VI-11> 학교생활 적응: 친구 적응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17	.76	t= -12.50***
	여자	3.38	.65	
교급	중학생	3.32	.73	t= 5.03***
	고교생	3.23	.71	
지역	서울	3.31	.69	F= 1.49ns
	광역시	3.27	.72	
	시군부	3.26	.72	
계층	하[a]	3.10	.73	F= 66.60***
	중[b]	3.31	.67	(a-b-c)
	상[c]	3.39	.77	
가족세대구성	3세대	3.27	.74	t= -.12ns
	2세대	3.27	.71	
부모결손여부	양친가정	3.28	.71	t= 3.78***
	결손가정	3.08	.85	
부모취업유형	한부모취업	3.30	.71	t= .83ns
	맞벌이	3.28	.70	
형제유무	없다	3.20	.80	t= -2.54*
	있다	3.28	.71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공부 몰입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에 몰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VI-12>와 같다.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교급, 지역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서울/광역시 청소년이 시군부 청소년보다 공부에 대한 몰입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2> 학교생활 적응: 공부 몰입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2.76	.83	t= -1.25^{ns}
	여자	2.79	.77	
교급	중학생	2.82	.84	t= 4.56***
	고교생	2.73	.77	
지역	서울^{a}	2.85	.81	F= 9.90***
	광역시^{b}	2.80	.80	(c-b/a)
	시군부^{c}	2.73	.80	
계층	하^{a}	2.61	.80	F= 79.73***
	중^{b}	2.78	.76	(a-b-c)
	상^{c}	3.00	.87	
가족세대구성	3세대	2.81	.82	t= 1.73^{ns}
	2세대	2.77	.79	
부모결손여부	양친가정	2.78	.80	t= 3.49***
	결손가정	2.60	.84	
부모취업유형	한부모취업	2.83	.80	t= 3.15**
	맞벌이	2.76	.79	
형제유무	없다	2.79	.81	t= .72^{ns}
	있다	2.77	.80	

* p< .05, ** p< .01, *** p< .001; ( )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 부모결손 여부, 부모 취업유형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위계상 상층 청소년의 공부몰입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간층, 하층의 순으로서 세 집단간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양친가정 청소년이 결손가정 청소년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이 맞벌이 가정 청소년보다 공부에 대한 몰입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3세대 가정 청소년이 2세대 가정 청소년보다, 외동 청소년이 형제가 있는 청소년보다 몰입도 점수가 다소 높은 편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4. 요약

심리특성

가족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권위주의 성향, 삶에 대한 만족감의 다섯가지 영역에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은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성, 교급,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서울 청소년이 광역시/시군부 청소년보다 높은 자아정체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 특성 변인에서는 계층에서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계층위계가 높아질수록 높은 자아정체감을 나타내어 상층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가장 높고 하층 청소년이 가장 낮았으며 세 집단간 차이는 매우 뚜렷한 수준이었다.

둘째,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인구학적 특성변인에서는 지역별로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서울 청소년이 광역시/시군부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수준이었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과 부모결손 여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수준일수록 점진적으로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상층이 가장 높고 이어서 중간층, 하층의 순이었으며 세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뚜렷하였다. 또한 양친가정 청소년이 결손가정 청소년에 비해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어 부모의 결손 여부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권위주의 성향은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로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권위주의 성향을 나타내었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과 가족 세대구성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계층위계상 상층과 하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중간층 청소년에 비해 높은 권위주의 성향을 나타내었고, 3세대 가정 청소년이 2세대 가정 청소년보다 권위주의 성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3세대 가정의 경우 조부모님과의 동거에 따라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족분위기가 청소년들

의 권위주의적 성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청소년과 학부모의 삶에 대한 만족감 점수는 두 집단이 동일한 점수를 나타내어 자녀와 부모세대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청소년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성별, 교급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수준이었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 부모결손 여부, 부모 취업유형, 형제유무 변인에서 하위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계층별로는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만족감 점수가 증가하였고, 집단간 격차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양친가정 청소년이 결손가정 청소년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이 맞벌이 가정 청소년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행동특성

가족배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청소년의 행동특성으로서 청소년의 비행과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비행빈도는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 교급, 지역의 세 변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비행 빈도가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것은 비행관련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광역시 청소년의 비행빈도가 서울과 시군부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추가적인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 특성별로는 계층과 가족 세대구성, 부모결손 여부 및 부모 취업유형의 4개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별로는 하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중/상층 청소년과 비교하여 비행빈도가 높은 수준으로서 청소년비행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3세대 가정 청소년이 2세대 가정 청소년보다, 결손가정 청소년이 양친가정 청소년보다, 맞벌이 가정 청소년이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보다 비행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가정과 맞벌이 가정 청소년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행빈도는 가족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지도·통제의 결여 또는 부족을 그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세대구성에 따른 비행빈도의 차이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교사적응, 친구적응, 공부몰입의 세가지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이들 세가지 유형의 응답결과를 합산한 전체 점수를 하위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성, 교급 지역의 세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서울/광역시 청소년이 시군부 청소년보다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 부모결손 여부, 부모 취업유형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계층위계상 상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적응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중간층, 하층의 순이었으며 세 집단간 차이가 뚜렷하였다. 또한 양친가정 청소년이 결손가정 청소년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이 부모 맞벌이 가정 청소년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1. 연구요약과 논의
2. 정책방향 제언

결 론

1. 연구요약과 논의

가. 연구의 개요

한국사회는 근대화·산업화과정을 통하여 유례 없는 압축성장을 경험함으로써 성장환경과 역사적 경험을 달리하는 세대간 차이와 갈등이 주요한 사회현안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본 연구는 한국사회 세대문제의 영역별 실태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3개년 연속사업의 일환으로서, 올해에는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를 통해 가족과 가정생활 관련 청소년과 부모세대(학부모)의 의식 및 가치관을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중·고교생과 그 학부모를 모집단으로 하여 확률표집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중·고교생 6,979명, 학부모 4,010명)을 대상으로 2010년 6~7월의 두달간에 걸쳐 학급단위 집단조사(중·고교생)와 자녀를 통한 개별조사(학부모)의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나. 조사결과

조사의 내용은 크게 가족의 개념, 가족의식·가치관, 가족기능·가사활동, 가족관련 개인 심리·행동 특성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조사영역별 주요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의 개념

가족의 의미

가족의 의미에 대하여 청소년과 학부모는 모두 “혈연공동체” “생활공동

체” “애정공동체”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혈연과 주거를 같이 하는 단위로서의 가족 개념은 전통사회에서부터 유지되어온 보편적인 가족의 정의라고 할 수 있지만, 이와 더불어 애정공동체로서의 가족이 중시되고 있는 것은 세대를 불문하고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식의 한 단면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의 의미에 대한 청소년들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혈연공동체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은 모든 집단에 공통적이지만, 생활공동체와 애정공동체의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은 집단별 차이가 뚜렷하였다. 여자와 고교생, 계층위계상 상층에 속하는 청소년들, 형제가 없는 외동 청소년들은 생활공동체보다는 애정공동체로서의 가족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가족의 범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친인척의 순위에서 부모-자녀세대간의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긍정응답률이 높은 상위 5개 항목을 제시하면, 청소년은 이모를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간주하였고 이어서, 외삼촌, 고모, 백부·숙부, 이모부의 순서인 반면, 학부모는 형수/새언니, 매형/형부, 백부·숙부, 조카/질녀, 백모·숙모의 순으로 나타나 한 항목(백부·숙부)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이 서로 불일치하였다.

청소년들은 부모세대보다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친인척의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가족개념이 부계/혈연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관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접촉과 친밀감을 중시하는 생활 중심의 가족관으로 옮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애완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과반수에 달하는 반면(57.7%), 학부모는 3할 수준(34.5%)에 머문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부계/모계친척에 대한 태도에서 부모-자녀세대간 차이가 뚜렷하였다. 청소년은 모계친척을 부계친척보다 가깝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세대와 상반되는 태도를 나타내었다.

친척의 성별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세대 모두 남자친척보다는 여자

친척을 가깝게 여기고 있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부계/남성 중심의 가족관이 세대를 불문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부모세대의 경우 친척관계에서 부계 중심의 관념은 유지되고 있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혈연/혼인친척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과 부모세대가 일치하였다. 즉, 청소년과 학부모는 모두 혼인을 통해 맺어진 친척보다는 혈연에 기초한 친척을 보다 가깝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범위의 인식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남자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부친이 모친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여자 청소년에 대한 부친과 모친의 영향력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가족관에 있어서 부친→자녀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부계의 영향력이 모계의 영향력(모친→자녀)보다 높은 수준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가족의식·가치관

가족의식·가치관

청소년은 부모세대와 비교하여 보다 개방적인 가족의식을 보유하고 있다. 가족의식의 하위영역 중 부모부양의식을 제외한 나머지 네 영역에서 부모세대가 청소년들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가부장의식과 성역할관에 있어서 부모-자녀세대간 차이는 매우 현저하였다. 효의식과 제도적 가족관에서는 세대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부모세대가 보다 보수적이었다. 부모부양의식은 청소년이 부모세대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아야할 부모세대의 자녀에 대한 배려와 현실적인 고려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섯가지 하위영역별 점수를 합산(평균값)한 전체 점수에서도 부모세대가 청소년들보다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청소년과 비교하여 부모세대가 보수적인 가족의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청소년과 학부모의 가족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어 자녀는 부모의 가족의식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 세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자녀의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과 부친/모친간의 상관관계는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모친과 여자 청소년의 상관관계가 부친-여자 청소년의 상관관계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이것은 가족의식의 측면에서 남자 청소년에 대한 부친과 모친의 영향력은 거의 대등한 수준이지만, 여자 청소년에 대해서는 모친의 영향력이 부친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가족의식은 하위집단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부모부양의식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영역에서 진보적인 태도를 나타내었고, 특히 가부장의식과 성역할관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매우 현격한 수준이었다. 계층별 가족의식의 차이도 뚜렷하여 제도적 가족관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중/상층 청소년이 하층 청소년보다 진보적인 가족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세대구성별로는 3세대 가정 청소년이 2세대 가정 청소년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동거하고 있는 조부모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맞벌이 가정 청소년이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과 비교하여 가부장의식과 성역할관, 효의식의 측면에서, 외동 청소년이 형제가 있는 청소년에 비해 성역할관의 측면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가정생활만족도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가정생활 만족도의 세대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서 상호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가족특성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성별에서만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만족도가 높았는데, 가족 특성 변인에서는 분석대상이 된 5개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위계상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증가하여 하층이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상층이 가장 높았고,

세 집단간 차이는 큰 격차를 두고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2세대 가정이 3세대 가정보다, 양친가정이 결손가정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이 맞벌이 가정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현재의 가정생활에 보다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족기능·가족관계

가족기능

청소년과 학부모의 가족응집성/적응성 점수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상호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의 가족응집성/적응성 점수가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 부모세대가 자녀보다 가정의 건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응집성에 대한 청소년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교급별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가족응집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세대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네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위계상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자기 가족의 응집성을 높게 평가하였고 상, 중, 하의 세 집단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양친가정 청소년이 결손가정 청소년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이 맞벌이 가정 청소년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가족의 응집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가족적응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교급별 변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자가 남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자기 가정의 응집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별 하위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가족적응성을 높게 평가하였고 세 집단간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의 점수는 모친이 부친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권

위적 양육태도의 점수는 양친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지도에 있어서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엄부자모"(嚴父慈母)의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친/모친의 양육태도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동일한 유형의 양육태도의 상관관계가 서로 상이한 유형의 상관관계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상호보완적이라기 보다는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친보다는 모친이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민주적 양육태도에 대한 청소년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비교해 보면, 계층과 부모결손 여부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양친가정이 편부/편모 가정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보다 민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층위계상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보다 민주적이었고 세 하위집단간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권위적 양육태도에 대한 청소년의 하위집단별 차이는 성별과 교급, 가족세대구성, 부모결손 여부의 네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부친과 모친 모두 여자보다는 남자 자녀, 고교생 자녀보다는 중학생 자녀에 대하여 보다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었다. 세대구성에 있어서는 3세대 가정이 2세대 가정보다 권위적이었는데 이것은 조부모님의 동거에 따른 보다 엄격한 가정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친가정의 경우 한부모가정과 비교하여 민주적/권위적 양육태도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되는데, 이것은 두가지 양육태도가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부모의 특성과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상호보완적으로 병행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청소년들이 평가한 부모의 개방형 의사소통 점수는 모친이 부친보다 높은 한편,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는 부친이 다소 높은 편으로서, 청소년들은 가정내에서 부친보다는 모친과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친/모친과의 의사소통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동일한 유형의 의사소통 방식간에는 정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상이한 유형의 의사소통 방식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서 부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일한 방향으로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에 대한 청소년들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계층, 부모결손 여부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양친가정이 한부모 가정보다, 계층위계상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부친/모친과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친과의 의사소통은 남자가 여자보다, 모친과의 의사소통은 여자가 남자보다 원활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동성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문제형 의사소통에 대한 청소년들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배경변인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부친/모친 모두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은 계층과 부모 취업유형으로서, 계층위계상 하층에 속하는 청소년이 중/상층 청소년보다, 맞벌이 가정이 한부모 취업 가정보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모친과의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는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서울이 광역시/시군부보다, 외동 청소년이 형제가 있는 청소년보다 높았으며, 부친과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점수는 3세대 가정이 2세대 가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간 결속감

청소년들이 느끼는 부모와의 세대간 결속감은 성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성별에 따른 세대간 결속감을 비교하면 남녀 청소년 모두 모친과의 결속감이 부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정서적·심리적 친밀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와의 세대간 결속감 점수는 교급, 계층, 부모결손 여부, 부모 취업유

형, 형제유무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부모와의 결속감이 높은 수준이었고, 계층별로는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결속감 점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양친가정이 한부모 가정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이 맞벌이 가정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부모에 대한 높은 결속감을 나타내었다.

4) 가족활동·가사활동

가족활동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하는 가족활동의 빈도는 모든 배경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인구학적 특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시군부 청소년이 서울 청소년보다 부모와의 활동빈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위계상 상층이 중·하층보다, 2세대 가정이 3세대 가정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이 맞벌이 가정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가족활동 빈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가정내 일상활동을 부모 중 주로 누구와 함께 하는지 비교한 결과조사대상이 된 세가지 유형의 활동(TV시청, 아침식사, 저녁식사) 모두 모친과 함께 하는 빈도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내 일상활동 빈도의 응답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비교하면, 인구학적 특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서울/광역시 청소년이 시군부 청소년보다 부모와 함께 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상층이 중간층보다, 중간층이 하층보다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2세대 가정이 3세대 가정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이 맞벌이 가정보다 부모와 함께하는 빈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쇼핑·외식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인구학적특성별로는 성, 교급변인에서,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분석대상이 된 5가지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부모와 함께 쇼핑이나 외식을 하는 빈도가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계층별로는 상층이 중간층보다, 중간층이 하층보다 높은 빈도를 나타

내었다. 이밖에 2세대 가정이 3세대 가정보다, 양친가정이 결손가정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이 맞벌이 가정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부모와 함께 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함께 야외체험활동을 하는 빈도를 배경변인별로 비교해 보면, 교급, 계층, 부모결손 여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양친가정이 결손가정보다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계층별로는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빈도가 증가하였고 상/중/하의 세 집단간 차이가 뚜렷하였다.

가사활동

가사활동 유형별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비교하면, 집안청소하기의 참여빈도가 가장 높고, 이어서 식사준비하기, 쓰레기치우기, 설거지하기의 순이었으며 세탁·빨래하기의 참여빈도가 가장 낮았다.

청소년들의 가사활동 참여도를 배경변인별로 비교하면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교급별 차이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참여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교생의 입시준비로 인한 정신적·시간적 여유부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가족특성별로는 계층, 부모결손 여부, 부모 취업유형, 형제유무의 4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별로는 상층과 하층 청소년이 중간층 청소년에 비해 가사활동 참여빈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결손가정이 양친가정보다, 맞벌이 가정이 한부모 취업 가정보다 청소년의 가사활동 참여도가 높았는데, 부모의 결손/취업에 따른 일손 부족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가사활동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활동 분담 정도를 성별로 비교하면 청소년들은 일정 수준의 성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모세대는 대부분의 가사활동을 모친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의 경우 식사준비/설거지/세탁·빨래는 여자가 집안청소/쓰레기 치우기는 주로 남자가 담당하고 가사활동 전체 참여빈도도 동등한 수준이지만, 부모세대는 거의 모든 유형의 가사활동에서

여자의 참여빈도가 남자보다 현격하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학부모의 가사활동 참여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남자 자녀의 가사활동 참여는 부친의 가사활동 참여 정도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여자 자녀는 모친이 가사활동을 많이 담당할수록 오히려 가사활동 참여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모친과 여자 자녀는 가사활동 참여에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가족관련 심리·행동 특성

심리특성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은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성, 교급,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서울 청소년이 광역시/시군부 청소년보다 높은 자아정체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에서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계층위계가 높아질수록 높은 자아정체감을 나타내어 상층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가장 높고 하층 청소년이 가장 낮았으며 세 집단간 차이는 매우 뚜렷한 수준이었다.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인구학적 특성변인에서는 지역별로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서울 청소년이 광역시/시군부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수준이었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과 부모 결손 여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수준일수록 점진적으로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상층이 가장 높고 이어서 중간층, 하층의 순이었으며 세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뚜렷하였다. 또한 양친가정 청소년이 결손가정 청소년에 비해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어 부모의 결손 여부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권위주의 성향은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로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권위주의 성향을 나타내었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과 가족 세대구성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계층위계상 상층과 하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중간층 청소년에 비해

높은 권위주의 성향을 나타내었고, 3세대 가정 청소년이 2세대 가정 청소년보다 권위주의 성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3세대 가정의 경우 조부모님과의 동거에 따라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족분위기가 청소년들의 권위주의적 성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청소년과 학부모의 삶에 대한 만족감 점수는 두 집단이 동일한 점수를 나타내어 자녀와 부모세대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청소년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성별, 교급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수준이었다. 가족특성 변인에서는 계층, 부모결손 여부, 부모 취업유형, 형제유무 변인에서 하위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변인에서는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만족감 점수가 증가하였고, 집단간 격차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양친 가정 청소년이 결손가정 청소년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이 부모 맞벌이 가정 청소년보다, 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외동 청소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행동특성

청소년의 비행빈도는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 교급, 지역의 세 변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비행 빈도가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것은 비행관련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가족특성별로는 계층과 가족 세대구성, 부모 결손 여부 및 부모 취업유형의 4개 변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별로는 하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중/상층 청소년과 비교하여 비행 빈도가 높은 수준으로서 청소년비행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3세대 가정 청소년이 2세대 가정 청소년보다, 결손가정 청소년이 양친가정 청소년보다, 부모 맞벌이 가정 청소년이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보다 비행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가정과 맞벌이 가정 청소년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행빈도는 가족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지도·통제의 결여 또는

부족을 그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세대구성에 따른 비행빈도의 차이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도는 인구학적 특성 변인에서는 성, 교급 지역의 세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서울/광역시 청소년이 시군부 청소년보다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특성 변인에서는 계층, 부모 결손 여부, 부모 취업유형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계층위계상 상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적응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중간층, 하층의 순이었으며 세 집단간 차이가 뚜렷하였다. 또한 양친가정 청소년이 결손가정 청소년보다, 한부모 취업 가정 청소년이 부모 맞벌이 가정 청소년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방향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사회의 가족의식·가정생활의 영역별 실태를 파악하여 가족관련 이론의 정립과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나타난 시사점을 토대로 앞으로 청소년정책이 추구해야 할 과제를 시론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5].

가. "자녀지도 편람" 개발·보급

가족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성과 자질, 가치관을 함양하는 일차적인 사회화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의 전통적인 성격과 기능이 변질되거나 상실되어 가고 있다. 과거 가족이 담당했던 교육적, 경제적, 종교적, 오락적 기능 등은 각각 학교, 직장, 교회, 매체로 넘어가고 혈연에 기반한 심리적·정서적 일체감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 교육의 기능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정의 핵심적인 기능임을 고려할 때 가정교육의 기능 회복과 강화는 청소년정책이 추구해야 할 긍국적인 목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교육은 지식이나 기능 습득 중심의 학교교육과는 달리 자녀의 인격, 정서, 사회성의 형성과 함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바람직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로서 가정환경이나 분위기, 그리고 부모의 지도와 교육의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은 학교교육의 제한점들을 보완하고 자녀의 전인

[15] 제안내용 중 "세대별 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 및 "세대공동체 활동 활성화"는 본연구의 제2차년도 보고서(이종원, 김영인, 2009)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적 성장을 돕기 위한 적절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청소년교육과 관련해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강조가 컸었던 반면에 가정교육이나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부족했으며 이로 인해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모교육과 청소년기 자녀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자료의 개발이 미흡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지도 과정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녀지도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가칭 "자녀지도 편람"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자녀지도 편람의 내용구성과 개발·보급 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초연구 : 학부모 대상의 설문 및 면접조사를 통해 일상생활 과정에서 자녀지도와 관련하여 겪게 되는 문제의 유형과 내용 파악. 청소년관련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성장기 자녀지도를 위하여 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 정리.

② 편람 개발 : 기초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편람 개발. 성장기 자녀 이해를 위한 기초지식, 문제유형별 자녀지도 방안, 자녀지도 사례집 등으로 내용 구성.

③ 보급·확산 : 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책자, CD, 인터넷 게시 등 다양한 형태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보급. 각급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교재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나. "가정의 날" 운영 내실화

1989년 제44차 UN총회에서는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매년 5월 15일을 "세계 가정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동향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정의 날은 세대간 대화의 단절과 의식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대사

회에서 가족 공동체와 가족 가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기념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의 날과 관련된 중앙부처 차원의 행사는 2010년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기념식과 유공자 포상(2010. 5. 17)이 유일하며, 이에 따라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국민의 대다수가 그 존재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의 날이 국가의 공식적인 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요인으로는 인지도가 높은 다른 기념일(스승의 날)과 일자가 중복되는 점, 관련 행사나 프로그램의 미비한 점 등을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이를 계기로 가족 공동체와 가족 가치의 중요성을 사회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의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의 날과 관련된 행사 및 프로그램은 오히려 민간기업 단위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예컨대, 매달 특정 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퇴근시간을 앞당기고 가족 식사권 등을 제공하는 업체가 금융권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16].

이와 같은 민간기업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가정의 날 운영의 내실화 및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가정의 날 기념일의 조정 : “스승의 날”과의 중복을 피하고, 가족 기념일로서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가정의 날을 “어버이날”(5.8)이나 “어린이날”(5.5)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일상적인 정례행사화 : 정부부처·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매월 특정일을 자체적으로 “가정의 날” 또는 “패밀리 데이”로 지정·운영토록 하고 점차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 이 경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이 각급 학교의 휴무일임을 고려하여 둘째 또는 넷째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17]함으로써 자녀

[16] 한겨레신문(2009. 11. 29). “한겨레특집: 가족친화경영”

[17] 여성가족부는 2011년부터 “온(溫)가족 행복키움” 사업의 일환으로 매주 셋째 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활동의 편의성 측면에서 각급 학교의 휴무일을 고려하여 일자의 조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와 함께하는 가족활동의 편의성 제고.

③ 가족친화기업(기관) 지정 :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가정의 날 운영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 또한 직원의 가족활동을 돕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유연근무제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을 "가족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하고 표창(민간기업)하거나 기관평가시 가점을 부여(공공기관)함으로써 가족친화적 경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

다. 세대별 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정책과 제도가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검토·분석하는 성별 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1995년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의 행동강령에 기초한 것으로서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그 근거조항[18]이 마련되었고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성별 영향평가제도는 국가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여성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과 더불어 사회적 관심과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대표적인 소수집단으로는 청소년과 노인세대를 들 수 있다. 청소년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제도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로부터 배제되어 복지의 시혜대상으로 간주될 뿐 시민적 권리의 주체로서의 측면은 간과되고 있다. 또한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더불어 노년층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가 정책과 제도가 세대별로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검토하는 세대별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세대별 영향평가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별 영향평가제도가 정착단

[18] 성별 영향평가제도의 근거조항(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고려하여 먼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여성, 청소년, 노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다양한 소수집단의 권익을 포괄적으로 배려하는 사회적 소수자 영향평가제도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세대별 영향평가제도의 시행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해외 각국의 정책, 제도 및 입법 사례 검토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 배려를 위한 선진각국의 정책, 제도, 법령 현황 및 운영 사례에 대한 분석 및 한국사회의 적용가능성 검토

② 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여론 수렴 : 일반국민 및 관계전문가, 정책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조사, 의견조사 및 공청회 등 실시

③ 세대별 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 :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령 제·개정 방안, 부처별 업무분담 계획 및 추진체계,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시행

라. 세대공동체 활동 활성화

과거 대가족 제도하에서는 가정내에서 일상적인 세대간 교류와 접촉이 가능했지만 핵가족화의 진전과 더불어 청소년과 중·장년세대, 특히 노인세대와의 접촉기회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대간 교류와 대화 부족으로 인한 세대갈등 현상이 주요한 사회현안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세대간 상호이해와 통합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세대공동체 교육 또는 세대공동체 활동(최상민, 한정란, 2007). 세대공동체란 여러 세대 혹은 여러 연령집단이 한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McClusky, 1990). 각 세대들은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활동을 통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세대공동체 활동의 효과는 지역사회, 청소년세대, 중·장년세대의 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최상민, 한정란, 2007: 165-166).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및 지원 시스템을 형성을 통해 관련 조직이나 단체들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청소년세대는 다른 세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형성함으로써 비행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지양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장년, 노인세대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독감과 소외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세대공동체 활동은 학습이나 레크리에이션, 이벤트나 자원봉사 등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다. 현재 일부 시설이나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세대공동체 활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머물고 있다. 세대공동체 활동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세대공동체 활동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 지역사회내의 학교, 청소년단체·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세대공동체 활동 유관기관간의 상호 연계·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프로그램 공동 기획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② 활동 프로그램 모형 개발 및 보급 : 선진각국의 관련정책 및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우리 실정에 맞는 유형별 활동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운영 실시.

③ 세대공동체 활동 운영사례집 제작·보급 : 시설·단체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수 사례를 외국의 사례와 함께 수집·정리하여 프로그램 매뉴얼의 형태로 제작하여 보급.

참 고 문 헌

가영희 (2008).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시설환경, 6(4), 31-42.

곽한영 (2004). 촛불시위참여가 청소년의 정치의식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9 교육통계연보.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구인회 (2003).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 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82-112.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미래예측을 위한 청소년참여 인권 환경 및 정책 분석.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권재환, 이은희 (2006). 남녀 청소년의 충동성,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의 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7(1), 325-351.

김갑숙, 전영숙 (2009). 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과 자아분화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4), 79-94.

김경연 (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규원 (1995).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가족학논집, 7, 213-255.

김기리 (2007).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 기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범 (1996).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덕성과 내집단-외집단 구별: 문화비교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김명자 (2004). 부모와 대학생 자녀의 가족생활에 관한 가치의식과 가족건강성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55-80.

김미숙 외 (1995). 가족과 사회. 서울: 한국여성연구소.

김송애, 조병은 (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03-322.

김수현 (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친구집단의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신영, 오성배, 이명진 (2007). 한국청소년 가치관 조사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안자 (2009). 가족레질리언스가 가족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7, 73-101.
김영인 (2007). 청소년의 참여와 시민성 함양. 서울: 한국학술정보.
김영화 (1991). 한국교육과정 변천의 사회경제학적 함의, 한국사회와 교육갈등. 서울: 양서원.
김영희, 안상미 (2008).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 청소년학연구, 15(2), 1-30.
김완석, 김영진 (1997). 주관적 안녕 척도 : 공동생활 및 활동과의 연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1), 61-81.
김원태 (2001). 고등학교에서의 사회참여 체험교육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3집, 49-88.
김윤정, 함정현, 이창식 (2005). 부양의식의 세대차이와 결정변인에 관한연구: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학연구, 12(4), 243-261.
김윤희 (1989). 부부관계, 부모-자녀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자녀 비행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73-1002.
김재신, 한성열 (2004). 권위주의 성격에 따른 공정과 인정의 갈등상황에서의 판단: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97-114.
김정란, 김경신 (2009). 자족기능과 가족주의 가치관이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133-149.
김정애 (1999).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철규, 김선업, 이철 (2008).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여 10대의 사회적 특성. 경제와사회, 80, 40-67.
김태길 (1982).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서울: 문음사.
김현옥 (2002). 가족주의 의식의 구성과 변화 - 한국사회에서의 연령집단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문화, 14(1), 3-30.
김혜영 (2001). 한국대학생의 가족주의 변화: 성별격차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2(1), 79-106.
김혜영 (2004). 한국 가족문화의 세대별 특징. 한국사회학회 2004년 가을 기획심포지움 발표문.

김혜영 (2008). 한국가족의 다양성 증가와 그 이중적 함의. 아시아여성연구, 47(2), 7-37.
김흥규, 최재향 (2006). 초등학생의 학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유형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미래교육연구, 13(1), 57-79.
남정숙 (2007). 청소년들의 부양의식에 따른 세대차이와 부양결정 변인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충래 (2000). 로즌버그의 자긍심척도와 집단자긍심척도를 활용한 교포청소년의 심리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0, 107-135.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 -대학생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4(2), 146-168.
민현주, 안상수, 황정미 (2008). 여성의 시각에서 본 건국 60주년의 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편, 한국여성 삶의 변화와 미래 아젠다.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경숙 (2004). 노령화와 세대.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미혜 (2008).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이 사회적 고립감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세일 (2003). "왜 청소년 참여인가?". 청소년정책연구 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박영균, 박영신, 김의철 (2006). 청소년과 부모세대간 문화갈등 요인분석 및 문화소통 증진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영신, 윤영진, 김의철 (2006). 한국사회와 정치에 대한 인식과 신뢰: 청소년과 성인세대의 심리차이 분석. 아동교육, 15(2), 257-270.
박재흥 (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47-78.
박재흥 (2003).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코호트적 시각에서. 한국사회학, 37(3), 1-23.
박재흥 (2005) 한국의 세대문제: 차이와 갈등을 넘어서. 서울: 나남.
박재흥 (2009). 세대명칭과 세대 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81, 10-34.
박형숙, 신효식 (1989).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어머니의 여가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5-30.
배은경 (2006).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여성학회. 여성의 몸 집중포럼 Ⅲ: 출산지원정책과 여성의 재생산권 심포지움 발표문.
백미화 (1990). 가족주의가치와 가족결속력과의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진아 (2009). 한국의 가족 변화 : 가부장성의 지속과 변동. 현상과인식, 33(1/2), 204-224.

서영석, 이정림, 차주환 (2006). 성역할태도, 종교성향, 권위주의 및 문화적 가치가 대학생의 동성애혐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18(1), 177-199.
서하진, 김정옥 (200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141-178.
손승영 (2007). 한국사회 저출산의 단계별 분석과 젠더 논의. 담론 201, 10(1): 207-243.
송근자 (2004).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대학생의 노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순, 송희옥 (2005). 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신념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97-208.
송유진 (2005). 한국과 중국 도시가족에서의 성역할 분담 비교연구 -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1), 111-136.
송현애 (1986).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 - 성인자녀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수진 (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연희 (2001). 자아존중감, 청소년 비행,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3(1), 107-132.
신인숙 (1988).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혜섭 (2005). 가정폭력 요인과 가족구조 요인이 남녀 학생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문화, 17(2), 63-88.
안병수 (2007). 가족여가 활동의 사회적 의미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8(1), 3-12.
양옥경 (2001). 가족개념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 175-199.
양점도, 박영국 (2009). 가족요인과 또래지지가 자기효능감 및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4), 211-235.
어수영 (1997). 가치 변화와 삶과 정치 - 한국, 일본, 미국, 멕시코 4개국 비교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여성한국사회연구소 (2005).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법문사.
오원옥 (2009). 대학생의 결혼의식, 원가족 건강성 및 성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5(2), 232-240..
오윤선 (2008).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 유형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5), 23-49.
오찬호 (2009). 공포에 대한 동년배 세대의 상이한 반응: 2008년 촛불시위에서 20대를 이해하는 몇 가지 가설. 한국청소년연구, 20(2), 357-381.

옥선화 (1986). 가족주의가치 측정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3), 143-170.
옥선화, 김주희, 박혜인, 신화용, 한경혜, 고선주 (1998). 가족/친족 해체와 재구성: 서울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1), 157-182.
원용진, 이동연, 노명우 (2006). 청소년주의와 세대 신화. 한국언론정보학보, 36, 324-348.
유계숙 (2005). 가족의 다양성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과문화, 17(2), 211-233.
유영주 (1999). 건전가정과 건강가족의 개념 설정에 대한 논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93-102.
유영주 (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윤홍식, 조막래, 윤성호 (2006). 정보화로 인한 미래 가족의 경제적 기능변화에 대한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은기수 (2004). 한국인의 가족가치: 5개국 비교연구. 정신문화연구, 27(3), 137-182.
은기수 (2006). 가족가치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성별 및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8(3).
은기수, 이윤석 (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인구학, 28(1), 107-132.
이경석 (2003). 중학생의 여가의식 및 활동참여 실태: 고양시 소재 중학교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숙 (2006). 초등학생 과외학습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희 (1974). 어머니의 직업유무가 자녀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가정학회지, 7(1), 187-202.
이광규 (1992). 가족과 친족. 서울: 일조각.
이기영, 김의숙, 구혜령 (1995). 부부의 공유여가시간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3), 113-125.
이미자 (2009). 초등학교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및 조절효과 탐색.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숙희, 고인숙, 심정선(2009). 부모가 지각한 원가족과 부모의 양육스타일 및 세대간 전이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2), 111 -134.
이은희, 최태산, 서미정 (2000). 남녀 청소년들의 우울에 미치는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의 내재적 지원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69-84.
이재춘 (2005). 효 윤리체계에 의한 중학생의 효 의식 조사연구: 성산효도대학원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이민아, 김순옥 (2007). 청소년의 가족여가활동과 가족건강성 연구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생활과학, 10, 1-17.
이문진, 이연주, 김재운 (2009). 가족여가의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2), 5-13.
이정환 (2003). 모자가족 아동의 학업능력: 양부모 가족 아동과의 비교를 통해. 가족과 문화, 25(2), 61-80.
이종원, 김영인 (2009).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Ⅱ- 사회. 정치의식과 참여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지원 (2006). 가족기능이 대학생의 결혼관 및 자녀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진선, 정문자 (2007).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부모역할 만족도 및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5), 85-94.
이창호, 김종길, 이항우(2008). 초·중·고.대학생 의식구조 비교에 의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 Ⅰ: 세대관 및 교육·정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태진 (2001). 가족여가활동이 가족체계 역동성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현주, 강민희 (2008). 청소년용 부모양육태도 척도(PAQ) 타당화 및 부모양육태도와 가족 기능과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9(3), 5-31.
이효재 (1991). 가족과 사회. 서울: 경문사.
임성윤 (2006). 중학생이 지각한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여구, 12(4), 339-379.
임희숙 (2005). 학교 공동체의 참여의 시민교육 모색 - 참여민주주의 시민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발전연구, 21(2), 21-41.
장해순, 강태완 (200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3(3), 107- - 112.
장현섭 (1993). 한국사회는 핵가족화하고 있는가.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29, 42-80.
전귀연, 최보가 (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부모-청소년기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3), 157-173.
전상진 (2002). 세대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사회학회 2002 추계 특별심포지움 자료집, 3-28.

전상진 (2004). 세대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세대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학, 38(5), 31-52.
전현진, 박성연 (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153-169.
정동하 (2009).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부모-조부모 친밀감 및 노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3), 29-49.
정명숙, 김혜리 (2005). 삶에 대한 가치관과 청소년의 일상행동에 대한 지각에서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1), 115-135.
정태인, 유홍준 (2002). 주부의 취업이 청소년 자녀의 인성, 학업과 교우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3(1), 269-297.
정희준 (1995). 가족주의 가치와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명한,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집문당.
조미숙, 오선주 (199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관계 변인과 청소년의 가족가치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67-89.
조윤주 (2002).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 갈등 및 부양의무감과 부모부양의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정문, 장상희 (2004). 가족사회학. 서울: 아카넷.
조희금, 김경신, 정민자, 송혜림, 이승미, 성미애 편 (2006). 건강가정론. 서울: 도서출판 신정.
최길례 (2002). 가족의 여가 활동이 정서적 역동성과 가족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상민, 한정란 (2007). 세대공동체 봉사학습 프로그램의 효과 - 청소년과 시설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1), 163-177.
최순자 (2007). 유아를 둔 한국과 일본 부모의 양육태도 비교.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2(1), 111-130.
최외선, 김갑숙, 최선남 (2001). 편부모가족 자녀의 의사소통과 특성불안에 관한 연구. 재활심리연구, 8(2), 191-207.
최인재 (2007).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분화 및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3), 611- - 628.
최인재 (2009).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자아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 - 가족응집성의 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4), 1-23.
최재석 (1982). 한국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최재석 (2009). 한국의 가족과 사회. 서울: 경인문화사.
최정혜 (199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정혜 (1998). 기혼자녀의 효 의식, 가족주의 및 부모 부양의식. 한국노년학, 18(2), 47-63.
통계청 (2010. 5. 20). 통계청 사회조사를 등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부부의 자화상 (보도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각년도.
표경선, 안도희 (2006).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완벽주의, 성취목적, 부모 양육방식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모형. 아동교육, 15(2), 211-227.
표하나 (2005). 가족기능이 아동의 품행장애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한경혜 (1991). 세대관계 측면에서 본 Life course 전이와 역연쇄전이의 시기: 결혼 연령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1(1), 36-49.
한경혜 (2004). 생애사 연구를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한국노년학, 24(4), 87-106.
한경혜, 강유진 (2002). 한국여성노인의 생애사 분석을 통한 노년의 삶의 이해. 가족관계학회지, 7(3), 99-128.
한국사회학회 (2004).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서울: 나남.
한국여성개발원 (2006). 2006 여성통계연보.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한규석 (2010).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한남제 (1997). 한국가족제도의 변화. 서울: 일지사.
한완상 (1991). 한국사회에서 세대갈등에 관한 한 연구. 사상, 3(1), 248-309.
한유화, 정진경 (2007). 2 요인 자아존중감 척도: 개인주의적 및 집단주의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117-131.
한정란, 이금룡, 원영희 (2006). 청소년과 노년 세대간 태도 분석: 상호지향성 및 중요도-실행도 분석모형을 기초로. 한국노년학, 26(2), 381-402.
함인희 (1997). 현대사회 아버지 상의 재발견. 가족과 문화, 2, 1-24.
함인희 (2002).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와 세대 경험. 임희섭 교수 정년퇴임기념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함인희 (2007). 세대분화와 세대충돌의 현주소.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국민통합. 인간사랑, 241-272.
허정철 (2008).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0(3), 123-147.
허훈 (1988). 한국대학생들의 노부모에 대한 가족부양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8, 89-106.
홍덕률 (2003). 한국사회의 세대연구. 역사비평, 2003 년(가을), 150-191.
홍성희, 문숙재 (1991).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제약요인. 대한가정학회지, 29(3),

153-174.
황상민, 김도환 (2004).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세대의 심리적 정체성: '세대 차이' 연구를 위한 심리학적 모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31-47.
황상민, 양진영, 강영주 (2003). 세대집단의 가치로 구분된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그에 따른 권위주의 성향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2), 17-33.
황상민, 양진영 (2002). 한국사회의 세대집단에 대한 심리학적 탐색 : 전이적 공존 관점을 통한 대학생 집단의 세대 이미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3), 75-93.
Adorno, T. W., Frenkel-Brunswik, E., Levinson, D. J., & Sanford, R. N.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Y: Harper.
Almond, G. A., & Verba, S.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Bachrach, Peter (1967). The theory of democratic elitism- A critiqu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Baumeister, R. F., Tice, D. M., & Hutton, D. G. (1989).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s and personality differences in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57(3), 547-579.
Baumrind, D. (1968). Parental disciplinary patterns and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Youth & Society,* 9(3), 239-176.
Baumrind, D. (1991).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 development. In J. Brooks-Gunn, R. Lerner. & A.C. Paterson (eds). *Encyclopedia of adolescence*.
Baumrind, D. (200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ce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56-95.
Bengtson, V. L. (1975). Generation and family effects in value social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3), 358-371.
Bengtson, V. L. (1993). Is the "contract across generations" changing?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obligations and expectations across age groups. In V. L. Bengtson & A. W. A. (eds.), *The Changing Contract across Generations*, 3-23. NY: Aldine De Gruyter.
Bengtson, V. L., Cutler, N. E., Mangen, D. J., & Marshall, V. W. (1985). Generations, cohorts, and relations between age groups. In R. H. Binstock

& E. Shanas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2nd ed). NY: VNR.

Block, J., & Block, J. (1951). An investigation of ambiguity as an emotional and perceptual personality variable. *Jounal of Personality*, 19, 303-311.

Brown, J. D. (1993). Self-esteem and self-evaluation: Feeling is believing. In J. Suls(ed.),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the Self*, Hilsdale, NJ: Erlbaum.

Buri, J. R. (1991). Parental authority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7(1), 110-119.

Chao, R. (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ian parenting style: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54, 1111-1119.

Cobb, Nancy (2000). *Adolescence: Continuity, change, and diversity*. NY: McGraw-Hill.

Conrad, Dan and Diane Hedin (1977). Learning and earning citizenship through participation, In James Shaver (ed.) *Building rationales for citizenship education*. Arlington: VA.

Conrad, Daniel and Diane Hedin (1982). "The impact of experiential education on adolescent development." In Daniel Conrad and Diane Hedin (ed.) *Youth participation & experiential education.* NY: The Haworth Press. 57-76.

Coopersmith, Stanley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eeman.

Crocker, J., Luhtanen, R., Blaine, B., & Broadnax, S. (1994). Collective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white, black, and asian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5).

Daly, M. J., & Burton, R. L. (1983). Self-esteem and irrational belief: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with implication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361-366.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87-496.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Elder, Glen H. & Johnson M. (2003). The life course and aging; Challenges, lessons and new directions. In Elder & Pavalko, E. K. Work careers in men's later years; transition, trajectories, and historical change. *Journals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8, 180-191.

Elder, Glen H. (1975). Age differentiation and the life cours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 165-190.

Elder, Glen H. (1992). Models of the life course. *Contemporary Sociology*, 21(5), 632-635.

Elder, Glen H. (1994). Time, human agency, and social change: The perspective on the life cours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7(1), 4-15.

Elder, Glen H., Johnson, M.K., Cronsoe, R. (2004).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life course theory. In Mortimer, J. T. & Shanahan, M. J. *Handbook of the life course*. NY: Springer.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orton & Company.

Galvin, A. and Brommel, E. (1982).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e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Glenn, N. D. (1977). *Cohort analysis*. Berverly Hills/London: Sage.

Harding, Lorraine. F. (1996). *Family, state and social policy*. London: MacMillan Press.

Hart, R. A.(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 care*. NY: UNICEF.

Hess, R. D. and J. V. Torney(1967).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attitudes in children*. Chicago: Aldine.

Higgins, J., & Kuhlman, D. M. (1965). Authoritarianism and candidate preference. *Psychological Reports*,16, 603-604.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zzett, R. R. (1971). Authoritarianism and attitudes toward the Vietnam war as reflected in behavioral and self-report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2), 145-148.

Kertzer, D. I. (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9(1), 125-149.

Kolb, David A. (1984). *Experiential learning.* NJ: Prentice-Hall, Inc.

Kwon, T. H. (2001).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and feritility transition in south korea, A. Mason. (eds).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s in East Asia*, East West Center Occasional Papers. Population and Health Series. No. 123. Honolulu: East-West Center.

Luhtanen, R., & Crocker, J. (1992). A collective self-esteem scale: Self-evaluation of one's social ident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18(3), 302.

Mangen, D. J., Bengtson, V. L., & Landry Jr, P. H. (1988). *Measurement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 Sage Publications, Inc.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Marshall, V. W. (1980). State of the art lecture: The sociology of aging. Paper presented at the the IX Annual Meeting of Canadian Association of Gerontology, Quebec, Canada.

McClusky HY. (1990). The community of generations: A goal and a context for the education of persons in the later years. In *Introduction to Educational Gerontology*, ed. R Sherron, DB Lumsden. NY: Hemishere Publishing Co.

Olson, D. H. & Barnes, H. (1982). Parent - 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Olson, D. H., Porter, J., & Lavee, Y. (1985).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St Paul, Minn: University of Minnesota.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l, C.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3-23.

Orthner, D. K. (1975). Leisure 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marital care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1), 91-102.

Otto, H. A. (1975). *The use of family strength concept and methods on family life education: A handbook*. Beverly Hills, CA: Holistic Press.

Paolucci, B., Hall, O. A., & Axinn, N. W. (1977). *Family descision making: An ecosystem approach*: John Wiley & Sons.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1-10.

Pilcher, J. (1994). Manheim's sociology of generations: An undervalued legac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5(3), 481-495.

Reuter, A. and Conger, A. (1995). A new look at dissonance theory. In L. Berkovitz (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7*. New York: Academic Press.

Riley, M., A. Foner and J. Waring (1988). Sociology of age. In N. J. Smelser(ed.), *Handbook of sociology*, Newbury Park, CA: Sage, 249-290.

Rindfuss, R. R. (2004). The Family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N. O. Tsuya, L. L. Bumpass (eds.). *Marriage, work, and family life in comparative perspective: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Robertson, J. F., & Simons, R. (1990). Family factors, self - esteem,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1*, 125-138.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yder, N. B. (196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6), 843-861.

Schuman, H., & Scott, J. (1989). Generations and collective mem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3), 359-381.

Spitzer, A. B. (1973). The historical problem of generations.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78, 1353-1385.

Tajfel, H. (1978).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London: Academic Press.

Thomas, T. Z. (1972). Psychoeducational adjustment of English speaing Carribean and central American immigrant children in the U.S schools. *School Psychology Review*, 21, 566-577.

Thornton, A., & Young - DeMarco. (2001). Four decades of trends in attitude toward family issues in U.S.: The 1960s through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4), 1009-1037.

Triandis, H.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New directions in social psychology*. Westview Press.

Waite, L. (ed.). (2000). *The ties that bind*. NY: Aldine de Gruyter.

Wolf, M. (1972). *Women and the family in rural Taiwan*.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부 록

1. 청소년용 조사표
2. 학부모용 조사표

부 록

1. 청소년용 조사표

청소년의 가족의식·가정생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중·고교생과 학부모의 가족의식·가정생활의 실태를 파악하여 청소년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숫자로 부호화되어 통계처리되어 절대 비밀이 보장되오니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 응답요령 >

1.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항목을 하나만 골라서 그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2. 부모님 관련 문항은 해당되는 부모님이 계신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2010. 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문 1] 가족의 의미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자신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1	2	3	4	5
2)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다	1	2	3	4	5
3) 같은 운명을 지닌 사람들이다	1	2	3	4	5
4)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2	3	4	5
5)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1	2	3	4	5
6) 재산과 수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1	2	3	4	5

[문 2] "가족"은 널리 쓰이는 말이지만, 그 범위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열한 분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족으로 볼 수 있다	가족으로 볼 수 없다	잘 모르겠다
1) 큰아버지(백부), 삼촌(숙부)	1	2	3
2) 큰어머니(백모), 작은어머니(숙모)	1	2	3
3) 형수/새언니	1	2	3
4) 매형/형부	1	2	3
5) 조카/질녀	1	2	3
6) 고모	1	2	3
7) 고모부	1	2	3
8) 외삼촌	1	2	3
9) 외숙모	1	2	3
10) 이모	1	2	3
11) 이모부	1	2	3
12) 친사촌	1	2	3
13) 고종사촌	1	2	3
14) 외사촌	1	2	3

	가족으로 볼 수 있다	가족으로 볼 수 없다	잘 모르겠다
15) 이종사촌	1	2	3
16) 촌수는 멀지만 가깝게 지내는 친척	1	2	3
17)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1	2	3
18) 오랫동안 서로 왕래하며 정이 든 이웃	1	2	3
19) 오랫동안 길러온 애완동물(강아지,고양이 등)	1	2	3

※ 위에 나열한 분들이 실제로는 없더라도 있는 경우를 가정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문 3] 당신의 부모님은 어떤 분입니까 ? 다음의 설명이 자신의 부모님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아버지의 경우와 어머니의 경우로 나누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이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할 때 그 이유를 내게 설명해 주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 내가 가족 내의 규칙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대화로 풀어가려고 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3) 가족의 일을 결정하실 때 가능한 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4) 자녀의 생각과 생활방식을 존중해야 가정이 화목해진다고 생각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5) 합리적인 이유나 설명을 통해 나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지도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6) 내가 당신의 기대대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7) 의견이 다를 때 부모님 뜻에 따르는 것이 결국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8) 자녀들을 엄격하게 지도하고 통제하면 많은 사회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으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내가 부모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0)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내가 군말 하지 않고 즉시 하기를 원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문 4] 다음의 설명이 자신의 가족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 강한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1	2	3	4	5
2) 우리 가족은 단합과 의견통일을 중요시한다	1	2	3	4	5
3)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기꺼이 도와준다	1	2	3	4	5
4) 우리 가족은 무슨 일이든 가족과 함께 하려 한다	1	2	3	4	5
5) 우리 가족은 다른 누구보다도 가족끼리 친하게 지낸다	1	2	3	4	5
6) 우리 가족은 여가시간을 되도록 함께 보내려 한다	1	2	3	4	5
7) 우리집에서는 자녀들이 자기가 받아야 할 벌칙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2	3	4	5
8) 우리집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지도자가 바뀐다	1	2	3	4	5
9) 우리집에서는 벌칙을 정할 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의논한다.	1	2	3	4	5
10) 우리집에서는 누가 지도자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1	2	3	4	5

[문 5]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다음의 설명이 실제 자신의 생활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아버지의 경우와 어머니의 경우로 나누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소신을 부모님과 거리낌 없이 의논할 수 있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 부모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감정이 어떤지 잘 아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3) 나는 무슨 일이든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릴 수 있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4) 나는 마음놓고 부모님께 어리광을 부릴 수 있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5) 내 질문에 부모님은 솔직하게 대답해 주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6)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끔 믿기가 어렵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7) 부모님은 그냥 넘어가도 될 말을 굳이 내게 하시는 편이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8) 부모님과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부모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9) 나에게는 부모님과 의논할 수 없는 비밀이 많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0) 부모님은 나에게 화를 낼 때 모욕감을 느끼게 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문 6] 가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신의 개인적 이익보다는 가족 공동의 이익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자신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결혼을 늦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	2	3	4	5
3)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자신보다 가족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1	2	3	4	5
4) 자식을 낳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를 잇기 위해서이다	1	2	3	4	5
5) 자손은 조상이 욕되지 않도록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한다	1	2	3	4	5
6)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자손의 당연한 도리이다	1	2	3	4	5
7) 형제자매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그것을 대신 갚아 주어야 한다	1	2	3	4	5
8)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웃이나 친구보다는 친척이 더 큰 의지가 된다	1	2	3	4	5
9) 자식이 노부모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	2	3	4	5
10) 노부모의 용돈과 생활비는 자녀가 부담해야 된다	1	2	3	4	5
11) 장남이나 외아들은 결혼하면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1	2	3	4	5
12) 경제적으로 빈곤하더라도 부모는 잘 봉양해야 한다	1	2	3	4	5
13) 부모의 노후문제는 자녀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	2	3	4	5
14)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하기 어렵다	1	2	3	4	5
15) 부모에 대한 효도가 부부간의 사랑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1	2	3	4	5
16) 자식이 있어야 노후에 의지가 되고 외롭지 않다	1	2	3	4	5
17) 부모가 시키는 일이 다소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그대로 따라야 한다	1	2	3	4	5
18) 자식은 성인이 된 후에도 매사를 부모와 의논하여 실행해야 한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자녀는 부모의 생각이나 행동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1	2	3	4	5
20) 결혼생활에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1	2	3	4	5
21)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	2	3	4	5
22) 자녀가 없더라도 부부간의 금슬만 좋으면 된다	1	2	3	4	5
23) 자식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1	2	3	4	5
24) 제사는 반드시 아들이 모셔야 한다	1	2	3	4	5
25) 직장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	2	3	4	5
26) 남자는 밖에서 일해야 하므로 가사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1	2	3	4	5
27) 가족이 할 일을 나눌 때 남자와 여자의 일은 달라야 한다	1	2	3	4	5
28) 가정 내에서 남편은 생계를, 아내는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1	2	3	4	5
29) 여자가 잘 되는 길은 남편을 도와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2	3	4	5
30) 아버지는 권위를 가지고 엄격하게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	1	2	3	4	5
31) 가문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계승되어야 한다	1	2	3	4	5
32) 가정의 중요한 일은 아버지가 결정해야 한다	1	2	3	4	5
33) 가족 내의 문제는 가장이 해결해야 한다	1	2	3	4	5
34) 여자가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다면 아이를 낳지 않을 수도 있다	1	2	3	4	5
35) 여자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	1	2	3	4	5
36)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하면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낫다	1	2	3	4	5
37) 동성간(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간의 사랑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1	2	3	4	5
38)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1	2	3	4	5

[문 7] 자신의 가정생활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매우 불만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수준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6	7

[문 8] 평소에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얼마나 돕고 있는지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하지 않는다	가끔 도와 드린다	자주 도와 드린다	매우 자주 도와드린다	항상 내가 한다
1) 식사준비하기	1	2	3	4	5
2) 설거지하기	1	2	3	4	5
3) 세탁/빨래하기	1	2	3	4	5
4) 집안 청소하기	1	2	3	4	5
5) 쓰레기 수거하기	1	2	3	4	5

[문 9] 당신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의 설명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항목을 골라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판단에 자신이 있다	1	2	3	4	5
2) 나는 내 일을 스스로 잘 처리할 수 있다	1	2	3	4	5
3) 나는 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4) 나는 내 모습 이대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	2	3	4	5
5) 나는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1	2	3	4	5
6)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1	2	3	4	5
7) 나는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1	2	3	4	5
9) 나는 남과 경쟁을 하면 대체로 이기는 편이다	1	2	3	4	5
10)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할 말은 한다	1	2	3	4	5
11) 나는 남들은 하지 못하는 일을 가끔 해낸다	1	2	3	4	5
12)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행동으로 잘 옮긴다	1	2	3	4	5
13)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의 일을 스스로 한다	1	2	3	4	5
14)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	2	3	4	5
15) 나와 가까운 사람들(가족, 친구, 선·후배 등)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16) 나는 남들을 잘 배려한다	1	2	3	4	5
17)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이 화합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1	2	3	4	5

[문 10] 지난 1년동안(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부모님(또는 두분 중의 한분)과 집밖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자신의 경험정도와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전혀 없다	1~2회 정도	3~5회 정도	4~6회 정도	6~9회 정도	10회 이상
1) 부모님과 여행(1박 이상)하기	1	2	3	4	5	6
2) 부모님과 장보거나 쇼핑하기	1	2	3	4	5	6
3) 부모님과 식당에서 외식하기	1	2	3	4	5	6
4) 부모님과 운동 또는 산책하기	1	2	3	4	5	6
5) 부모님과 스포츠경기 관람하기	1	2	3	4	5	6

	전혀 없다	1~2회 정도	3~5회 정도	4~6회 정도	6~9회 정도	10회 이상
6) 부모님과 영화 관람하기	1	2	3	4	5	6
7) 부모님과 공연/전시회 관람하기	1	2	3	4	5	6
8) 부모님과 야외나들이/소풍가기	1	2	3	4	5	6

※ 집에서 TV를 통해 영화나 공연을 관람한 경우는 제외함

[문 11] 다음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에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자신의 경험정도와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거의 하지않는 편이다	두세달에 1~2회	한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4회	거의 매일 한다
1) 아버지와 TV시청하기	1	2	3	4	5	6
2) 어머니와 TV시청하기	1	2	3	4	5	6
3) 아버지와 아침식사하기	1	2	3	4	5	6
4) 어머니와 아침식사하기	1	2	3	4	5	6
5) 아버지와 저녁식사하기	1	2	3	4	5	6
6) 어머니와 저녁식사하기	1	2	3	4	5	6

[문 12] 현재 자신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다음 설명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금 나의 생활은 내가 바라던 대로이다	1	2	3	4	5
2) 나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지금의 내 생활에 만족한다	1	2	3	4	5
4) 나는 지금까지 원하는 것을 대부분 이루어 왔다	1	2	3	4	5
5)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고 싶다	1	2	3	4	5

[문 13] 다음의 설명이 자신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아버지의 경우와 어머니의 경우로 나누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와 부모님 사이는 매우 가까운 편이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 나의 부모님은 매사에 나를 신뢰한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3)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가 참 좋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4) 나는 부모님의 심정을 잘 헤아린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5) 나는 부모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문 14]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남이 알아주지 않는 생각은 공상에 불과하다	1	2	3	4	5
2)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	1	2	3	4	5
3) 사람은 선인과 악인으로 갈라진다	1	2	3	4	5
4)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직업의 귀천을 나눌 수 있다	1	2	3	4	5
5) 아이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미덕은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1	2	3	4	5
6) 가정이나 학교나 권위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1	2	3	4	5
7) 사람은 모두 천성적으로 남을 지배하고 싶어한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인간의 본성 때문에 전쟁과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9)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보다는 어떻게든 헐뜯으려고만 하는 것 같다	1	2	3	4	5
10) 요즘은 사기꾼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1	2	3	4	5

[문 15] 지난 1년 동안(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대략 몇 번 정도나 했는지 자신의 경험정도와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전혀 없다	있다				
		1번	2~3회 정도	4~5회 정도	5~9회 정도	10회 이상
1) 담배 피운 경험	1	2	3	4	5	6
2) 어른 몰래 술마신 경험	1	2	3	4	5	6
3) 무단조퇴 및 무단결석 경험	1	2	3	4	5	6
4) 무단외박을 한 경험	1	2	3	4	5	6
5) 성인용 음란물을 열람한 경험	1	2	3	4	5	6
6) 성인대상 유흥업소에 출입한 경험	1	2	3	4	5	6
7) 시험시간에 부정행위(컨닝 등)를 한 경험	1	2	3	4	5	6
8) 부모님께 거짓말로 돈을 받아서 쓴 경험	1	2	3	4	5	6
9)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심하게 반항한 경험	1	2	3	4	5	6
10)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	1	2	3	4	5	6
11)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경험	1	2	3	4	5	6
12) 다른 사람을 구타/폭행한 경험	1	2	3	4	5	6
13) 공공기물을 파손하거나 낙서한 경험	1	2	3	4	5	6

[문 16] 학교생활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설명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 항목을 골라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교 선생님을 본받고 싶다	1	2	3	4	5
2) 나는 학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하는 것이 즐겁다	1	2	3	4	5
3) 나는 학교나 교문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1	2	3	4	5
4)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신다	1	2	3	4	5
5) 우리 반 친구들은 자신의 생일에 나를 초대한다	1	2	3	4	5
6) 나는 우리 반 친구들에게 인기가 좋은 편이다	1	2	3	4	5
7) 학교에서 놀거나 회의를 할 때 친구들이 내 의견을 잘 따라준다	1	2	3	4	5
8) 우리 반에는 내가 비밀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	1	2	3	4	5
9) 친구들은 내가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자기 것을 함께 쓰게 하거나 빌려준다	1	2	3	4	5
10) 나는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공책에 잘 정리한다	1	2	3	4	5
11) 나는 예습과 복습을 꼬박꼬박 하는 편이다	1	2	3	4	5
12) 나는 수업시간에 장난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다	1	2	3	4	5
13) 나는 수업시간에 발표하기를 좋아한다	1	2	3	4	5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응답결과에 대한 비밀은 완벽하게 보장되며 통계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오니 빠짐 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17] 당신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문 18] 반에서 학업성적(2010년 1학기)은 대략 어느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과목 평균과 국/영/수 과목별 성적으로 구분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1) 전체 과목 평균	1	2	3	4	5
2) 국어	1	2	3	4	5
3) 영어	1	2	3	4	5
4) 수학	1	2	3	4	5

[문 19] 부모님의 연령대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이상
1) 아버지	1	2	3	4	5	6	7
2) 어머니	1	2	3	4	5	6	7

※ 만 연령이 아닌 우리식 나이를 기준으로 응답

[문 20]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1) 아버지	1	2	3	4	5	6
2) 어머니	1	2	3	4	5	6

※ 단, 중퇴 및 검정고시도 학교 졸업으로 간주함.

[문 21] 현재 부모님께서는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직업이 없음	직업이 있음
1) 아버지	1	2
2) 어머니	1	2

[문 22] 가정의 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매우 못 산다	못 산다	약간 못 사는 편	중간 수준	약간 잘 사는 편	잘 산다	매우 잘 산다
1	2	3	4	5	6	7

[문 23] 다음은 당신의 가족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가족원이 계신지 안 계신지, 계시다면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안 계시다 (돌아가셨다)	계시다	
		함께 살고 있다	떨어져 살고 있다
1) 아버지	1	2	3
2) 어머니	1	2	3
3) 친할아버지	1	2	3
4) 친할머니	1	2	3
5) 외할아버지	1	2	3
6) 외할머니	1	2	3

[문 24] 당신은 남자 또는 여자형제가 있습니까?

1. 없다　　2. 있다

[문 25] <남자 또는 여자형제가 있는 사람만 응답> 자신의 형제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아니다	그렇다
1)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형제가 있다	1	2
2)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형제가 있다	1	2

	아니다	그렇다
3)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형제가 있다	1	2
4)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형제가 있다	1	2
5) 결혼을 한 형님(오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1	2
6) 결혼을 한 누님(언니)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1	2
7) 조카(질녀)와 함께 살고 있다	1	2

2. 학부모용 조사표

가족의식·가정생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중·고교생과 학부모의 가족의식·가정생활의 실태를 파악하여 청소년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숫자로 부호화되어 통계처리되므로 절대 비밀이 보장되오니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 응답요령 >

1.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항목을 하나만 골라서 그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2. 배우자와 관련된 문항은 배우자가 계신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3. 설문지 작성이 완료되면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자녀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2010. 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문 1] 가족의 의미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귀하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1	2	3	4	5
2)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다	1	2	3	4	5
3) 같은 운명을 지닌 사람들이다	1	2	3	4	5
4)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2	3	4	5
5)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1	2	3	4	5
6) 재산과 수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1	2	3	4	5

[문 2] "가족"은 널리 쓰이는 말이지만, 그 범위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열한 분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족으로 볼 수 있다	가족으로 볼 수 없다	잘 모르겠다
1) 큰아버지(백부), 삼촌(숙부)	1	2	3
2) 큰어머니(백모), 작은어머니(숙모)	1	2	3
3) 형수/새언니	1	2	3
4) 매형/형부	1	2	3
5) 조카/질녀	1	2	3
6) 고모	1	2	3
7) 고모부	1	2	3
8) 외삼촌	1	2	3
9) 외숙모	1	2	3
10) 이모	1	2	3
11) 이모부	1	2	3
12) 친사촌	1	2	3
13) 고종사촌	1	2	3

	가족으로 볼 수 있다	가족으로 볼 수 없다	잘 모르겠다
14) 외사촌	1	2	3
15) 이종사촌	1	2	3
16) 촌수는 멀지만 가깝게 지내는 친척	1	2	3
17)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1	2	3
18) 오랫동안 서로 왕래하며 정이 든 이웃	1	2	3
19) 오랫동안 길러 온 애완동물(강아지, 고양이 등)	1	2	3

※ 위에 나열한 분들이 실제로는 없더라도 있는 경우를 가정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문 3] 현재 자신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다음의 설명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금 나의 생활은 내가 바라던 대로이다	1	2	3	4	5
2) 나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지금의 내 생활에 만족한다	1	2	3	4	5
4) 나는 지금까지 원하는 것을 대부분 이루어 왔다	1	2	3	4	5
5)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고 싶다	1	2	3	4	5

[문 4] 다음의 설명이 귀하의 가족을 어느 정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 강한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1	2	3	4	5
2) 우리 가족은 단합과 의견통일을 중요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시한다					
3)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기꺼이 도와준다	1	2	3	4	5
4) 우리 가족은 무슨 일이든 가족과 함께 하려 한다	1	2	3	4	5
5) 우리 가족은 다른 누구보다도 가족끼리 친하게 지낸다	1	2	3	4	5
6) 우리 가족은 여가시간을 되도록 함께 보내려 한다	1	2	3	4	5
7) 우리집에서는 자녀들이 자기가 받아야 할 벌칙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2	3	4	5
8) 우리집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지도자가 바뀐다	1	2	3	4	5
9) 우리집에서는 벌칙을 정할 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의논한다.	1	2	3	4	5
10) 우리집에서는 누가 지도자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1	2	3	4	5

[문 5] 가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신의 개인적 이익보다는 가족 공동의 이익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	1	2	3	4	5
2) 자신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결혼을 늦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	2	3	4	5
3)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자신보다 가족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1	2	3	4	5
4) 자식을 낳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를 잇기 위해서이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자손은 조상이 욕되지 않도록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한다	1	2	3	4	5
6)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자손의 당연한 도리이다	1	2	3	4	5
7) 형제자매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그것을 대신 갚아 주어야 한다	1	2	3	4	5
8)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웃이나 친구보다는 친척이 더 큰 의지가 된다	1	2	3	4	5
9) 자식이 노부모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	2	3	4	5
10) 노부모의 용돈과 생활비는 자녀가 부담해야 된다	1	2	3	4	5
11) 장남이나 외아들은 결혼하면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1	2	3	4	5
12) 경제적으로 빈곤하더라도 부모는 잘 봉양해야 한다	1	2	3	4	5
13) 부모의 노후문제는 자녀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1	2	3	4	5
14)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하기 어렵다	1	2	3	4	5
15) 부모에 대한 효도가 부부간의 사랑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1	2	3	4	5
16) 자식이 있어야 노후에 의지가 되고 외롭지 않다	1	2	3	4	5
17) 부모가 시키는 일이 다소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그대로 따라야 한다	1	2	3	4	5
18) 자식은 성인이 된 후에도 매사를 부모와 의논하여 실행해야 한다	1	2	3	4	5
19) 자녀는 부모의 생각이나 행동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1	2	3	4	5
20) 결혼생활에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1	2	3	4	5
21)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	2	3	4	5
22) 자녀가 없더라도 부부간의 금슬만 좋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으면 된다					
23) 자식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1	2	3	4	5
24) 제사는 반드시 아들이 모셔야 한다	1	2	3	4	5
25) 직장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	2	3	4	5
26) 남자는 밖에서 일해야 하므로 가사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	1	2	3	4	5
27) 가족이 할 일을 나눌 때 남자와 여자의 일은 달라야 한다	1	2	3	4	5
28) 가정 내에서 남편은 생계를, 아내는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1	2	3	4	5
29) 여자가 잘 되는 길은 남편을 도와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2	3	4	5
30) 아버지는 권위를 가지고 엄격하게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	1	2	3	4	5
31) 가문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계승되어야 한다	1	2	3	4	5
32) 가정의 중요한 일은 아버지가 결정해야 한다	1	2	3	4	5
33) 가족 내의 문제는 가장이 해결해야 한다	1	2	3	4	5
34) 여자가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다면 아이를 낳지 않을 수도 있다	1	2	3	4	5
35) 여자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	1	2	3	4	5
36)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하면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낫다	1	2	3	4	5
37) 동성간(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간의 사랑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1	2	3	4	5
38)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1	2	3	4	5

[문 6]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남이 알아주지 않는 생각은 공상에 불과하다	1	2	3	4	5
2)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	1	2	3	4	5
3) 사람은 선인과 악인으로 갈라진다	1	2	3	4	5
4)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직업의 귀천을 나눌 수 있다	1	2	3	4	5
5) 아이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미덕은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1	2	3	4	5
6) 가정이나 학교나 권위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1	2	3	4	5
7) 사람은 모두 천성적으로 남을 지배하고 싶어한다	1	2	3	4	5
8) 인간의 본성 때문에 전쟁과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9)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보다는 어떻게든 헐뜯으려고만 하는 것 같다	1	2	3	4	5
10) 요즘은 사기꾼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1	2	3	4	5

[문 7] 귀하와 배우자는 가사일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항상 자신이 한다	주로 자신이 한다	배우자와 반반씩 분담한다	주로 배우자가 한다	항상 배우자가 한다
1) 식사준비하기	1	2	3	4	5
2) 설거지하기	1	2	3	4	5
3) 세탁/빨래하기	1	2	3	4	5
4) 집안 청소하기	1	2	3	4	5
5) 쓰레기 수거하기	1	2	3	4	5

[문 8] 귀하의 가정생활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매우 불만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수준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6	7

※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계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오니 꼭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9] 귀하의 성별은 ?

1. 남자　　2. 여자

[문 10] 귀하와 배우자의 연령대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1) 본인	1	2	3	4	5	6	7
2) 배우자	1	2	3	4	5	6	7

※ 만 연령이 아닌 우리식 나이를 기준으로 응답

[문 11] 자녀는 모두 몇 분을 두셨습니까 ? 아들과 딸로 구분하여 숫자를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없으면 "0"으로 표기) .

1) 아들 …… (　　) 명
2) 딸 …… (　　) 명